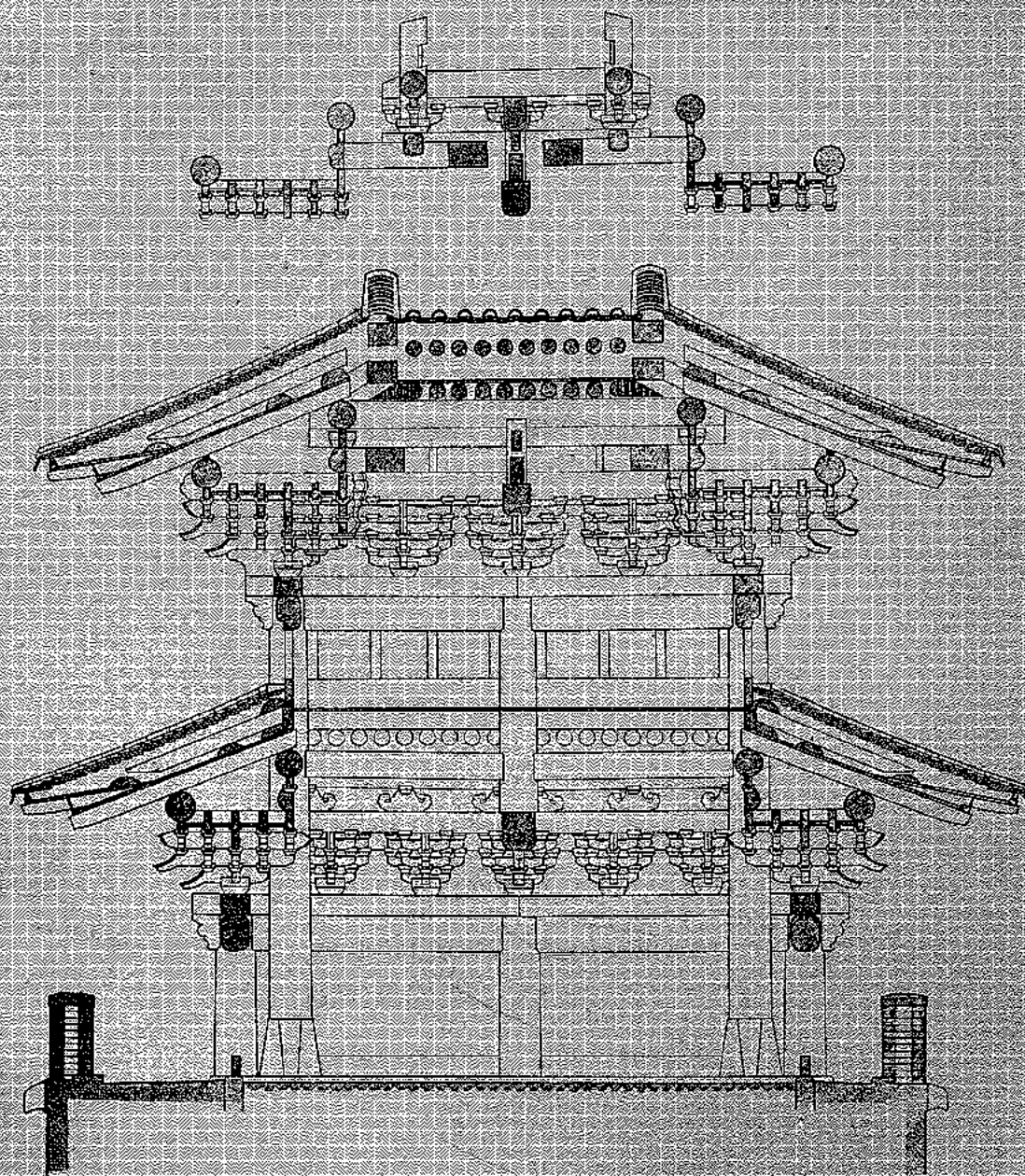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8月 23日 登録番字：建-1251 月刊 建築士
発行日字：1976年 12月 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94号

197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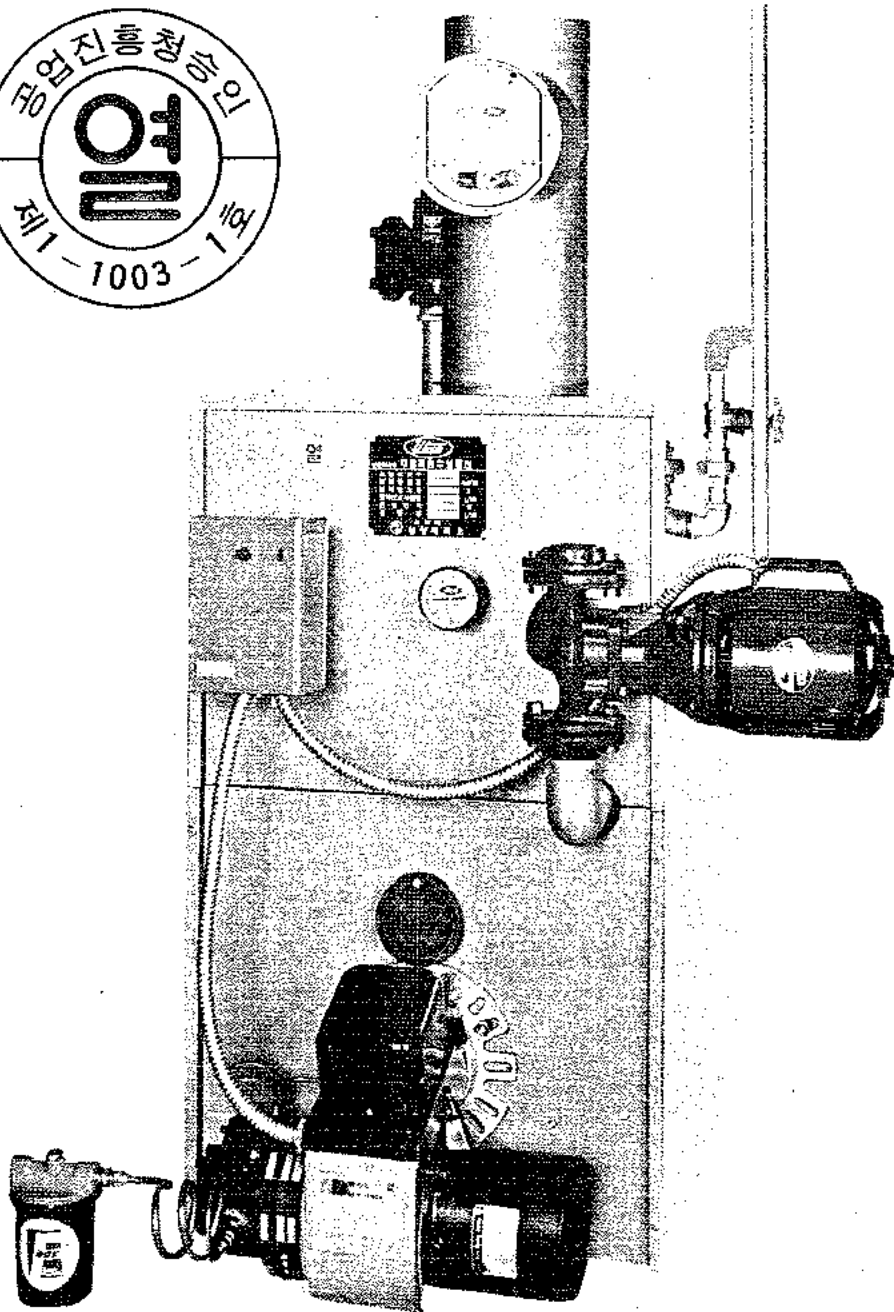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자통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 2동 나열 109호

TEL: 26-2807 · 26-8015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서울特別市 市廳 西小門洞25 / 電話：(02)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區 萬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梁山郡日光面伊川里 / 電話 釜山 (52) 4066-4070

제품안내

-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 강화유리 ◎ 熱線吸收유리
- ◎ 厚板유리 ◎ 유리블록

国内建物들 (시리즈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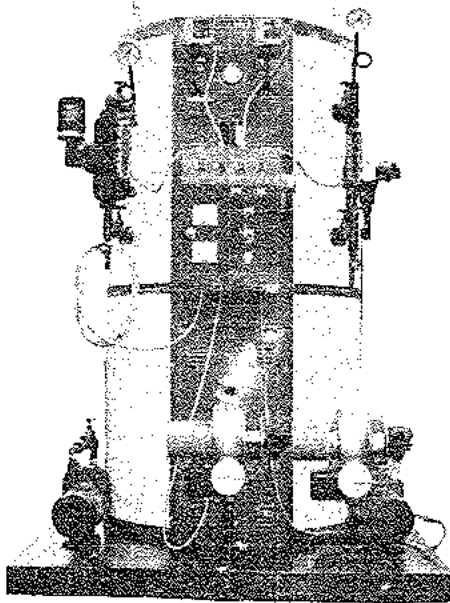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는

증기용전자동보일러

선박용 보일러

건조용 보일러

공장 난방용 보일러

음료수용 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연탄 보일러

0.5톤, 0.2톤 소형전자동증기보일러가 필요하신 (압력 3.5kg/cm²) 섬유공장, 증기다리, 컷팅전조, 연석기, 세탁, 기숙사 1,000명 이상 취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적용한바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원이 필요치 않으며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500TON 이하의 선박난방 및 온수 공급용 전자동 보일러

전조설의 온도조 자유 사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건조용 (증기, 온수) 보일러 (피혁공장, 섬유공장, 석장공장, 화학공장)

전평 20평 ~ 600평 까지 난방용 金白動 증기, 온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시간당 20TON 이하의 온수난온수 (보일러내수 환전도급) 가 필요한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가정용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미국 하니웰 자동, 싼트 스팀드 펌프 등, 부품을 적수입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버너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평이하의 소형연탄 보일러

※ 관리 유지비가 없고 최고와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問議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Rocket Boiler는 열하 40%의 복양어선 선실난방부터 국내공장 산업시설,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우수한 성능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TYPE ITEM	종 류	로켓트 증기 보일러 (가정용 공장용)										로켓트 스틸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단 위	KR-40	KR-ED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RS-200	KRS-500	KR-191	KR-15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30,000	150,000	170,000	200,000	320,000	410,000	120,000	320,000	3,110	6,220	3,330	12,440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20-30평	30-50	50-80	80-100	15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200	400-500	3-4	6-9	12-15	18-20
관 수 용 량	ℓ	105	122.5	166.6	176	308	396	573	624	920.9	1280	-	-	35	81	105	130
연료소비량	L/HR	2-5	5-6.5	6.5-8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6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8	2	2	2	2
배관구경	mm	50	50	65	6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50
연통구경	mm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250	300	100	100	100	100
바 나	JP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외형깃수	U	470	540	616	510	690	880	900	1000	1300	1400	800	1100	430	650	950	1,250
외판깃수	H	1150	1150	1200	1450	1600	1750	1750	1850	2050	2,300	1750	2200	590	590	59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430	520	590	620	720	900	720	2400	180	130	203	263
로켓트 보일러 단가	평 장 도	153,400	202,000	266,900	301,400	410,800	512,400	599,700	680,900	1,149,800	1,276,400			50,400	82,400	103,000	148,500
로켓트 보일러 단가	평 장 도	194,300	194,300	194,300	246,800	246,800	246,800	246,800	278,300	312,900	312,900						
보일러+관+배관 단가	평 장 도	353,700	393,300	461,200	548,200	657,600	759,200	837,500	969,200	1,462,700	1,589,400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1

전화 : 27-9358 · 26 · 1135 ~ 6 · 66-1363 · 66-2810

人造石 물갈기가 必要없게 되었습니다.

內裝・階段・外裝・歩道用으로 새로 開發한

점보타일

점보타일

大理石・人造大理石(데라조)과 一般타일類의 材質・特性・經濟性
 施工上の 長點만을 뽑아 바닥과 階段用으로 製造한大型타일 입니다.

用 途

內裝用 (빌딩・銀行・病院・슈퍼마켓・工場・玄關 等의 바닥用)
 階段用 (빌딩・아파트・대아파트 等 高層建物の 階段用)
 外裝用 (門柱・外壁等 外裝用)
 歩道車道用 (一般歩道・駅構内・地下道・駐車場・公園 等의 바닥用)

特 徵

- △ 堅固한 規格製品 입니다.
- △ 施工이 簡便하여 工期를 短縮시킵니다.
- △ 冬寒工事に 가장 適合 합니다.
- △ 表面이 完全水平이고 華麗 합니다.
- △ 工事後의 補修가 容易 합니다.
- △ 바닥난대가 必要 無습니다.
- △ 施工上 公害가 無습니다.

規 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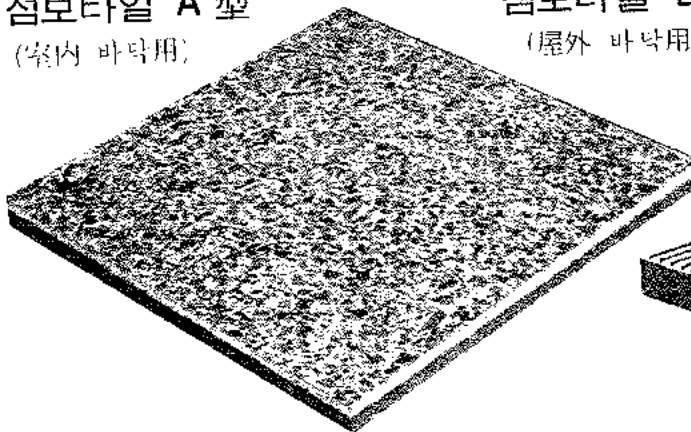
型別	크 기	두께	枚當重量	坪當枚數	m ² 當枚數
A 型	300×300mm	28mm	6 kg	約36枚	11.11枚
A 型	400×400mm	30mm	11kg	約20枚	6.25枚
B 型	300×300mm	30mm	6 kg	約36枚	11.11枚

色相……需要者가 願하는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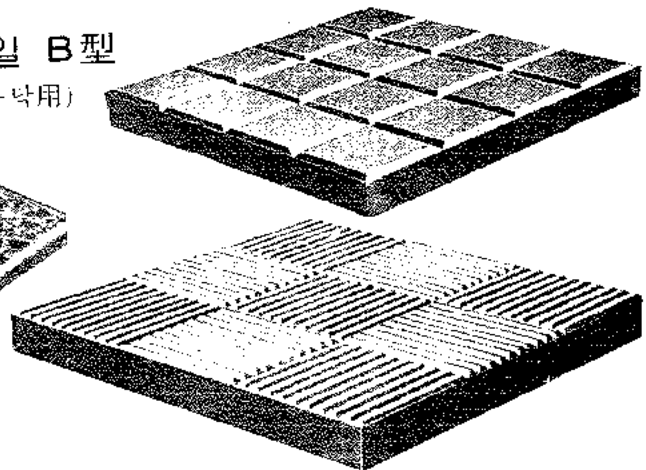
施 工

모루타일을 깬 위에 시멘트 溶液을 부란뒤 점보타일을 깔거나
 組立하면 끝납니다.

점보타일 A 型
 (室內 바닥用)



점보타일 B 型
 (屋外 바닥用)



製 造 元 : **대니온 建材工業株式會社** (日本国 株式会社 北陸地所外 合作会社)

總 販 **대니온 建材販賣商社** 서울特別市中區水標洞27-1
 靑少年會館606號室 電話 27-3600

삼원보일러

삼원기름보일러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특징

- ※완전자동 ※횡영관특수식 3-PASS
- ※연료비 20% 절감 ※급탕 겸용
-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삼원보일러

구분	단위	형식	S-2	S-3	S-5	S-7	S-10	S-15	S-20	S-30	S-40	S-50	S-60
발열량	Kcal/M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연료소비량	L/Hr		2.4	3.6	6	8.4	12	17.5	24	35	48	60	70
수압시험압력	kg/cm ²		4	4	6	6	6	7	7	7	7	7	7
전열면적	m ²		2.15	2.68	3.71	5.62	7.4	11.57	16.26	22	30	38	44
연통직경	mm φ		200	200	250	250	250	250	300	400	450	500	500
배관구경	mm A		50	50	65	65	80	80	90	100	100	100	100
배어	구경		50	50	65	65	80	80	90	100	100	100	100
외형치수	W	cm	52	52	57	61	61	80	90	112	122	136	136
	H	cm	91.5	91.5	105	122	122	140	152	196	200	210	210
	L	cm	55	70	82	92.5	123	120	150	170	200	220	250
난방면적	평		30~40	40~60	60~100	100~140	140~200	200~300	3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1,200
사용연료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가격	원		130,000	160,000	200,000	250,000	330,000	440,000	55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삼원 보일러 연탄용

Smile Boiler

특징

-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 ※상부 복사열 100% 흡수
-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 ※수명 일반품의 3배
- ※상하부 2종가열 특수식
-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

연탄보일러

구분	형식	SB 12	SB 22	SB 22A	SB 13A	SB 23A	SB 33A
		2단 난로고정식	쌍 2단 난로고정식	쌍 2단 난로고정식	3단 난로고정식	SB 13A 2조조립식	SB 13A 3조조립식
평균발열량	Kcal/Mr	2,500	5,000	5,000	3,800	7,600	11,400
난방면적	평	3~5	6~10	6~10	5~7	10~14	15~21
사용연탄종류		22공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3	3	3	3	3	3
배관구경	mm	25	32	32	32	32	40
연통구경	mm	65	75	75	75	90	90
탄재처리구조		재래식		반자동식			
가격		30,000	60,000	70,000	48,000	90,000	125,000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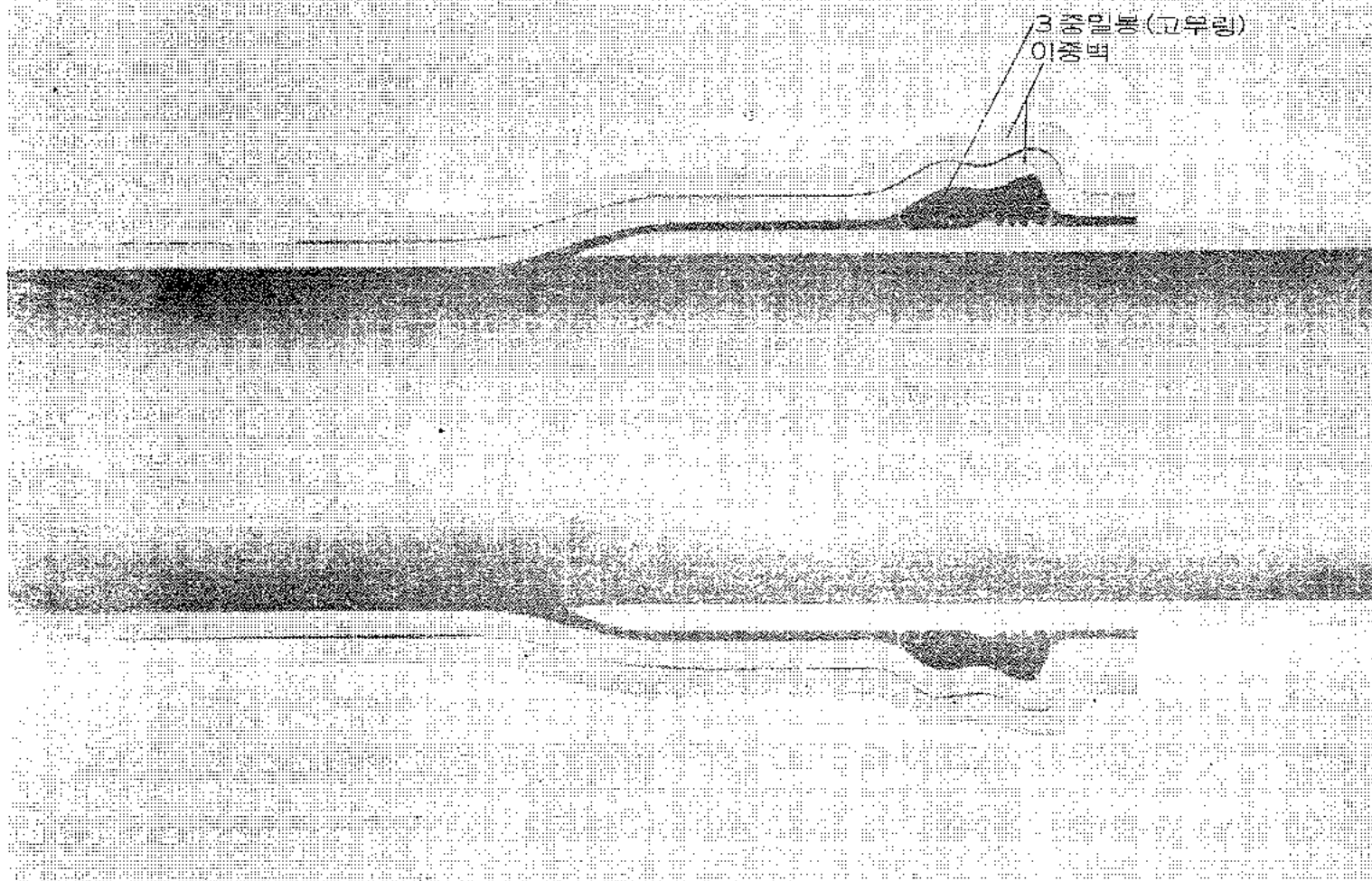


주식삼원기계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8872, 전시장 42-8550

50 mm에서 150 mm까지



진양PVC편수칼라관B형KS획득

이제 우리 진양技術陣에서는 수요가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염원하던 상수도의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PVC파이프 편수칼라관 B형 7種 (50mm~300mm)과 동이음관 3種 (75mm~150mm)을 여러분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KS 표시허가 (제386호 제1273호)를 획득 하였으며 이 품종은 고무링이 3중으로 밀착된 D.T. SYSTEM으로 개발되어 있어 수요가 여러분에게 더 한층 편의를 도모하여 줄것입니다.

● 진양 D.T. SYSTEM이란?

D.T. SYSTEM (Doublewall Triple Rubber Sealing System)은 2중벽 3중 밀봉효과가 완전한 System입니다.

● 진양 P.V.C 파이프 편수칼라관의 특징

① 고무재질이 우수하며 영구적이며, 위생적이다. ② 시공이 간편하여 전친후 시공가능 하며 점착제가 불필요하다. ③ 시공속도가 빠르며 시공비가 절감 된다. ④ 산축계수의 역할을 겸한다. ⑤ 수중배관이 가능하다. ⑥ 부동침감에 안전하다. ⑦ 솔벤트 크랙킹 (Solvent Cracking)을 방지한다. ⑧ 수압에 안전하다. ⑨ 누수율이 제로 (0)이다.

진양PVC 편수칼라관



진양화학

U. D. C. 69/72(054-2) : 0612(519)

月刊「建築士」 (通卷94号)

1976 12

目次

送年辞	2
建築士 職能変化와 空間概念	姜明求 3
岩泰島(聚落과 住居)	金眞一 7

■ 會員作品 19

ㄱ) 韓國高圧벽돌工場	오웅석
ㄴ) 溫室및 動物飼育場	윤태현
ㄷ) 원주·강능 고속버스터미널	서천식
ㄹ) 제일은행 응암지점	유승근
ㅁ) 이사장택	이재규
ㅂ) L氏宅	김만준

會員코너	李春相 33
------	--------

座談會(1976. 회고)	37
---------------	----

시카고(바하이敎會를 보고와서)	禹達亨 41
------------------	--------

技術情報	辛鉉植 45
------	--------

紀行文〈유럽〉	羅榮均 51
---------	--------

建築法規問題解説	韓奎峯 61
----------	--------

■ 建議文 66

海外作品	〈J + A 誌〉 67
------	--------------

協會記事	83
------	----

月間協會動靜	84
--------	----

會員動靜	85
------	----

建築許可統計	88
--------	----

建材씨리-스	90
--------	----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斗燮
委員	金仁錫
"	金眞一
"	辛鉉植
"	俞景哲
"	尹道根
"	李璟會
"	李文輔
"	韓籍燮

表紙說明 서울南大門 架構圖

發行人兼 編輯人・李圭福 / 登錄番号・第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6年 12月31日 / 通卷 第94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送 年 辞



親愛하는 全国 1600余 會員 여러분

丙辰 이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1年間 우리들의 共同目標 達成을 위해 그리고 協會發展과 社会奉仕를 위해 끊임없이 精進하고 努力하신 會員여러분들에게 우선 深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

本人이 會長의 重責을 맡은 지난 75年末 本人은 會員 여러분들에게 “누가무어라해도 介意치 말자.” 이런때에 左聘右顧할 余裕가 없다.

누가 말했듯이 옳고 그름은 後日 歴史가 証明하리라. 우리는 다만 실재없이 밀어닥치는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 後孫을 위해 處理해나가자 고 말씀드린적이 있고 丙辰새해를 맞으면서는 「協會는 오로지 全体會員을 위한 機構로서만 그存在價值와 理由가 있고 따라서 協會의 全機能은 지난 10年間 協會 發展을 위해 献身的인 努力을 다하신 會員들을 위해 發揮될 것임」을 分明히 한바 있고 이러한 所信으로 本人은 지난 1年間 東奔西走 했다고 생각합니다.

會員 여러분

저물어가는 이 한해를 도리켜 보건데 協會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바쁘고 山積한 課題를 解決해야만 했든 한해였습니다.

建築士로서의 品位向上과 公信用昂揚 그리고 政府施策에 呼応한 새마을 事業参与로 奉仕活動의 強化、不正不条理 척결을 위한 庶政刷新 業務推進를 비롯하여 住宅建築許可制度 改善方案實施에 따르는 組織의 再整備과 業務遂行態勢의 定立등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일들이 會員 여러분들과 協會의 渾身の 努力을 要求했으나 우리들은 總和 團結된 힘을 바탕으로 이모든 일들은 거의 遜色없이 處理했음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바입니다. 더욱기 協會 創設以來 처음으로 建設部長官께서 全国 會員 全員에게 親書を 보내 우리들을 激勵해주셨을뿐만 아니라 長官께서 協會를 直接 訪問하시여 우리의 形便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隘路事項을 傾聴해 주셨던 일들은 우리들이 永遠히 잊지 못할 일들이 아닐수 없어 關係當局에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宿願이었던 建築士法 改正이 비록 今年中에 實現되지는 못하였지만 建設部 當局者가 77年度 臨時国会에는 期必 建築士法改正案을 上程 하겠다는 確固한 當局方針을 會員 여러분들에게 직접 闡明한 事實들은 그間 우리들의 努力이 헛되지않고 結束段階에 접어들었음을 立証하는 것으로서 저옥히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또하나의 念願인 所得標準率 調整問題도 各界의 相当한 理解와 妥當性을 認定받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에도 滿足스러운것 보다는 不滿스럽고 未治한 일이 더 많았고 더욱기 會員 여러분들의 期待와 所望에 全的으로 副應할 수 없었던 일들이 더 많았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는 바이오나 우리들의 宿願事業 達成을 위한 바탕만은 充分히 이룩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自慰하는 바입니다.

會員여러분 !

금년에 構築한 土台를 바탕으로 來年에는 期必코 우리들의 目標을 達成하는데 全心 全力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지난 1年間 物心兩面으로 協助해주시고 指導鞭撻해주신 會員여러분들에게 거듭 感謝드리우고 來年에는 會員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보람찬 結實을 맺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해를 보내는 人事를 가늠하는 바입니다.

1976. 12. 末

大韓建築士協會

會 長 李 圭 福

建築士 職能變化와 空間概念

姜 明 求 (中央大學校教授)

元來 建築士라는 말은 英語의 Architect로서 建築家라는 말이다.

그 語源은 希臘語의 Architecton이며 이 말은 또 Techné 即 技術이 能한 者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建築士와 建築家가 때로는 混同 되기 쉬우나 建築士資格은 國家試驗에 의하여 받은 稱号는 다 아는 바이지만 建築家는 現在 韓國建築家協會에 屬해 있으며 特別한 資格 賦與는 없어도 좋은 建築을 設計할 수 있는 諸般條件을 갖춘 一定한 學識과 作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會員으로 되고 있다.

勿論 建築家라고 하더라도 建築士와 같은 設計業을 獨自의로 運營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 하려는 Architect는 國家試驗에서 資格을 얻은 建築士를 뜻하는 말이다.

Architect 即 建築士라는 뜻이 近來에 와서는 처음 語源에서의 풀이와 같은 技術이 能한 者라는 概念만으로는 行하기 어려운 複雜한 時代에 逢着되고 만것 같다.

歷史上으로 본 建築士 職能이 變化되어 왔음은 如實히 證明되고 있다.

이러한 時代의 變化가 우리들 建築士의 職能을 現時代에 맞도록 올바르게 찾아 보는것도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본다.

一般的으로 어떤 概念이 變形될 때나 또는 價值에 變換이 생기는 것은 언제 어느 時代에서나 社會的으로든 무슨 變更이 생길 때이다.

가까운 例로 20世紀 初의 産業革命이 모든 工業生産의 增大라는 變化와 더불어 人間의 經濟的 階級的인 關係變化를 社會全般에 미치게 한것과같이 어느 變化가 特定의 問題의 性格까지를 다르게 하고 마는 일은 歷史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이러한 現象들은 宇宙生命의 흐름이기도 한 成長이라는 自然的 現象일지도 모른다.

“모든 變化는 刺戟을 일으키고 그 刺戟이 새로운 生命을 낳게 한다”는 프로이드의 發見과도 合致된다.

그러므로 建築士의 職能도 역시 그 時代의 흐름에 對應하여 變化되어야 한다고 볼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感受性인 能力을 持續시키기 위해서도 恒常 모든 것이 變化되어야 하는 印象을 必要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5~60年前 우리나라 韓屋時代에서는 都辺手인 木手가 中心이 되었던 建築物들이 漸次 建築技術者들에 의하여 計劃設計, 工事施工, 全般을 掌握 指導하던 일들이 생각된다.

또 1949年 美國의 A. I. A. 總會에서는 새로운 會則으로 「建築士는 直接또는 間接의으로도 請賦業에는 從事치 못한다」라고 定하였다.

建築士는 個人的으로도 尊嚴과 信用으로 建築의 創造, 創作에만 힘써야 한다고 하던 時節, 또는 建築의 藝術性과 機能說로 모든 建築을 藝術作品으로 昇化시키던 時節, 이러한 여러가지 變遷을 謫化로 우리나라에서도 建築研

究所(?) 또는 建築事務所에서 作成한 手續專用 設計까지가 自主性和 非妥協性, 我執이 通用되던 時節들을 거쳐 現在에 와서는 民主主義的 社會的 見地에서 또는 地域社會 都市美觀的인 側面까지의 高次元으로 建築의 設計行爲도 多角的인 展開로 變하고 있다.

그러므로 建築士自體의 概念보다는 設計 職能또는 設計行爲를 어떻게 規定짓느냐가 더 큰 問題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社會的 變革으로 이에 對應해야 할 建築士들의 職能도 變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前 時代에 지어진 많은 建物들을 보면 驛舍, 銀行, 美術館 等等 의 記念的인 建物 또는 名 建物로 남은 建物들이 懷古的이고 藝術的인 한나 모두가 消耗的이고 非生産的인 建物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近間의 建築들은 急速히 增大되는 經濟成長으로 工業団地의 大工場 大倉庫 産業施設建物 이에 附隨하는 住居大団地 大規模의 高層事務所등 이들 大規模建物들은 作家然하던 建築士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藝術的作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怪物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크고 높고 넓은 이러한 形体들은 形態 意匠上으로도 도저히 整理하기 힘든 建物들이다.

이러한 建物은 建築士가 制作하는 것이 아니라 技師나 엔지니어들의 할 일로 생각하던 時節도 지났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産業發展에 따라 建築士도 이들 對象의 研究와 作品表現에서도 이에 對應할 수 있는 새로운 課題로 登場시켜야 한다. 卽 社會的 變化에서의 建築士들의 職能도 設計對象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内外部 空間에 對한 機能의 追求 生産技術의 發展, 大規模化에 따른 構造技術의 合理性 研究 機械化 輸送計劃 資材開發과 強度論의 進展 施工法 研究에 의한 工期短縮 經濟性 等의 새로운 設計對象들은 以前 都辺手인 木手 中心의 建築에서 techne 的인 새로운 建築士 建築家, 教授, 技術者들의 合力이라는 課題로 變해지고 있다.

옛날의 都辺手이던 木手는 現在 一般建築 職工에서도 同位以下로 떨어져 버리고 그 代身 다시 techne 이나와 建築工事 全域을 指導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現代의 techne 은 垓地決定 計劃 設計施工方法, 現場運營, 請負者와의 協力, 造園, 外部空間과의 調和 建築後의 地域發展에 이르기까지의 全般을 管掌 理解할 수 있도록 合力된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世界的인 傾向에서의 建築士들의 設計 行爲는 그 對象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資材의 發掘 土地 利用과 人口密度 土地効用, 高層化 産業의 大形化로 인한 機械設備의 複雜性 住居用 大団地의 日照問題, 安全性, 나아가서는 都市의 景觀消滅로 外部空間의 人間性 複歸에 이르는 방대한 複合關連性 때문에 建築表現 方式도 그表現의 自由를 擴大시키고 있으며 造形에 對한 過去의 美

意識도 整備되지 못한채 構造, 資材 附帶設備 때문에 經濟的인 共通된 Module 採択이 平面을 定하고 立面을 決定하는 式의 造形에 對한 理論은 右往左往인채 끌려가고 있는 形便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러한 狀況속에서 또하나 設計에 크게 要求되는 問題는 于先 工期의 短縮에서 오는 最短時間內 라는 操急한 設計期間의 短縮이 特徵이다.

短期間 設計要求의 對象이 되는 建物들은 오�히려 해마다 巨大化되고 複雜 複合 高度化되어 감으로 設計業務量과 設計期日은 恒常 反比例되는 것도 重大한 問題로 抬頭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을 內包하고 있으면서 建築生産의 近代化에 對應하여야 되는 建築設計 職能도 새로운 運營方向으로 早速히 그 對備體裁를 갖춰야 한다.

建築 디자인의 方向도 前과 같은 樣式論, 造形論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資材의 規格에 맞는 構造設備, 工期의 合理化를 위한 Module 의 必然性은 建築設計도 作品的인 것으로 보다는 techne 的인 置重計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뜻은 이제까지 建築士들이 생각하던 經驗爲主的이던 것 또는 主觀的이던 設計 行爲에 對한態度를 自我가 아니고 民主的 人間尊重의 傾向으로 客觀的인 面에서의 建築士 自身의 建物이 아니고 그 時代의 大多數 國民들의 眼識과 建物을 實際로 使用하는, 또한 시민들을 주로 한 大衆性을 말하며 아파아트 団地도 住民들의 内部 空間은 勿論, 外部 空間에서의 生活이라는 重要한 客觀性이 크게 要求되는 現代 建築에서 더구나 機能의 多樣化 複雜化 規模의 大型化에서 오는 設計 範圍의 增加는 以前과 같이 талант의 存在이던 하나의 建築士로는 도저히 勘當치 못하게 되고 말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建築士와 構造計算 技術者 또는 建築士와 意匠的인 建築家 또는 冷暖房設備 技師 電氣技師 等과의 合作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더욱 專門化 分業化되어 計劃 使用資材, 電氣, 防災, 安全性, 冷暖性, 内部裝飾, 外部空間, 造園等의 專門研究를 거친 建築士 教授, 建築家, 技師, 造園師 등의 合作이 必要하게 될 것이 確信 된다.

筆者가 實務한 美國의 設計事務所를 例로들면 以上과 같은 合力組織으로 그 巨大한 美國의 建築生産이 손쉽게 이루어졌음을 実感할 수 있었다.

하버드 大學 建築科 率業生이 色彩專門인 디자인에만 合力하는가 하면 또 資材의 規格 設計만 專務 한다든지 造型專務, 情報專門 等으로 각己 才能의이 아닌 하나의 片斷적 役割의 集成으로 그 巨大한 美國의 建築文化를 이룩한 底力을 如實히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現狀도 이와 똑같은 體系的 設計方案이 現在에는 時急한 問題로 抬頭 되었다는 時點에 와 있다.

그러므로 建築士의 職能도 組織的이고 合力的인 方向

을 模索할 때가 왔다.

이러한 緊急動意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論議되고 있는 建築士의 有機的인 合同 連帶에서도 또 더 크게는 建築士와 教授, 建築家, 技師의 合同 連帶에도 事前 參酌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設計行爲가 建築生産의 全過程의 한 部分 部分의 모음으로 그 全過程을 組織化하는 사람 即 建築士의 職能의 高次的인 變化를 가져오게한 時代的 必然性인것 같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高度의 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의 急速한 發展은 建築生産의 向上, 合理化를 위하여 論議되었어야 할 때가 現時點에서도 좀 늦은 感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建築士들의 職能은 分化, 合力 組織化 되어야 할 時急한 큰 問題로 抬頭되어 있다.

再言이 되지만 建築士의 職能을 돌이켜 보면 여백껏 自主的이고 自由業이던 建築士 觀에서도 큰 回轉點에 오고 말았다. 建築士의 資格은 勿論 國家試驗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지만 所謂 建築家는 그 될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 建築家들은 大概 個人名이 붙어있는 建築士 事務所나 그 外에는 合力들을 하고 있다.

間或 그들 建築家들의 設計가 建築士 名義로 許可提出되어 建設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建築士와 建築家, 教授, 技術者들의 協力の 可能性도 合力 設計의 組織의 職能의 開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構造, 設備, 意匠, 施工 심지어 請負業者와의 協議에 依한 結果가 좋은 作品이 된다면 그것은 1949年 A. I. A. 가 意圖的으로 建築士의 權威를 높이기 위한 他業種 特히 請負業者와의 結托을 禁한 會則白體도 現代의 總體的인 設計体裁에서 불배에는 建設的인 解決方案은 되지 못한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屈曲되게 解釋되기 쉬운 建築士의 올바른 自主性을 回復하는 길은 建築設計라는 創造 行爲에 있어서 精神的인 自由가 不可欠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그 作品 問題로 代替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結局은 質이 높은 作品을 만든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建築士의 自主性은 完全히 確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質이 높은 作品이란 勿論 建物個體의 그 機能的 解決도 重要는 하지만 그 建物이 세워질 立地條件, 地域, 団地 또는 都市 總體를 해치는 일이 없이 人間的인 觀點으로 보아 좋은 生活環境 空間의 再生을 위한 配慮가 加味된 作品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詳細히 說明한다면 設計對象으로써의 個體以外에 必需되는 公共施設의 重要視(例로 아파아트 団地內에서의 老人, 어린이 놀이터 駐車場, 造園等의 適正 配置)되어야 하며 設計의 目標인 住居団地로서의 內, 外部

空間의 處理가 漸次 專門化에 따라 設計의 對象도 多樣化됨으로 각 分野別의 專門 知識人의 協同設計가 必要하게 된다.

現代에 와서는 再來式 設計方法만으로는 이러한 複雜한 問題들을 뒤따르지 못하게 되므로 建築士들의 設計事務所 運營 組織도 問題가 된다.

이러한 多角的인 建築設計의 計劃은 이제 建築士 個人의 能力만으로는 힘드는 時代에 와 버리고 말았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建築의 制限 또는 都市 外部空間이라는 觀點에서의 建物 높이, 制限, 美觀의 見地로서의 形体와 平面과 外觀의 制限들은 벌써 이러한 社會的 都市的인 思想을 如實히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複雜한 設計 行爲의 그 對象이나 範圍에는 여러가지 變化를 낳게 하였으나 이러한 問題들의 本質的인 것으로 共通된 役割은 社會的인 人間生活의 變遷을 社會機構의 變化에 따라 어떻게 對應시키고 있느냐 라는 點에 建築士들의 設計 行爲속에 그 職能의 本質이 있다. 世界 어디서나 그렇듯 우리나라의 文明도 긴 眼目으로 보아 그 進歩와 發展은 社會体裁에 關係없이 今後에도 發展될 것이 確信되며 따라서 社會機構도 더욱 複雜化되고 專門化 될 것이 確實하다.

그러므로 設計行爲 그 自體의 對象이나 그 範圍도 더욱 多樣하게 變化되어 가다 建築設計도 더 細分化가 予想된다. 이 專門化 分業化가 發展되면 될수록 각 分擔 專門職能끼리의 相互 關係는 보다 有機的으로 互應히 連帶되어야 한다. 이러한 建築士들의 앞으로의 設計 行爲나 職能은 干先 建築의 要求에서 附隨되는 모든 要求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며 또 그 要求를 形体로 制作 設計하려면 어떠한 職能의 팀을 짜야하며 어떻게 整理하면 보다 完全한 所期의 目的을 短時日에 이룩할 수 있느냐 라는 techne, 即 技術이 能한 建築士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未來의 予想치 못할 發達로 建築生産方式에 變化가 생긴다. 하더라도 建築士들의 設計職能은 더욱 뚜렷 하게 細分 分解가 要求될 것이 確實하다.

벌써 現在 우리나라에서도 建築生産 方式이 近代化된 建築에서는 設計行爲의 職能別 分化를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即 機能設計技術者 構造力學專門職, 構成設備, 資材, 地質, 意匠, 室內空間, 外部空間, 造園等等 各 分野別로 깊게 있게 研究한 專門 職能들을 限定 要求하고 있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建築士의 職能에 數次的인 變化가 준 經路의 總歸結이 될 要點은 다시 嚴密한 뜻으로의 Architecton의 語源的인 職能이 되살아 난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다.

그러나 大部分의 建築士들은 現代 造形的 要素로서의 空間에 對한 常識的인 概念은 있었으나 内部機能, 内部空

間에만 置重된 나머지 外部空間이라는 重要な 要素와 建物과의 關係를 疎忽이 한것도 틀림이 없다.

이 空間 概念이야말로 建築의 媒体이며 建築의 容量과 空虛와의 올바른 關係가 얼마나 重要的 것인지 認識치 않는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이 空間, 時間이라는 問題는 現代디자인 用語에 의하여 널리 普及되기 始作 하였다.

從來 機能主義 萬能時代의 建築을 되돌아 보면 어느 意味로는 住居 病院 學校, 駅舎, 電話局 等の 그 建物別 用途의 機能의 存在를 前提로하여 어떻게 그 建物を 三次的인 空間體로 만드느냐 하는데 焦點을 맞추고 그 建物設計 過程에서는 새로운 資材와 構造의 驅使와 最大로 單純化한 솔직한 表現과 經濟性 管理, 使用의 効用만을 中心으로 한 平面計劃과 立面을 合理的으로 解決하면 그것에서 나타내는 最終點인 形態는 自然히 새로운 機能美로 成立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建築의 内部機能을 있는 그대로 建築全體에 다 表現하려던 機能主義의 強한 魅力도 現代라는 새로운 命題에 의하여 變化되고 말았다.

機能主義 時代에는 内部機構를 通하여 얻어진 形態의 兪見이 있었듯이 지금은 그 内部機構도 包含된 보다 넓은 外部機構, 即 環境 空間의 存在가 論議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現代에서의 建築機能이란 그 内部的인 要求를 充足시키는 性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建物を 둘러싸고 있는 外部機構 即 外部空間 속에서의 存在 意義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建築物 하나로서의 外部機能 即 外部機構에 對한 機能만이 아니고 그 建物を 둘러싸고 있는 總體로서 建物全體를 流動하는 空間 意識을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現代에 와서 이 外部空間과 内部 機能과의 混合은 漸漸 複雜化됨에 따라 外部空間의 變化가 複雜해졌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뒤엎힌 内外空間의 變化가 점점 더욱 顯著해

지는 것이 近來의 特徵이기도 하다.

最近 開業한 南人門路의 새로운 百貨店과 教會의 複合 建築, 호텔과 商街, 아파트와 商街, 事務所와 駐車場, 地下鉄과 百貨店, 劇場과 百貨店, 슈퍼마켓 등을 보더라도 얼마나 近來의 交通手段, 生活樣式, 流通機構의 發展에 따라 變遷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面에서 볼 때 社會가 高密度化됨에 따라 建築施設도 점점 複合化 되므로 새로운 機能主義 建築의 原則도 通하지 못하게 되고말 것이다.

外部空間 機構의 變化와 代謝가 顯著해 진다는 것은 從來 建築家들이 즐겨 計劃하던 所謂 融通性 있는 使用目的 變更 또는 解体 等の 建築内部 機能의 代謝 變體라는 뜻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將次에는 建物하나 하나의 内部 機能의 變更도 許諾이 안될지도 모른다.

都市라는 次元에서의 個個의 建物は 그리 重要視 되지 않는다.

有機的인 都市環境 外部空間의 새로운 創造意識은 앞으로 더욱 더 必要하게 되지만 그 안의 個個의 建물이 有機的인 必要는 없다 라는 傾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地域에 計劃된 建物の 內的인 機能 또는 外部空間에 對한 機能의 意義가 그 地域에 잘 調和될수 있는 三次的인 空間의 表現을 理想으로 하기 때문이다.

建築士들의 實際面은 構造 資材 等の 問題이지만 建築의 本質은 空間의 支配에 의하여 서기 때문이다.

眞正한 外部空間의 設計란...

建築士 自身이 設計한 建物에 의해서 占有되는 空間뿐만 아니라 그 建物에 의해서 占有되지 않은 空間 即 逆空間에 까지도 變化와 刺戟과 生命이 復活될 수 있게 細心한 注意를 기울일 때 비로소 創造되는 것이며 全體建物の 配置를 建築의 一部로 生覺하거나 또는 지붕이 없는 建物の 外廓線 나머지 部分을 外部空間으로 認識될때에도 外部空間의 設計는 達成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岩 泰 島

聚 落 과 住 居

金 眞 一 漢陽工大 教授

1. 岩泰로 가는 뱃길

앞때는 多島海의 섬이다. 木浦에서 黑山島로 가는 4分の1거리(22km)에 있으며 1時間여의 뱃길이다.

동녘의 儒達山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밑에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木浦시가가 점점 멀어져 갈때 배는 작은 無人島를 스쳐가고 있다.

부둣가의 廢油와 下水에 오염된 바닷물을 벗어난 뱃머리에 부딪치는 潮流가 그때만은 맑게 보인다.

多島海가 그 이름이 詩的이면서도 詩가 적은 이유가이 때문일까. 아니면 道德島의 宋元時代의 유물처럼 海底에서 깊은 꿈을 청함이 詩境일지 모른다. 검은 「다이아몬드」 石油를 품고 있을지 모르는 未知의 寶庫, 黑山島의 대북봉이나, 黃海에서 여름철 젊은이에게 손짓하는 奇岩絶경의 紅島도 多島海의 한 줄기이다. 그는 언젠가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줄 때 다도해는 多寶海가 될 것이다.

멀리 동녘에 아련히 보이던 유달산이 크고 작은 섬으로 가리워질때 無人島의 갈매기가 뱃전을 누빈다. 이들 섬은 흙머를 고루 두루고 있다. 밀물과 썰물로 草木을 마다하는 어른 한키 폭의 흙머는 龍王과 물으로 兩棲하는 異色地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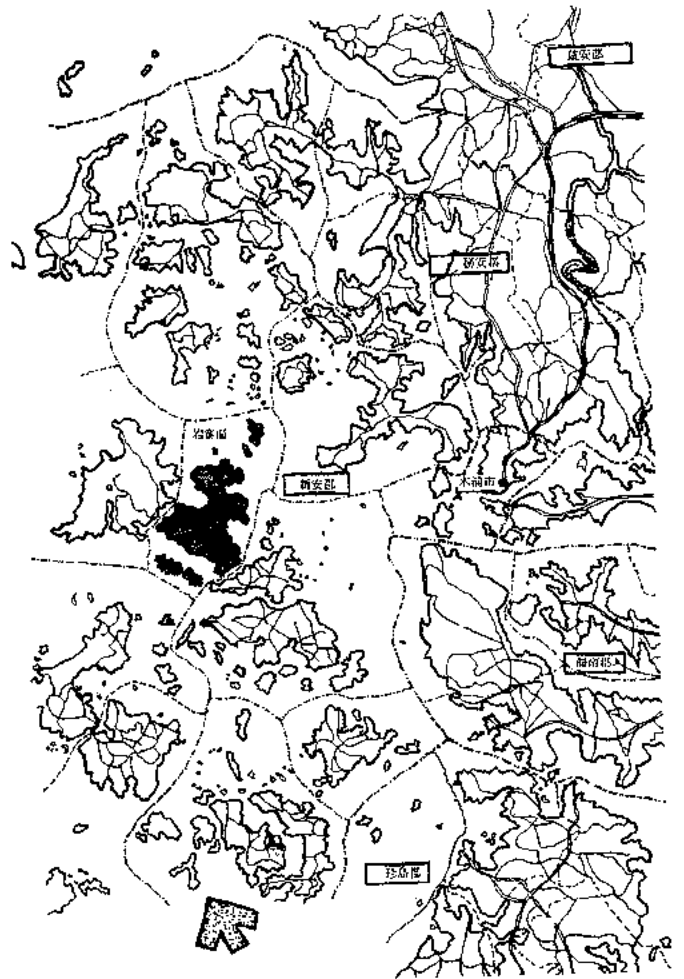


圖 1. 木浦와 岩泰島의 주변

人口와 世帯数

表 1

1972年 現在

区 分	人 口 (名)				世 帯 (世帯)			
	計	男	女	密度 (人/ha)	計	農家	非農家	密度 (世帯/ha)
新安郡	165,297	82,789	82,508	272	27,928	27,928	3,875	45.9
岩泰面	4,894	4,917	4,977	281	1,695	1,554	141	42.8
智島面	25,042	12,443	12,599	256	4,052	3,430	622	41.4
荏子	11,862	5,932	5,930	249	2,053	1,665	388	43.0
慈恩	11,638	5,792	5,846	227	2,011	1,827	184	39.1
	16,184	8,262	7,922	337	2,795	2,435	360	46.6
部草	14,980	7,545	7,435	281	2,493	2,237	256	51.3
黑山	13,209	6,632	6,577	293	2,320	990	1,330	42.5
荷衣	16,312	8,285	8,027	258	2,689	2,591	98	52.0
長山	8,421	4,213	4,288	302	1,454	1,360	84	48.3
安佐	19,790	9,799	9,931	284	3,371	3,196	175	46.7
押海	18,025	8,969	9,056	281	2,995	2,768	227	

土地種別 行政区域

表 3

1972년

合 計	面 積 (km ²)					
	畜	田	塩田	林野	宅地	其他
39.54	7.23	6.47	1.08	22.44	0.55	1.77
面 積 (km ²)	法 定 洞里数	自 然 部落数	計	有人島	無人島	
39.54	9	32	33	5	28	

土地利用現況

1974년

總 面 積				林 野	其 他
	畜	田	計		
4,140.0	641.1	729.2	1,370.3	2,443.0	326.9

人口와 世帯

世 帯 数			人 口			
農 家	非農家	計	男子子	女子子	計	密度(km ²)
1,578	103	1,681	4,916	4,899	9,815	248

耕作規模

(ha)	0.3 ~以下	0.3 ~0.5	0.5 ~1.0	1.0 ~1.5	1.5 ~3.0	3.0 以上	計	1戸当
耕地	35.2	94.1	410.1	417.1	342.5	80.4	1,370.3	耕地面
農家	133	208	553	342	198	16	1,450	0.95

耕作규모·耕地면적·농업형태

表 2

1972년

区分	總 数	耕地外農業	1a 未満	1a~3a	3a~5a
戸 数	1,554	-	3	175	238
面 積	136,929	-	19	3,471	9,332
区分	5a~1ha	1ha~1.5	1.5ha~2ha	2ha~3ha	3ha以上
戸 数	585	347	124	57	25
面 積	40,661	41,365	20,787	13,180	8,112

合 計(a)	畜		田	
	計	1毛作	2毛作	
136,929	72,823	46,860	25,964	64,106

合 計 (世帯)	純 農 家	2種 兼業		其 他
	専 業	1種 兼業	水産兼	
1,554	1,266	48	54	174

生産규모와 生産高·農機具

1973년

面積(ha)	收穫量	実 積	農 機 具		73保有
米穀	962.7	1,960	2,589	耕 運 機	10 台
麦類	711.5	1,871	1,904	動力唐箕	48 "
豆類	221.0	157	162	動力噴霧機	1 "
芋類	92.0	582	391.3	高圧式 "	155 "
雜穀	130.7	117	167.2	脱 穀 機	299 "
計	1,950.4	4,687	5,213.5		

家畜現況

	牛	乳 牛	豚	鶏
数	433	0	1,022	4,096
戸 数	413	0	882	276

貯水量과 貯水地

	個 所	貯 水 量
農 協	6	837,985 t
郡	10	872,793 t
計	16	1,710,778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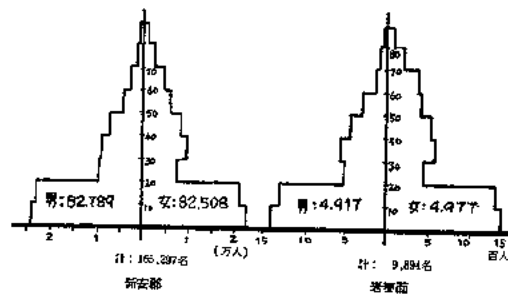


圖 2. 人口 피라미트

구분	종류	면적	생산량	호수	소득액
●	굴	8ha		3	
■	해태	203a	101950	197	81560
●	합	15ha		1	
■	미역	110	40.4t	9	3,030
■	연초	40ha	120t	295	36,000
■	마늘	70ha	336t	714	3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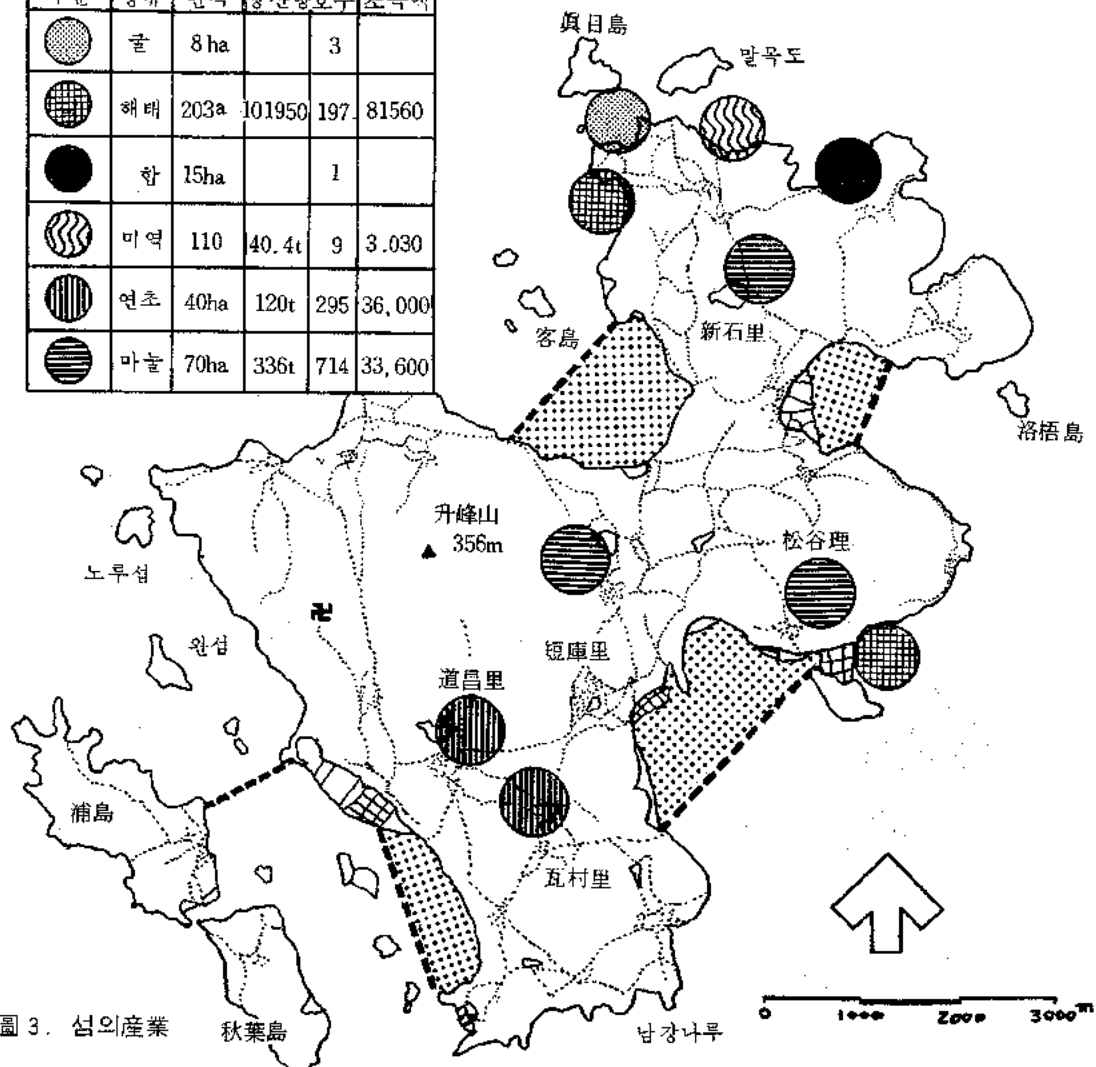


圖 3. 섬의産業

여름의 木浦 부둣가는 낯선 사람으로 술렁인다. 海路와 陸路의 종착역인 것이다. 여기서 南으로 濟州, 東으로는 釜山에 내왕하는 선편이 많다. 이 배에서 바닷물 보다 진하게 익다못해 번들 번들한 도시의 群像들이 울긋불긋한 점과 옷차림으로 줄을 잇는다.

그러나 西로 가는 黑山島와 岩泰의 뱃편은 하루 한 편 뿐이다. 이 배가 거르면 유달산에선 눈물이 과고 어디에 선가 노래로 번진다.

서울을 떠난 岩泰行 손은 港口 木浦에서 일박을 한다. 선창가에 줄이은 酒幕의 細窄지뢰가 목구멍을 간질어 주면 木浦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불러야 흥겨웁다. 그러면 그 가락이 유달산에선 눈물이 되어 多島海로 흐른다.

나룻배가 다도해의 이섬 저섬들 기웃거리며 뿌리는 손은 두 세명, 많아야 고작 다섯 여섯명이다. 배를 내리는 표정없는 이들의 소쿠리속의 소박한 生必品은 목포 번두리 市場의 먼지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原色으로 다채로우나 타는 이의 솟구치는 짙 냄새 뿐이고 그런 색과는 인연이 멀다.

썰물일때는 허허 광야 같은 갯벌에 다드밋돌 크기의 점점다리가 보인다. 自然과 人間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어쩌다 밟아주는 사람의 채운을 위해 있는 징검다리는 허구한 時空을 갯벌의 작은 게가 연결음길 하며 지켜 본다.

圖 4-1 道島里의 里長宅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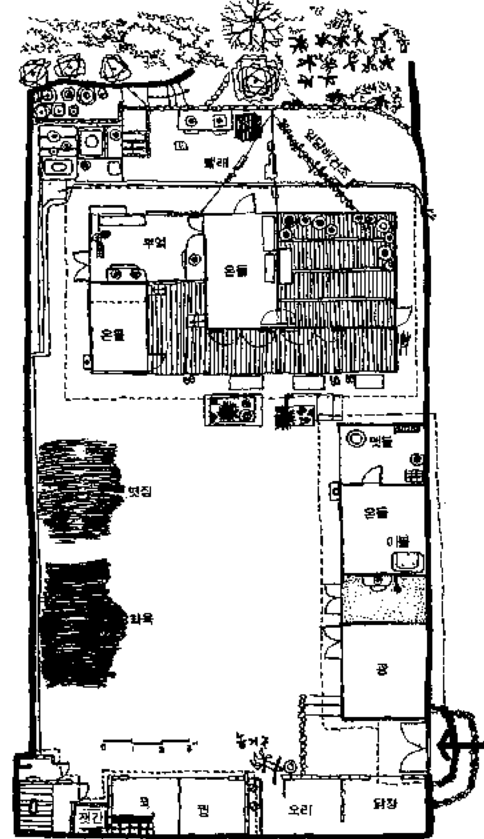


圖 4-2. 里長宅의 스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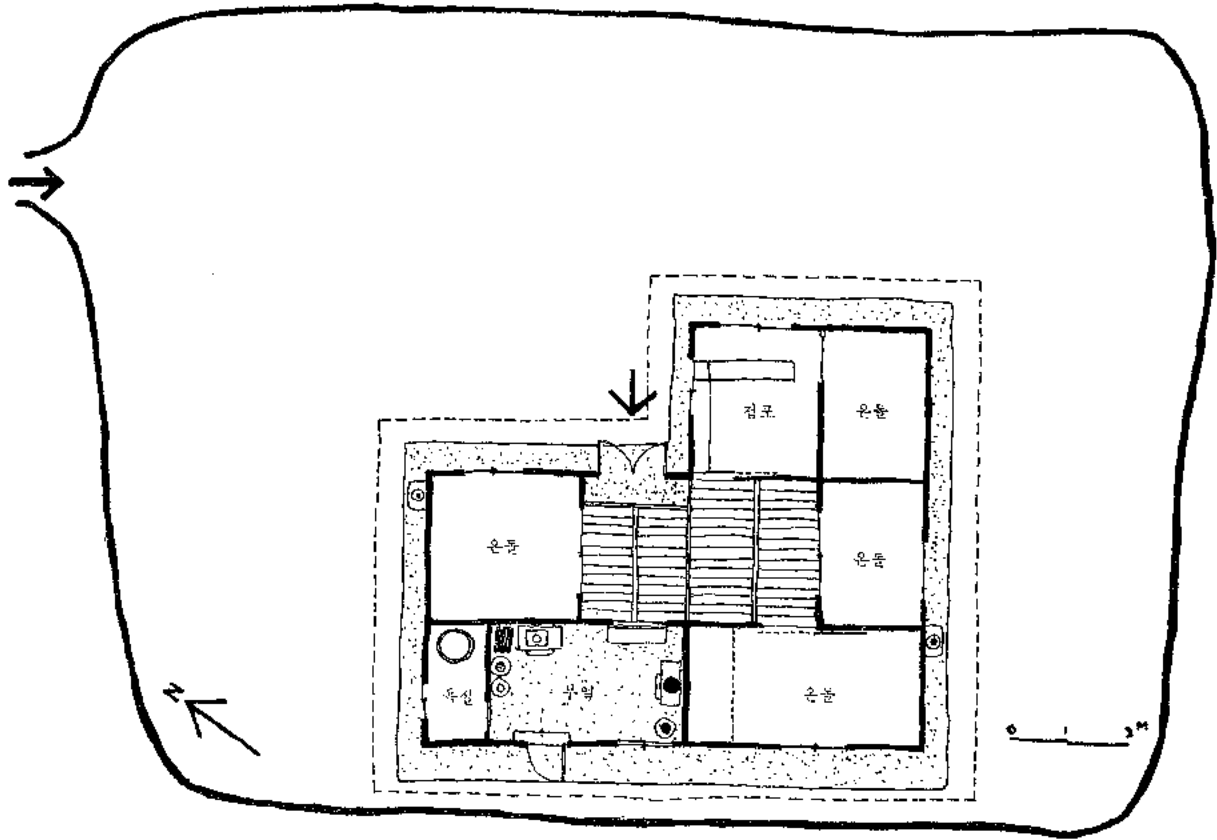


圖 5. 改良住宅의 例

나룻배가 거르면 유달산엔 눈물이 흐르고 갯펄은 다시
밀물에 잠겨 버린다. 그리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놀고 배
가 지나간다.

2. 섬의 과거와 현재

岩泰面은 岩泰島를 뜻한다. 암태는 2,200여의 도서로
되어있는 多島海 지역의 하나의 섬이다. 옛적에는 이곳
에 中國과 日本의 선박이 교역을 위한 출입이 빈번하였
다는 史記가 있다.

黃海와 접해있는 그 바닷물은 黃茶色에 투명도가 낮다.
또 水深은 얕으나 아침 안개는 길다.

이 섬은 고려시대에 嶺에 속해 있었으나 李朝 高宗 23
년에 州·府·郡·縣을 일제히 『郡』제도화할때 암태도
는 무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1897년 光武 2년 智島郡이
되고, 한일합병후인 1914년에 무안군으로 변경되었 다
가 1969년에 新安郡으로 分郡되어 지금에 이른다.

암태면은 有人島인 岩泰島를 비롯하여 草蘭島·秋葉島
浦島·唐沙島의 5개 島와 28개의 無人島에 의해 성립 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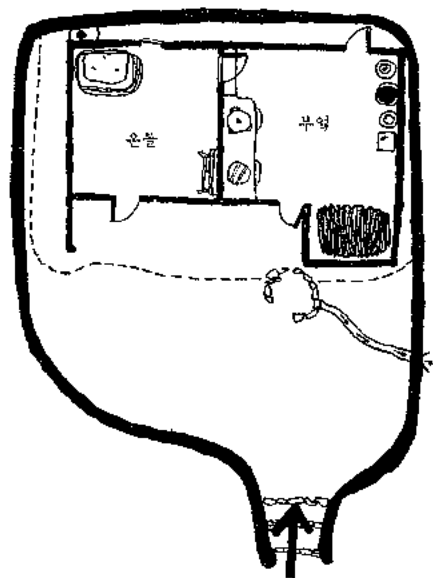


圖 6. 最少規模의 住宅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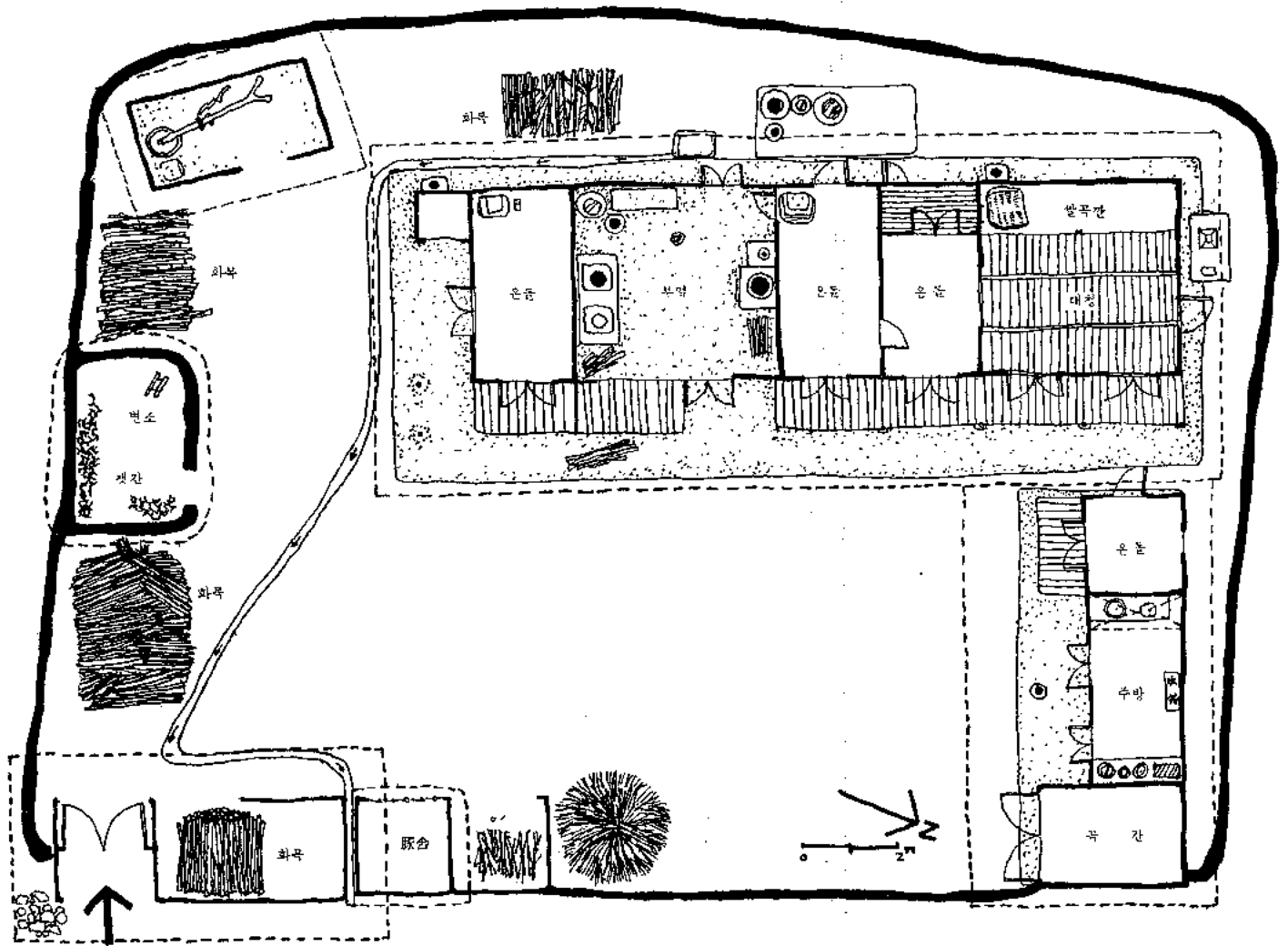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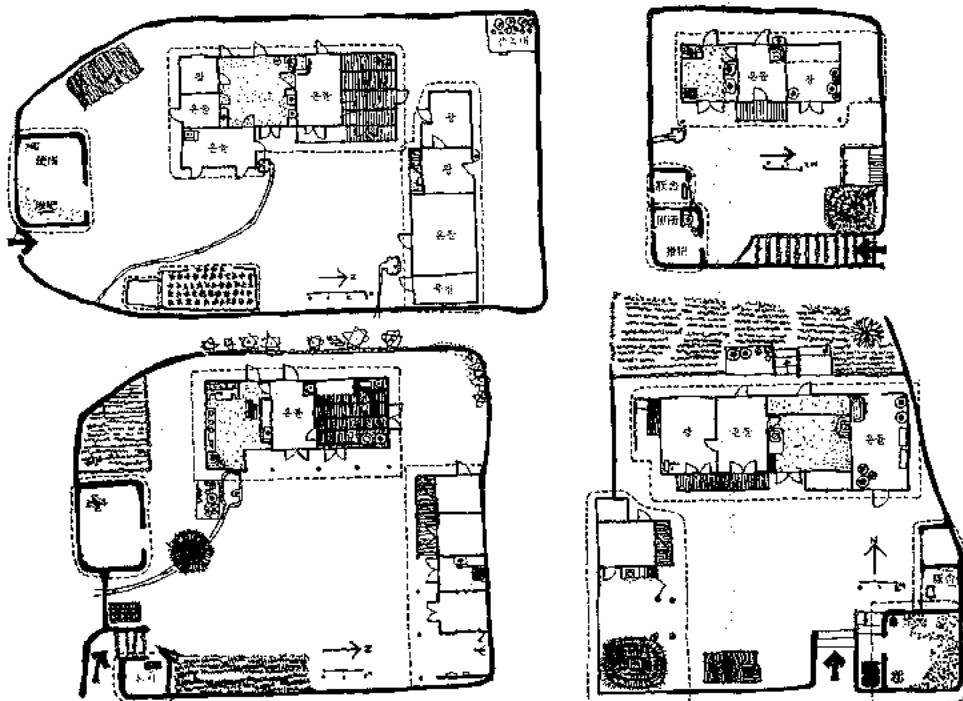


圖 7. 最大 規模의 住宅例

圖 9. 여러종류의 平面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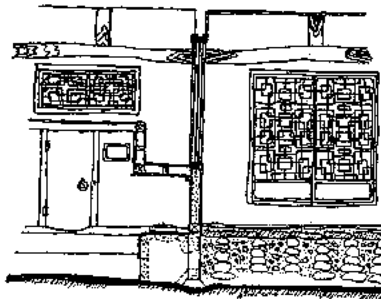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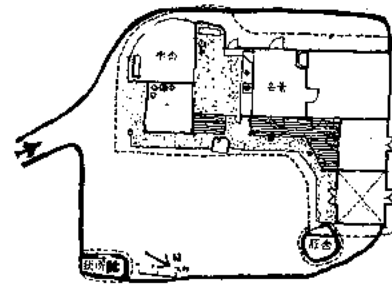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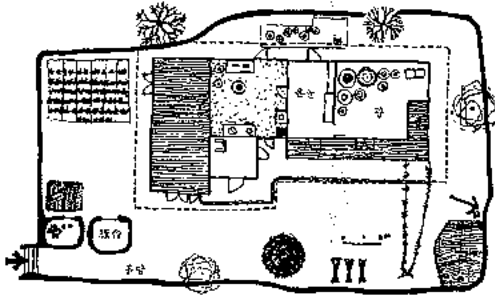


圖10. 취락의 기본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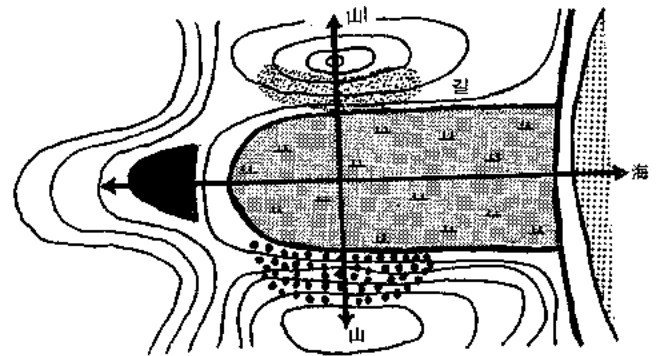


圖11. 도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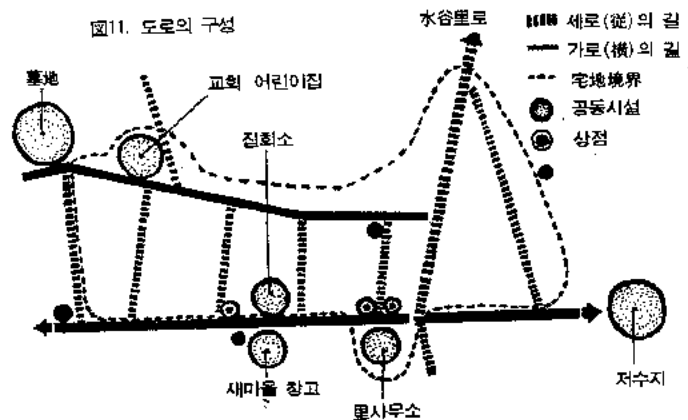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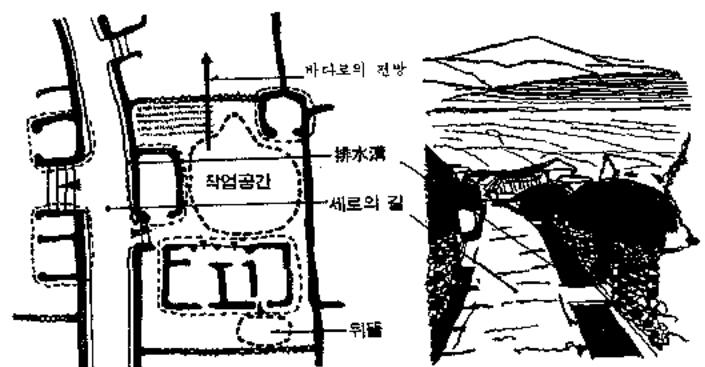


圖12. 도로와 宅地構成



암태도 자체도 新古里(島) 松谷里(島)의 큰섬과 기타 여러개의 작은 섬으로 묶여진 것이다. 이것을 記錄에서 찾을 수는 없었으나 地圖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면에는 32개의 자연 취락과 舊里로 19개리가 있었으나 지금의 행정 단위인 里는 9개로 되어있다. 이들의 총 면적은 39.54km²이다.

5개 有人島에는 9894명(表1)이 거주하고 그 대부분은 암태도에 살고 있다. 인구 피라미트에 의하면 20세를 고비로 현저한 인구 감소 현상이다. 어느 농어촌에서나 볼 수 있는 감소현상 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이 외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산업별 戶數에서 농가수가 1554호(表1)로 농가율은 91.7%에 달한다. 그중 專業別 농가율은 專業농가(表2)는 81.5%, 제1종 겸업 농가는 6.6%, 제2종 겸업은 12%이며 전업 농가가 많다.

수산업점 농가는 제1종과 제2종 겸업을 포함하여 60호로서 총 농가수의 3.9%이다. 多島海 섬의 실정으로서 수산업이 주 산업이 아니고 농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즉 60호의 어업은 섬 인구의 담배질 자급에 지나지 못한다.

기타 굴·해매 등의 해산물과 연초와 마늘등의 농작물의 수확이 있다. (圖3)

耕地面은 거의 간척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는 섬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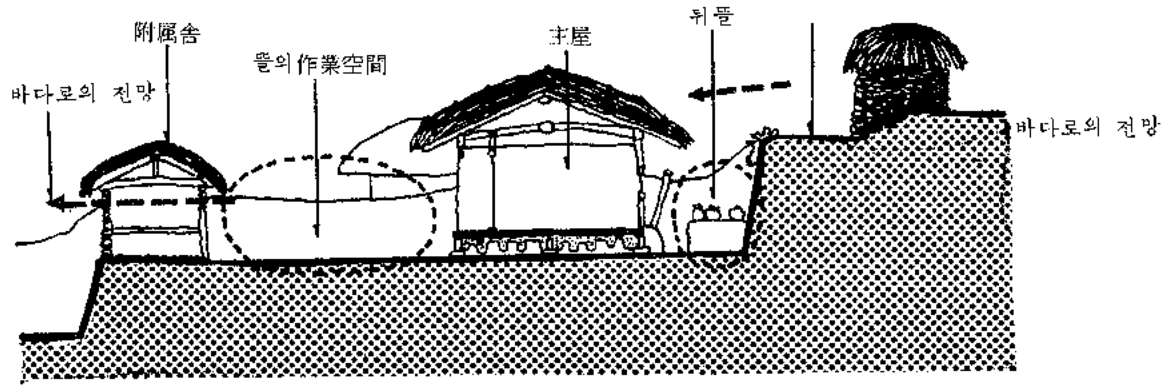


圖13. 도로와 택지의 縱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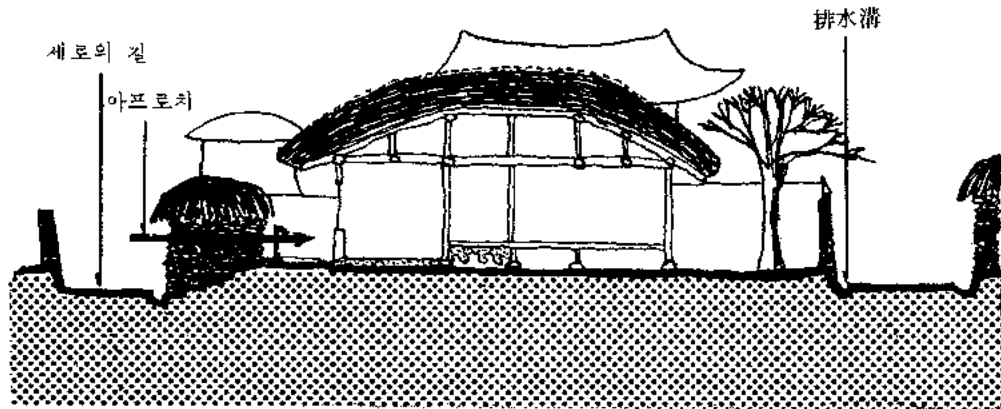


圖14. 도로와 택지의 橫断面

암태면의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그리고 煙草등이다. 기타 소채류, 감자류, 잡곡류, 豆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먹는 김치가 흔하지 않은것은 소채류를 섬전체의 소비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초재배는 근년에 시작 되었으나 그 質이 매우 좋다는 평이다.

축산(表3)으로서는 소·돼지·닭이 주가 된다. 소는 413호의 농가에서 기르고 있고 그 수는 433두이므로 1호당 약 1두가 된다. 돼지는 882호에서 1022두를, 그리고 닭은 276호로 전 농가의 약 20%가 기르는데 호당 15마리 정도이다.

3 섬의 생활환경기반

岩泰島의 上水는 우물(井)이 주가 된다. 물은 귀하여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가 16개소있다. 저수지는 관개용이지만 새탁, 가축이 물 마시는 곳, 어린이들의 물 놀이터로서도 쓰인다. 남시터로도 쓰이느냐라는 질문은 끝내던지지 못했다. 간이 급수시설이 있는 곳은 5개소이며 이들은 道昌里·基洞里·短庫里·中興里·活目里에 있다.

섬의 산은 岩山이고 가장 높은 山은 356m의 升峰山이다. 수목이 적고 水源의 涵養林으로서의 기능이 빈곤하다. 물에서 造林用 苗木을 보내출만한 곳이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석유 등의 생활이다. 약식 자가 밭전을 가진 집은 20여 호이다. (圖16)

공공시설인 국민학교가 3개교, 그리고 분교가 3개교 있다. 이들은 岩泰서쪽의 浦島와 秋葉島의 중간에 있고, 또 岩泰의 東北에 있는 草蘭島와 唐沙島에 각각 分校가 있다. 섬의 중심지가 되는 短庫里에는 中學校가 1개교 있다.

면사무소, 농협사무소, 우체국, 지서도 600년 된다는 短庫里에 있다. 기타 支署의 분소는 나룻배가 닿는 瓦村里의 남쪽에 있다. 새마을 운동의 농촌지도소가 1개소, 도서관은 국민학교에 부속되어 1개소 기타 무선 전화국의 분국이 하나 있다.

그리고 상업시설로서는 소매점이 93개, 그의 종업원 수는 108명으로 모두 개인 상점이다. 따라서 소매점 1개는 거의 100명의 도민을 커버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의 질은 극히 빈곤하다. 기타 농협의 매점이 1개소 있다. 기타 藥局 2개소 이발소 3개소가 있다.

암태면의 도로 상황은 郡道가 11.4km, 農路가 47.0km이며 어느 쪽이나 비포장이다. 섬 가운데의 교통은 자전차와 경운기 그리고 3대의 오토바이이다. 따라서 도로는 사람과 牛車가 주체로 되어있다.

내륙인 木浦市와 잇는 연락선은 하루 1회 岩泰의 남강나루에 닿는다. 이곳은 八禽島와의 나루터이기도 하다. 배는 부두에 직접 닿을 수가 없어서 작은 배가 왕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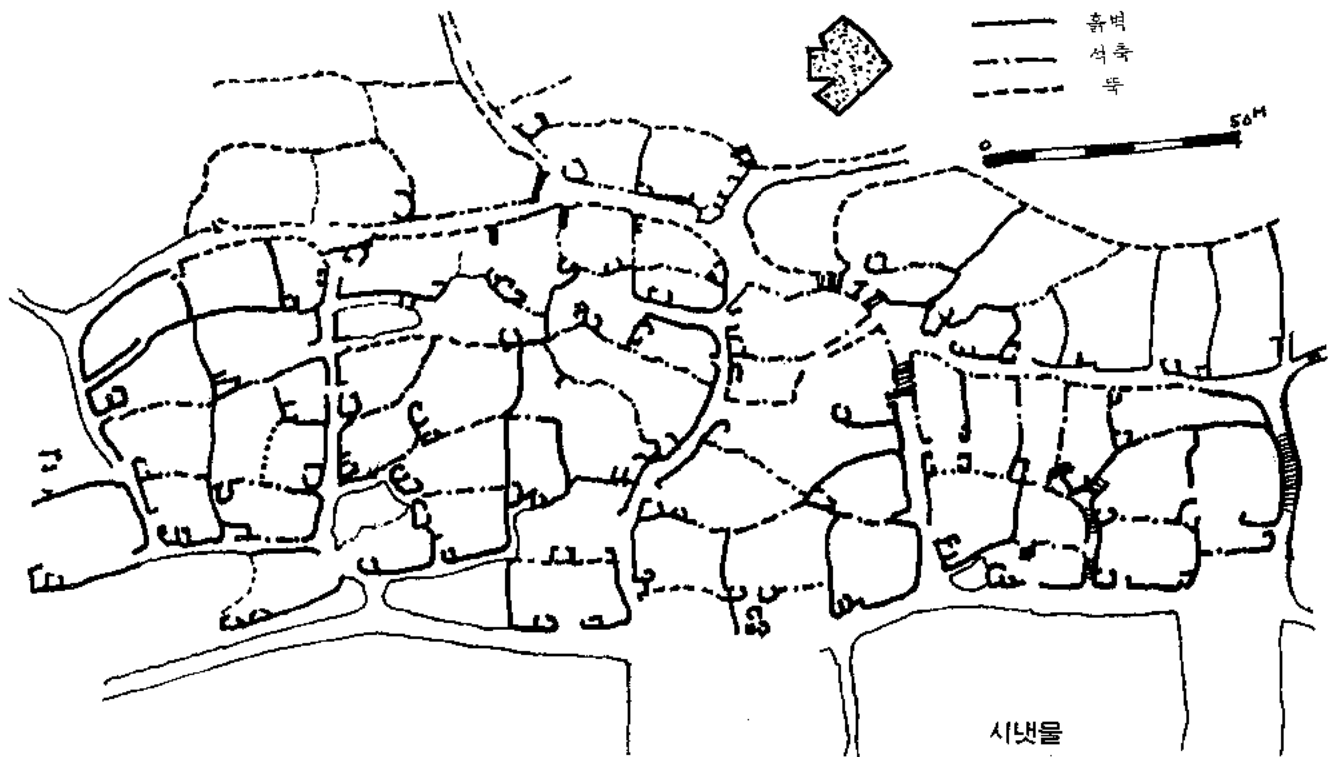


圖17. 담과 道路의 構成

이어 준다. 암태면의 다른 섬(秋葉島와 浦島)으로는 退潮 일때 道台를 따라 갈 수 있다. 道台란 사람이 통행 가능한 폭 60cm전후의 돌을 쌓은 길이다. 그러나 草蘭島와 唐沙島로는 배편을 이용해야 갈 수 있다.

암태도의 주민생활의 기반은 섬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생활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 한도에서 섬주민의 소박한 지혜와 기술의 활용에 의해 자원이용을 하는 자급 자족적인 생활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조용하였던 多島海의 섬의 일상생활에도 현대적인 도시생활의 조류가 조용히 숨어드는것도 간파 할수는 없다. 그것에는 전파를 탄 라디오와 TV가 크게 한 몫을 한다. 이 家電器는 배터리로 이용되고 있다. 또 黑山島와 紅島에 밀려드는 여름철 피서객의 수는 대단히 많다. 도민의 생활향상으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수지의 구축이다. 이것은 농업용수의 확보가 주목적이다. 그리고 조수로 간만의 차가 큰 갯펄의 해안선의간척제방 구축이다. 자금 부족으로 이 水谷里앞 갯펄의 간척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들려주던 분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바다는 아무 대답이 없다.

4. 道昌里의 환경

道昌里는 암태도의 남서에 위치한 錐峰(159m)에서 西北으로 벗어진 陵線(83m)의 취락이다. 우리가 조사한 1974년 여름 현재로 호수 151호중 농가수는 138호, 비농가수는 13호로 농가율 91.4%이다. 인구는 남자 441명 여자 475명 계 916 명이며 호당 평균 인원은 6.1명이다.

도창리의 경지면적은 논이 51.8정보, 밭이 60.2정보이며 그중 논은 2모작이 약 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논 중에서 43.6정보는 관개수리가 정비되어 있고 임야면적은 320.7정보이다. 호당 경작 경지 면적은 3단보 이하가 18호 3~5 단보가 17호, 5 단보~1정보가 55호, 1정보 이상이 50호로 5 단보~1정보 규모의 농가가 가장 많다. 따라서 호당 평균 경지규모는 8.1 단보이다. 이것은 내륙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보다는 약 1단보씩 적은 수이다. 소 27두가 농경을 도우고 그중 25두가 암소이다. 141두의 돼지는 138호의 道昌里 가구마다 고루 한마리 정도는 기르는 셈이다. 482마리의 닭은 거의가 놓아 기른다. 오리가 58마리 염소 16두에서는것도 짜낸다. 토끼 19마리는 식용이고, 꿩 4마리는 이색적이었다. 이상 여러종류의 가축들이 이마를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에서 보이듯이 道路는 等高線에 따라 가로(橫)의 길과 계단처럼 된 세로(縱)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창리는 평지와 이어지는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다. 가로의 길은 마을 뒤의 높은곳과 마을 앞의 낮은곳의 두줄이 병행으로 있다. 윗도로 주변에는 교회와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墓地가 면해있고, 낮은 곳의 도로 주변에는 마을의 집회소등 주요 시설과 점포가 있다. 택지로의 진입은 가로(橫)로 된 길에 면한 집을 제외하고는 세로(縱)로 된 길에서 들어 가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11을 보면 이 해가 빠른 것이다. 이 해지는 '담이나 석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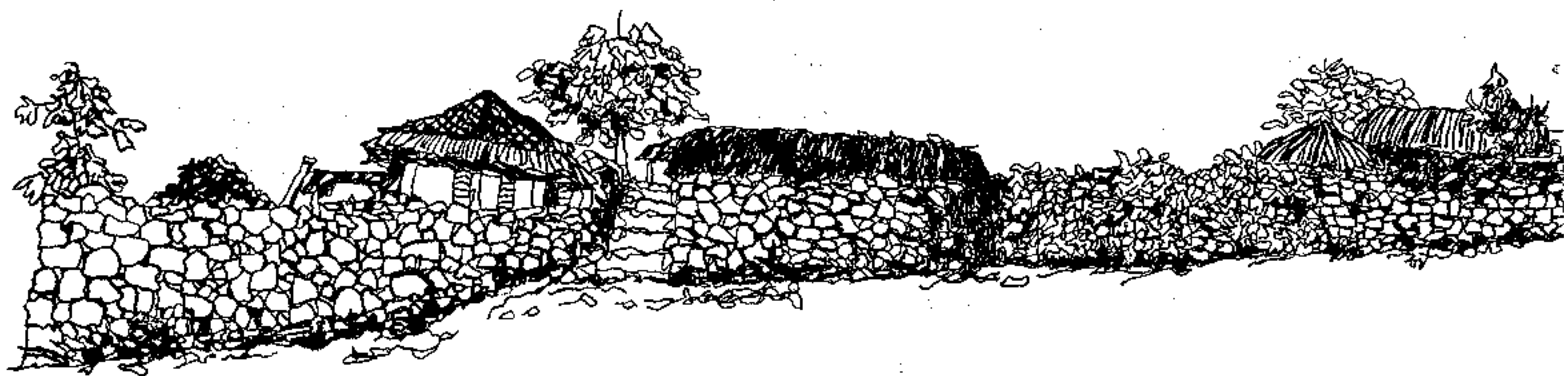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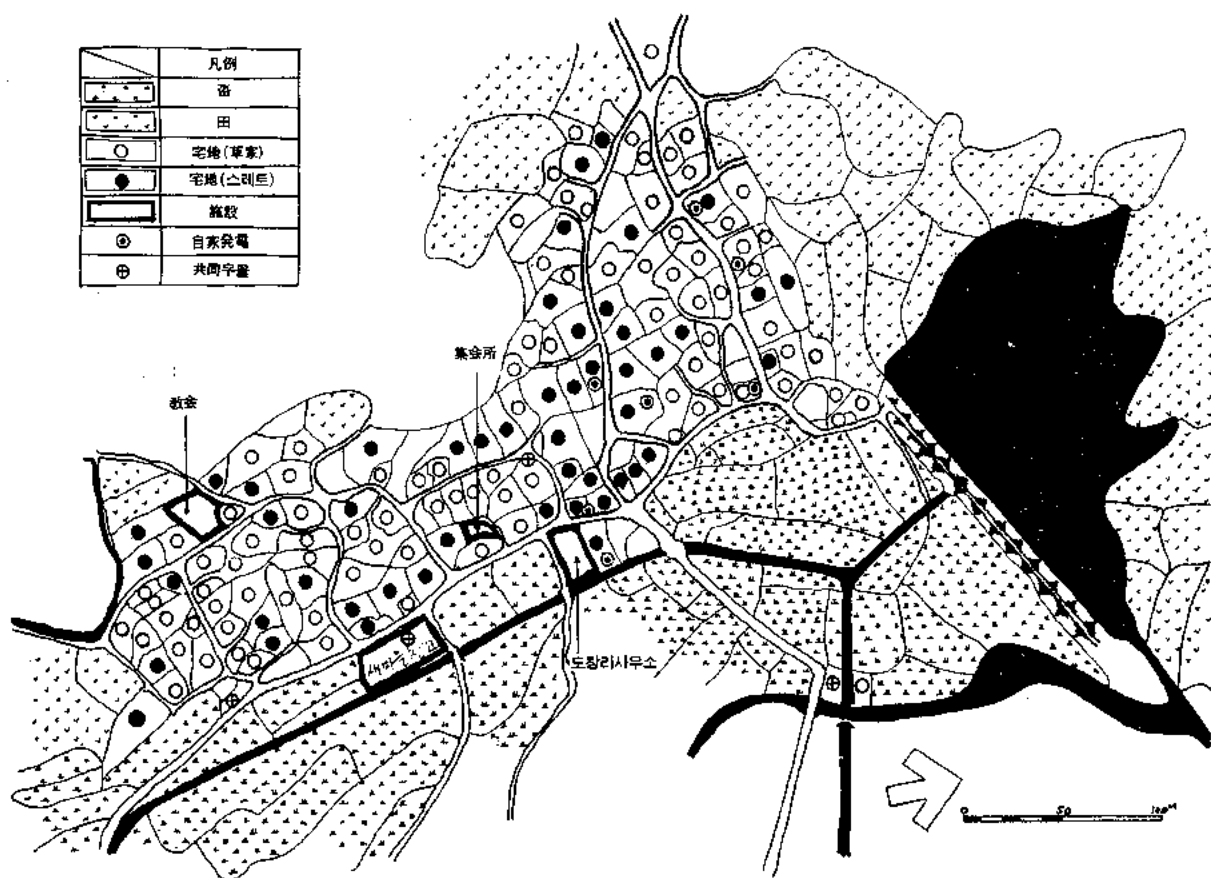


圖15. 道昌里의 돌담과 道路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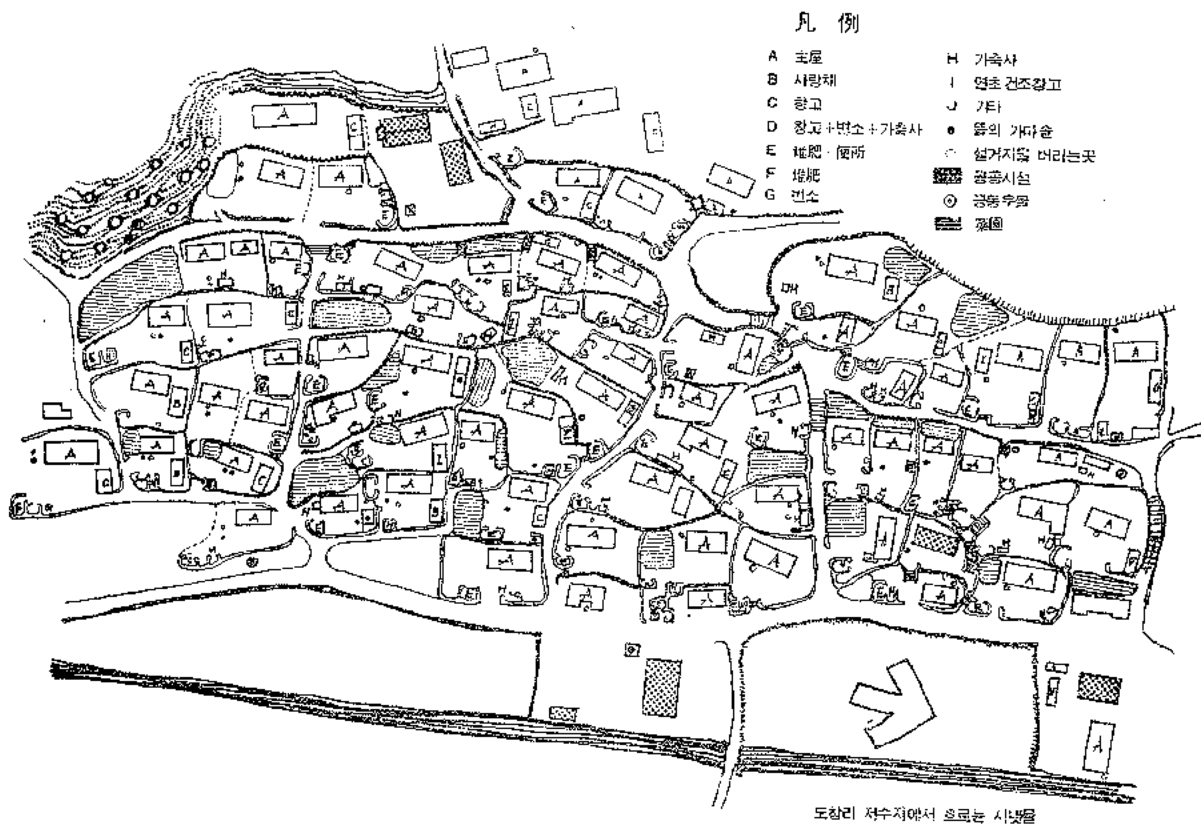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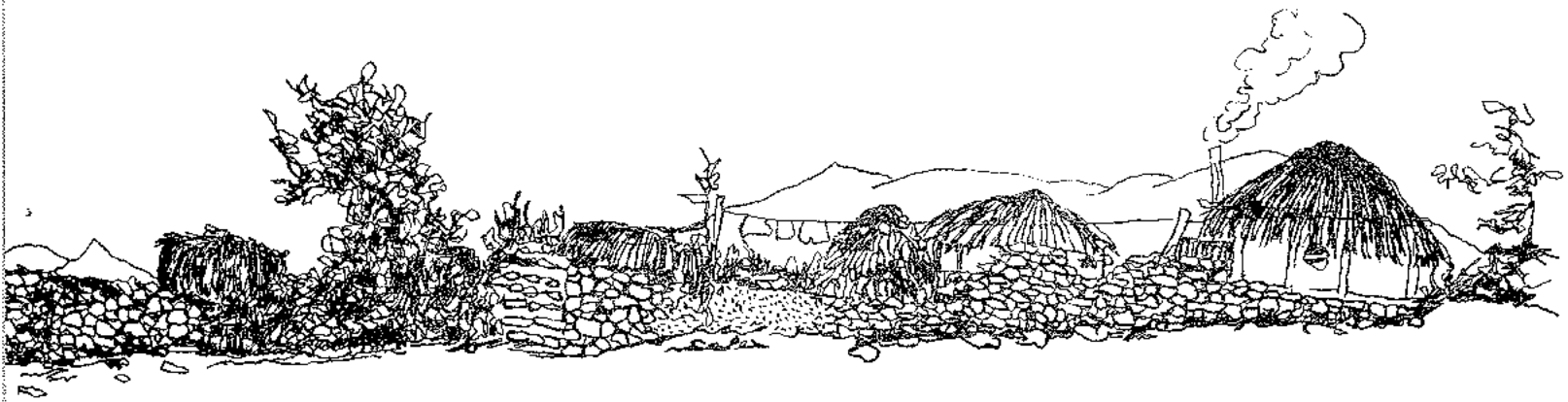


圖18. 도창리 중심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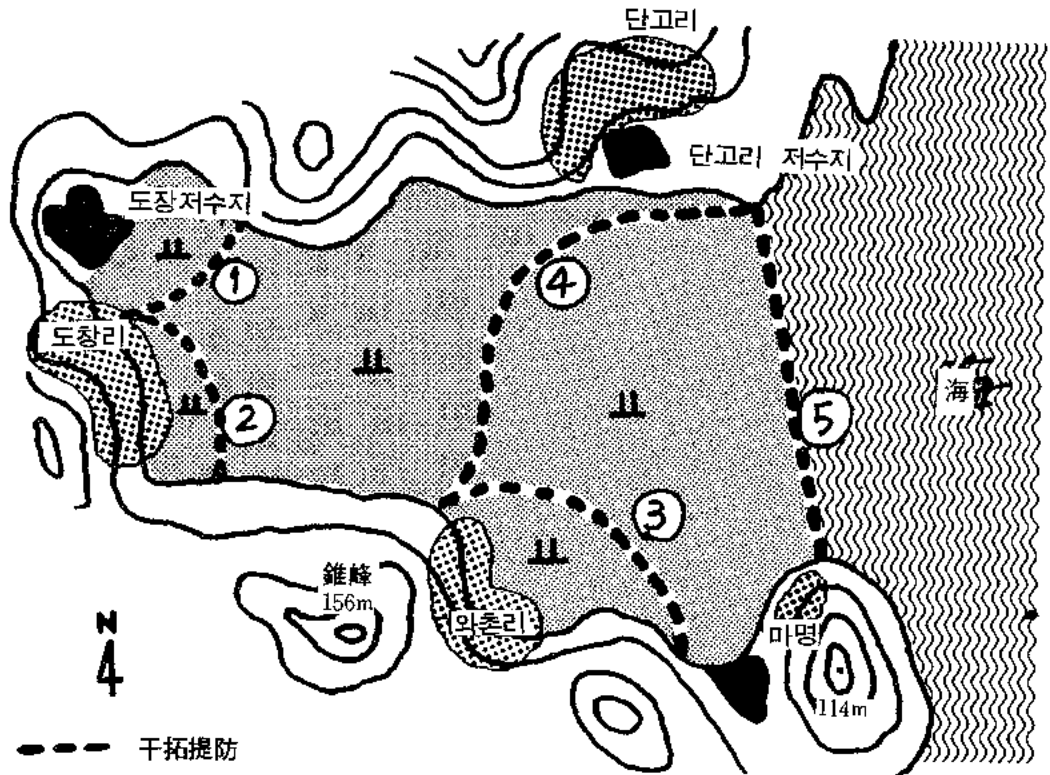


圖19. 干拓의 5段階

나누어져 있다. 宅地密度가 높으므로 흙담이나 석축은 부속사와 일체화된 예가 흔하다.

그림(18)은 도창리 중심부의 배치이고 부속사에는 퇴비간이나 변소가 함께있는 예가 대단히 많다. 뜰에는 菜園이 안채의 뒤, 또는 옆에 보인다. 이 뜰에는 간혹 우물이나, 솔을 걸어 둔것이 눈에 뜨인다.

그리고 도창리의 여러 型의 住宅正面은 (圖8, 9, 10)를 참고하기 바란다.

도창리 이장택에서 탁 트인 바다를 전망하면 우선 51.8 정보의 밭(舊)이 전개된다. 5 차례에 걸친 간척으로 이룬 이 玉畤는 마을의 생명선이다. 그림(19)에서 보는 5 회계의 방조제는 이미 일제때의 것, 1949년 이 제방의 붕괴에 의한 대 홍수는 도창리 바로 앞의 논에 까지 침수한 경험이 있다. 바닷물의 침수는 농사에 여러해의 피해를 준다. 동리 북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밭이 있다.

앞에서 언급 하였지만 마을 앞 남북으로 있는 길은 이 마을의 주요 도로이다. 여기에는 식료품, 잡화점, 里사무소, 새마을 창고, 정미소, 공동 우물등이 있다. 공동 우물은 이 마을에 4 개소가 있으나 간이 급수시설의 보급으로 지금은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다.

이 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는 북쪽 도창리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다. 여기가 빨래터이며 어린이들 물장난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 뒤의 가로(橫)이 길에는 敎會와 나

무에 둘러 쌓인 墓地가 보이는데 이 양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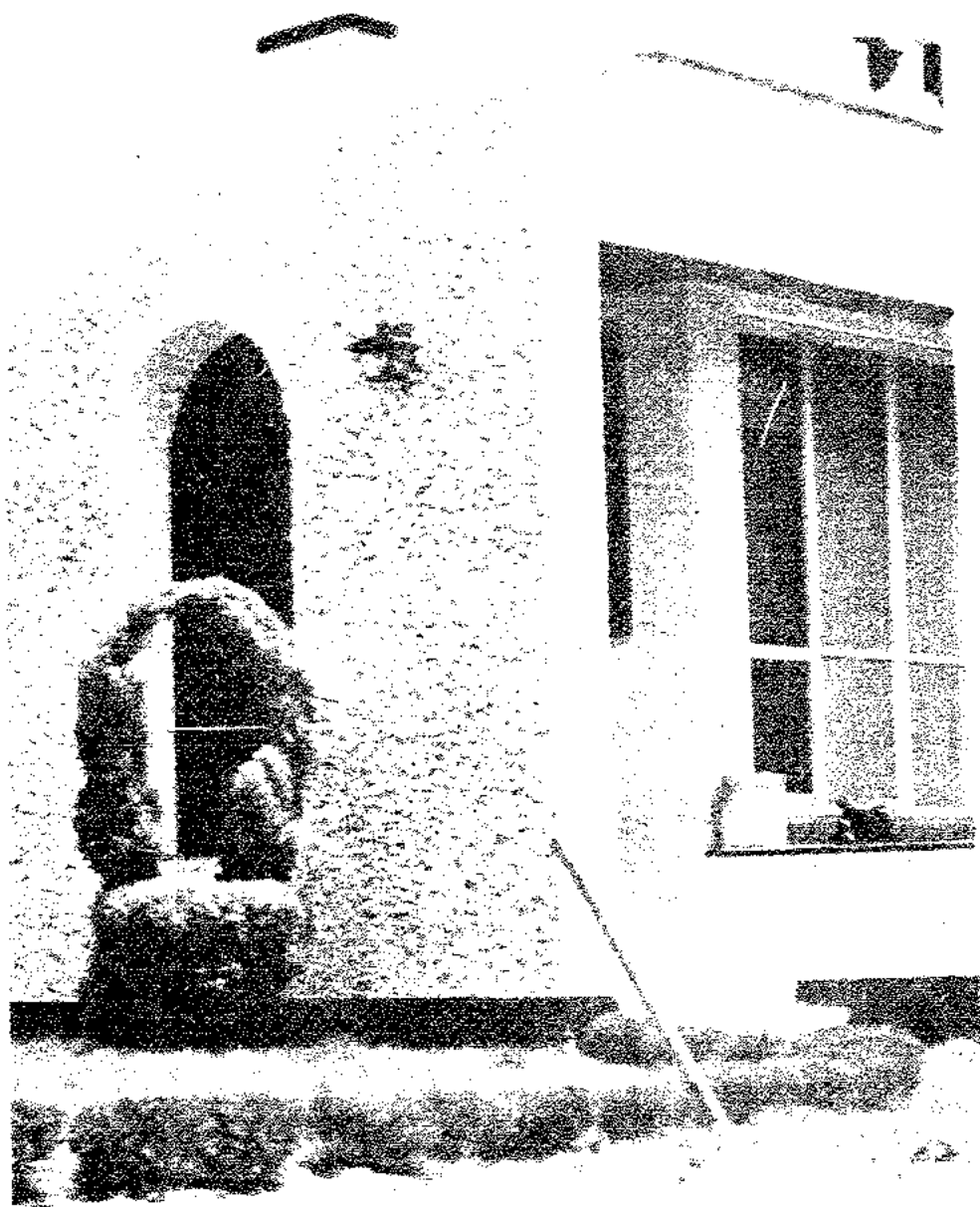
岩泰面에는 8개의 敎회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천주교 교회이다. 기독교인 614명, 천주교인 91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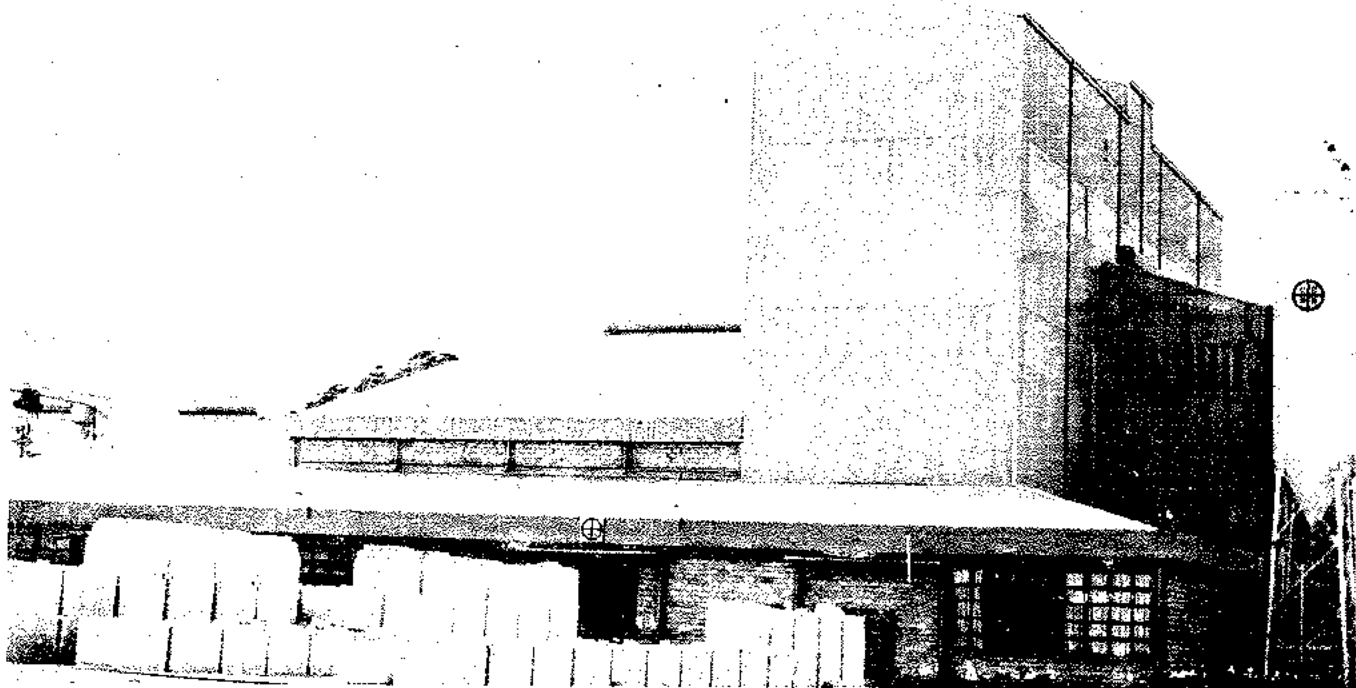
道昌里에서 서북에 있는 水谷里의 嶺山 높이 185m인 大峯山에는 靈滿寺가 있다. 좁다란 뜰을 가진 자그 만한 金堂과 두어 길나게 자리잡은 허름한 僧房의 이 절에 이르는 약 700m의 길은 대단히 험하다. 절 뜰에는 맑은샘이 큰 바위틈에서 솟는데 이 幽玄의 산중에는 인적이 매우 드물다. 신도 91명이라고 스님이 답해준다. 이 절에서 浦島와 秩葉島는 不遠間 암파도에 陸續될 것임이 직감된다. 그리고 秩葉島의 西면에는 작은 海水浴場이 될수 있는 砂場이 있다. 水谷里 계곡에 흐르는 냇가엔 우리가 메를 지어 물장난을 친다. 앞에 있는 염전과 바다를 가리는 아람들이 느티나무 밑을 마을 집회장 구실을 하는데 그 옆에 세워진 여름의 새마을 회관은 오히려 한가롭기만 하다.

岩泰의 취락조사는 1974年 8月14日~20日까지 하였고 이 조사와 嶺 정리는 다음 사람들에 의하여었다.

鞠重興, 閔泳鎮, 楊東禾, 金成男, 金承濟, 廉亨民, 李在雨 그리고 李揆雲, 李應洙, 金孝式, 金楨洙, 李贊寧.

會員作品





공장전경

韓國高圧벽돌株式会社 서울工場

設計概要

設計：吳 雄 錫 (新潮建築研究所)

位置：京畿道 高陽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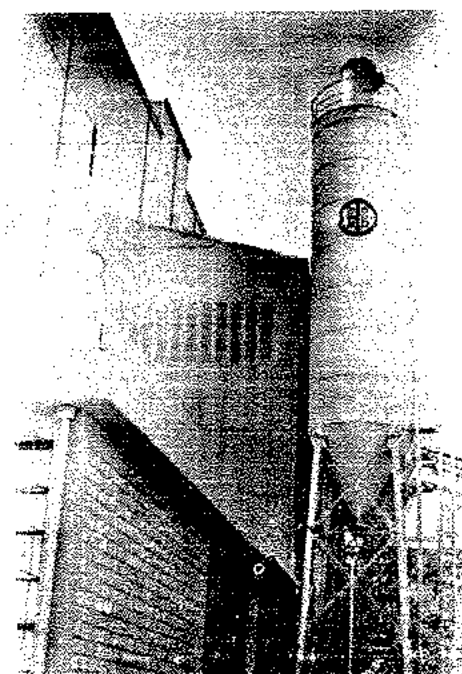
構造：鉄骨造, 스텔트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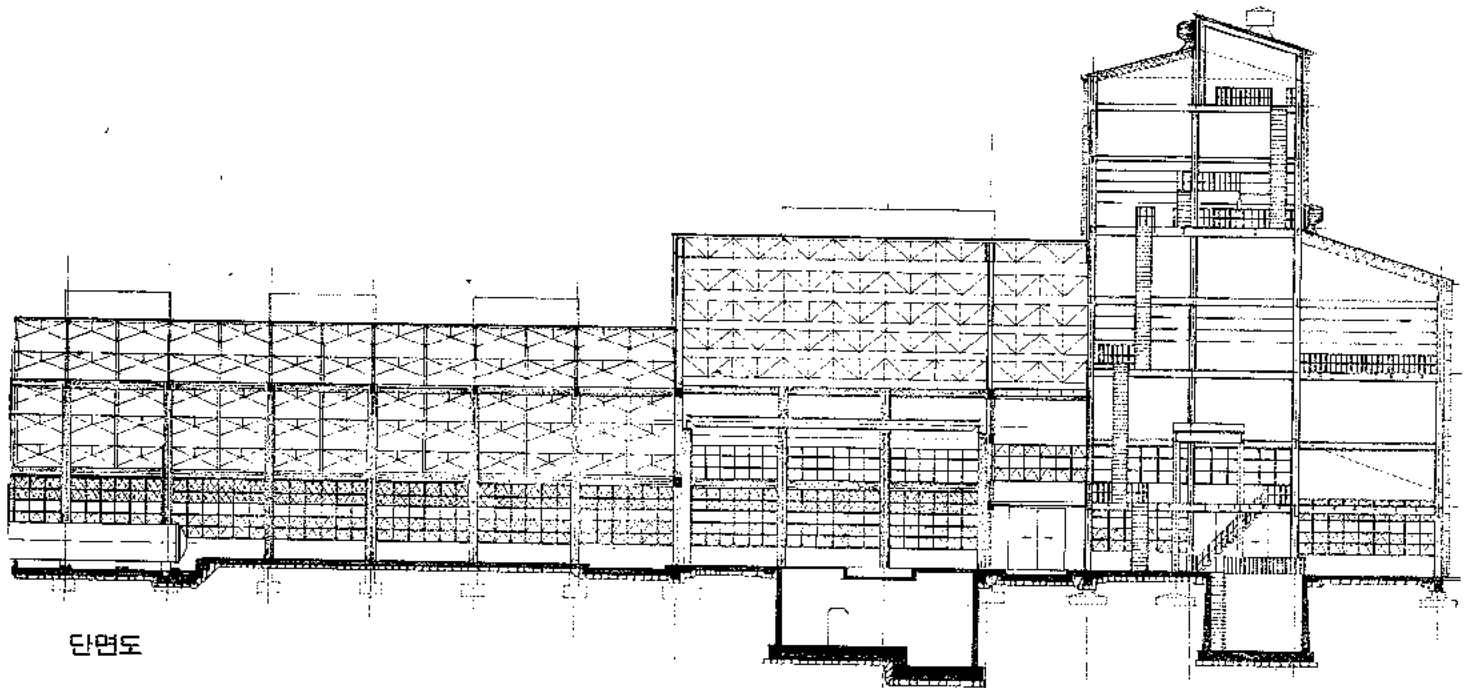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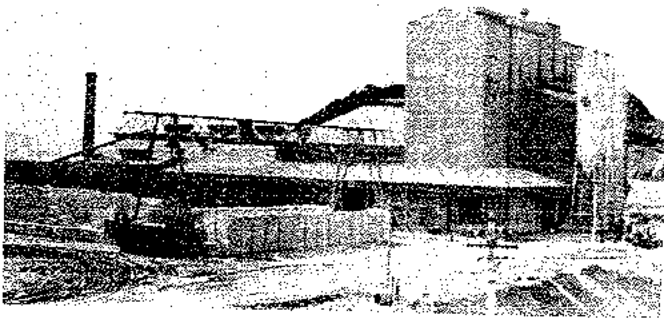
用途：고압석회 벽돌 공장

佔地面積：29,48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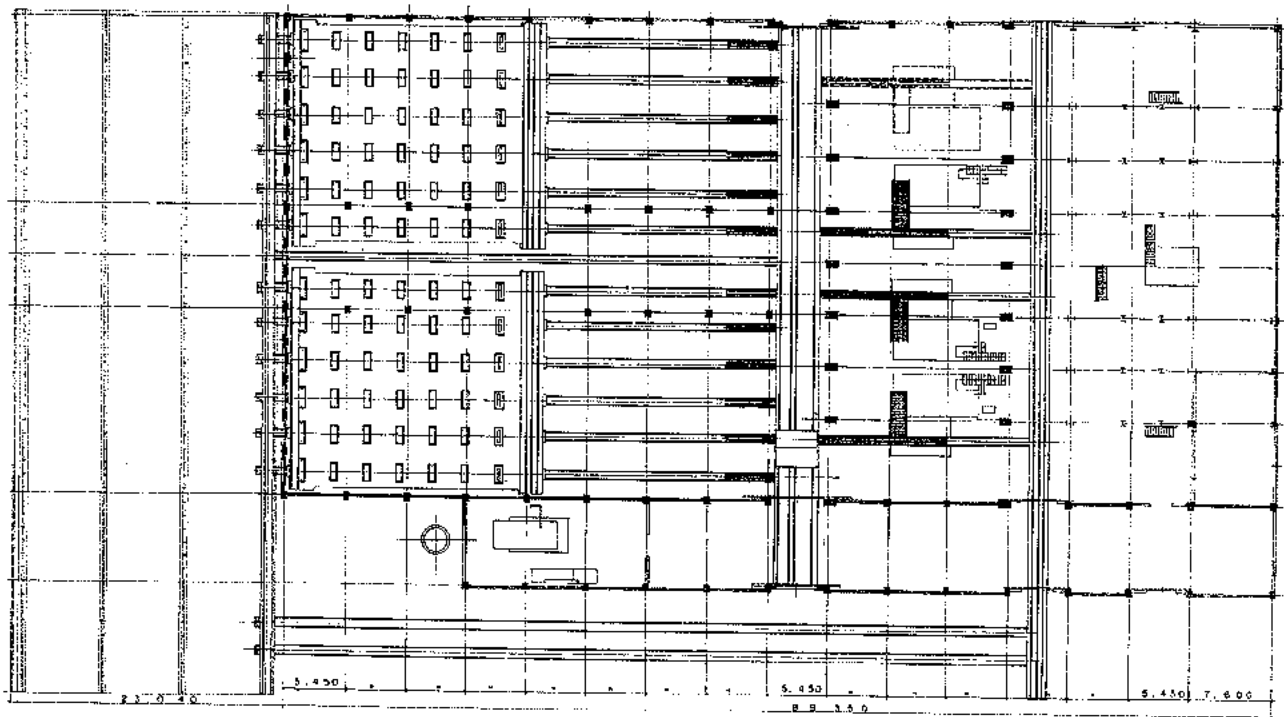
建築延面積：5,653m²

竣工日字：1976.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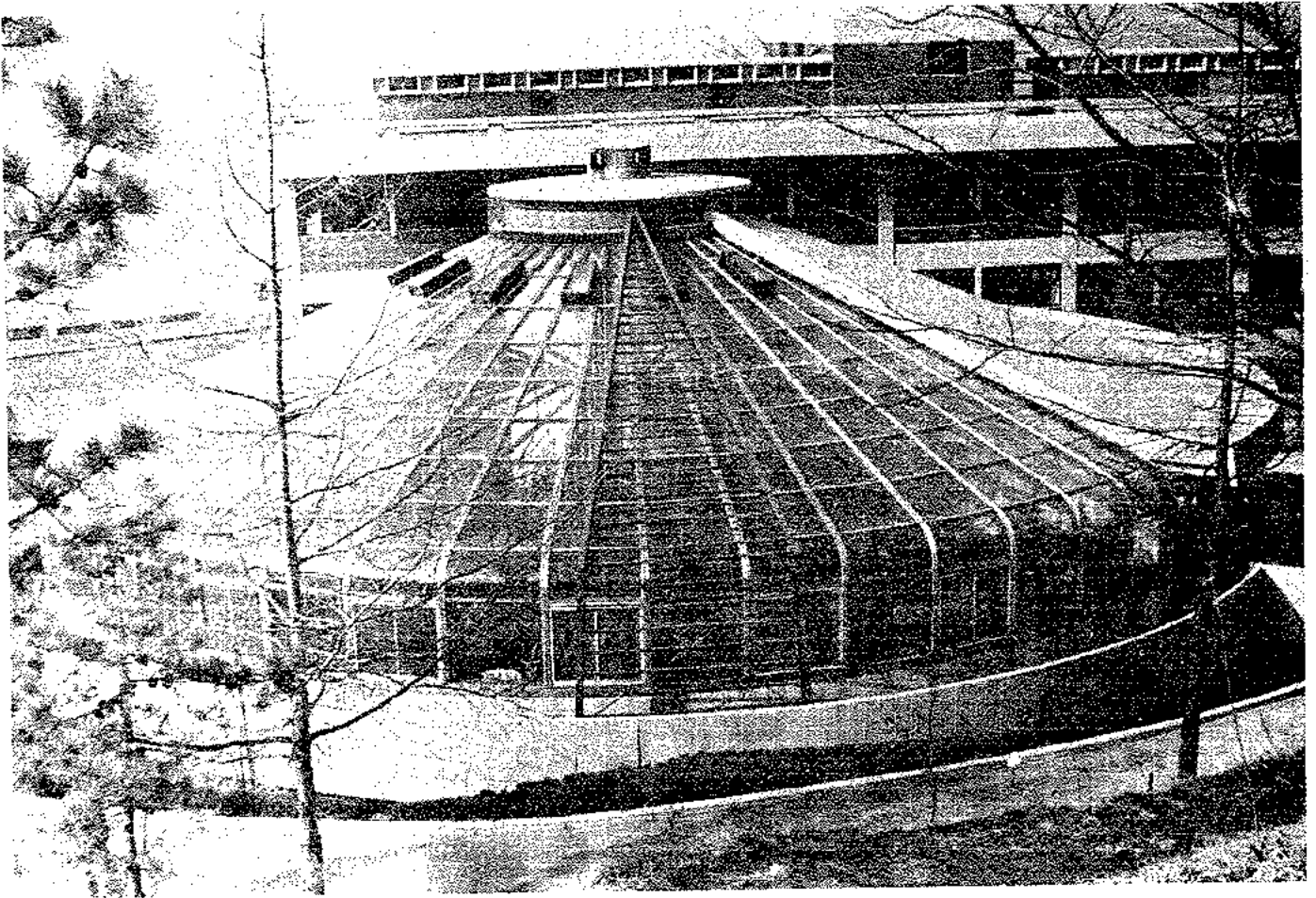




단면도



푸렛트홈 평면도



사육장 전경

서울대학교 溫室 및 動物飼育場

設計 尹太鉉 (品園建築)

設計概要

건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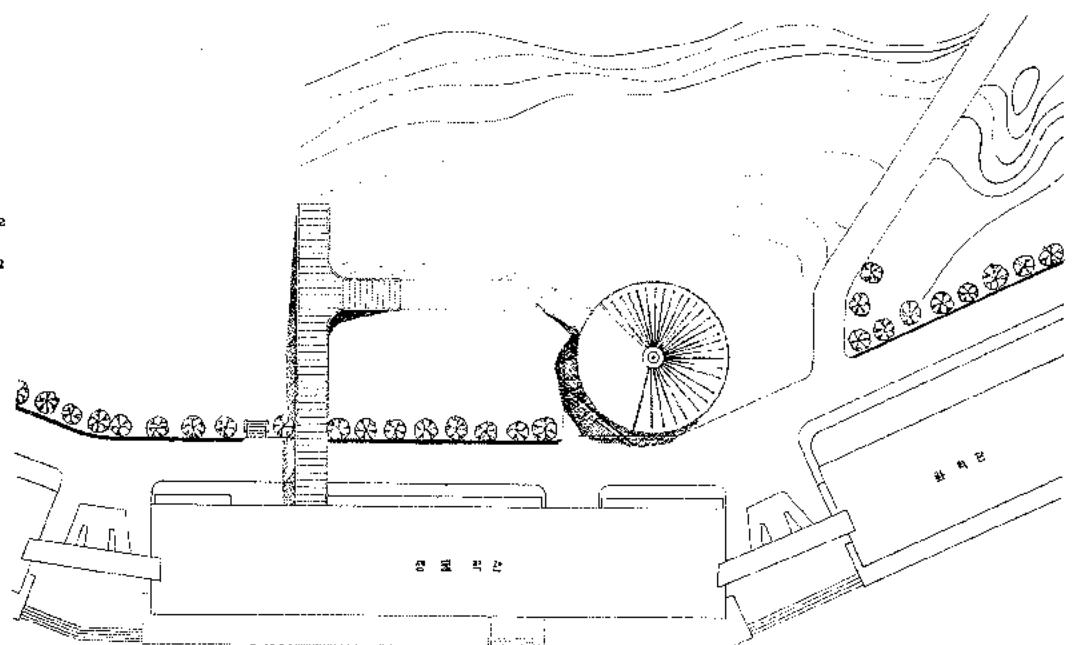
지 층: 161.81m²

1 층: 476.5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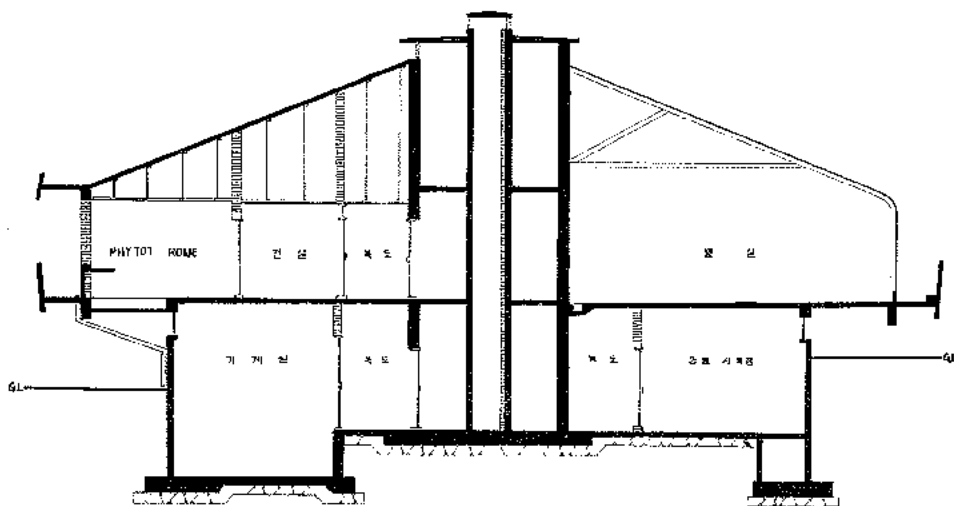
옥 층: 11.77m²

공유면적: 202.885m²

총연면적: 691.23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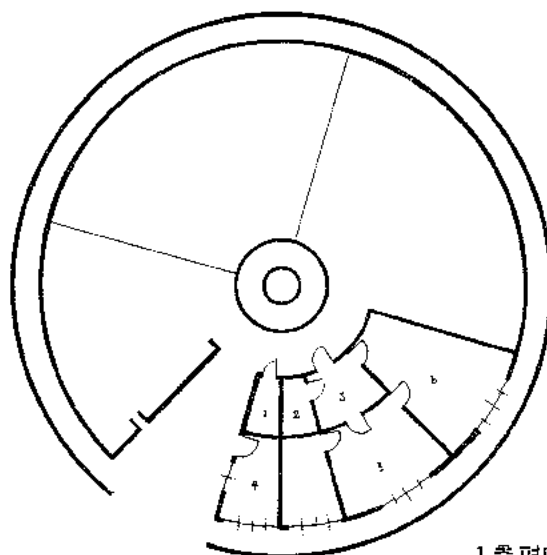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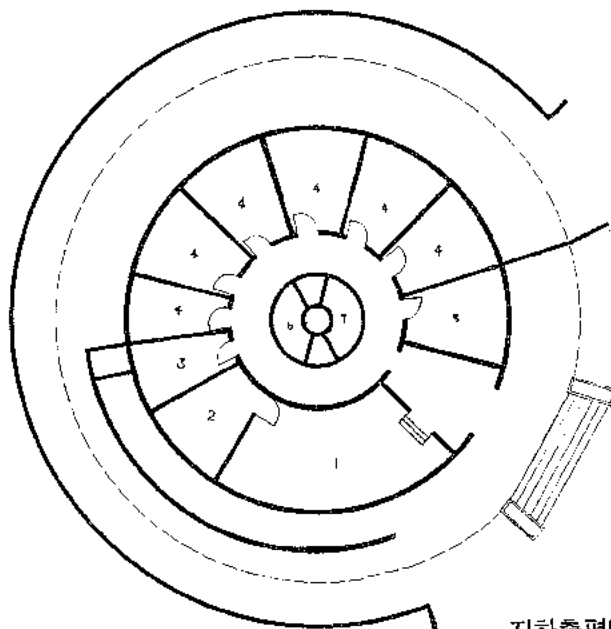
주단면도

1. 화 장 실
2. 사 위 실
3. 전 실
4. 관 리 실
5. PHYTOT RONE
6. 무균 처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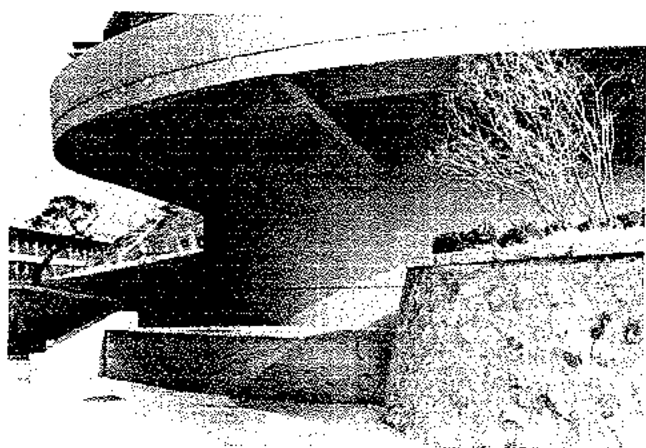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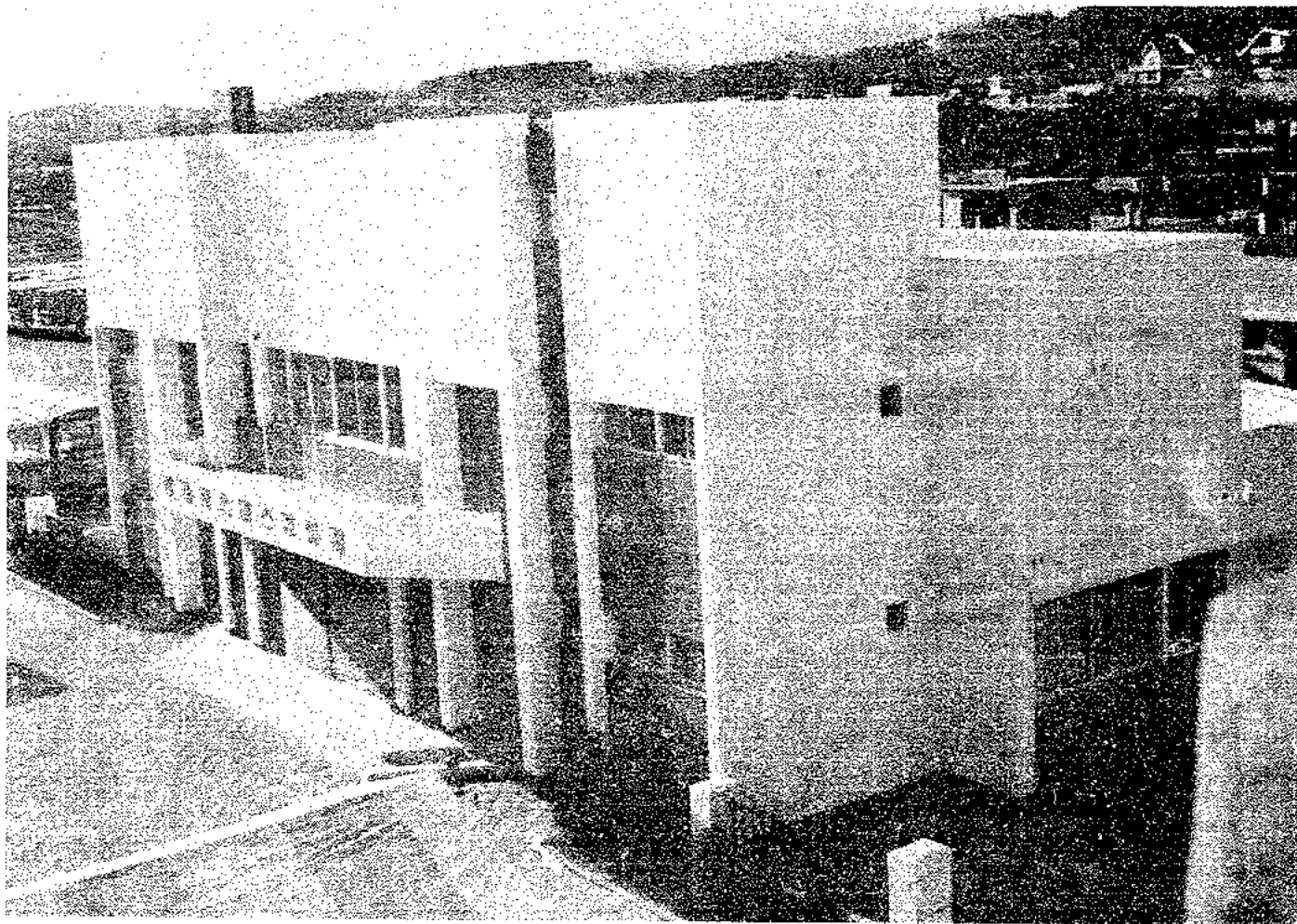
1. 기 계 실
2. 전 기 실
3. 세 칩 실
4. 동물사육장
5. 관 리 실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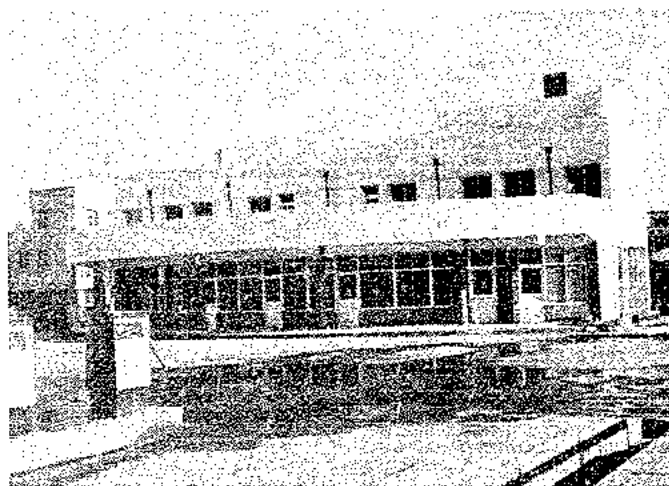


켄티레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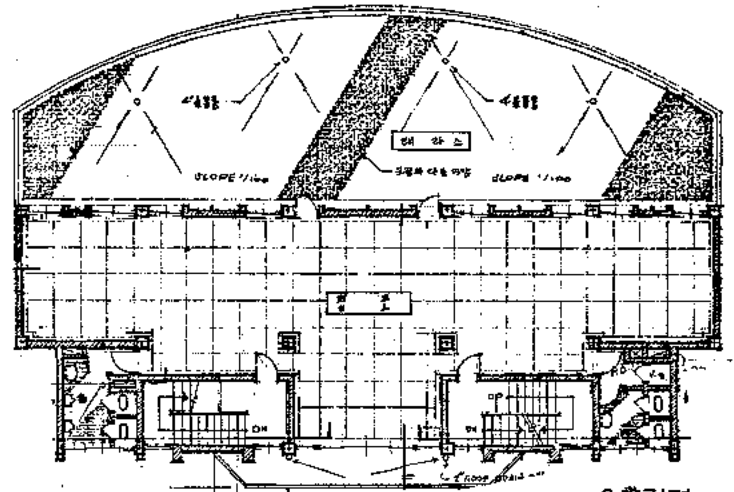
원주 · 강능 고속버스 터미널

설계 : 서천식 (삼일건축)



설계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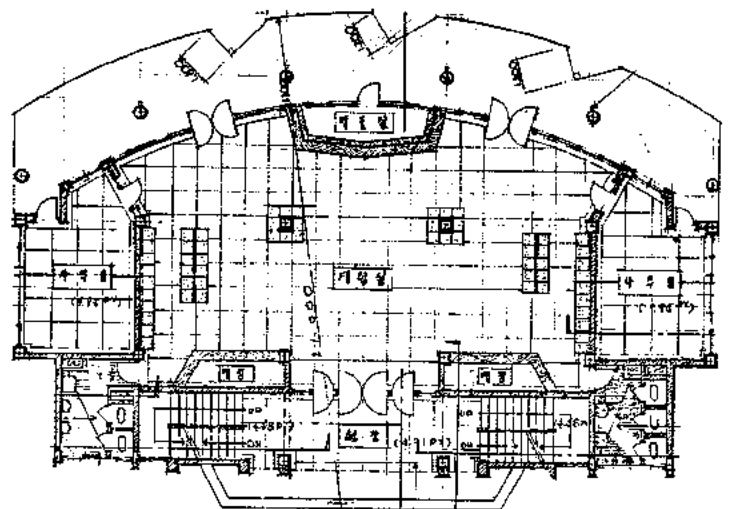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후 급속히 늘어난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된 본 건물은 건축주가 2인이면서 두 건축주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이하어 건설투자비·운영관리비 및 여건도 똑 같아야 했기 때문에 공공편적의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 커졌고 건물이 대지 중심선에서 좌우로 등가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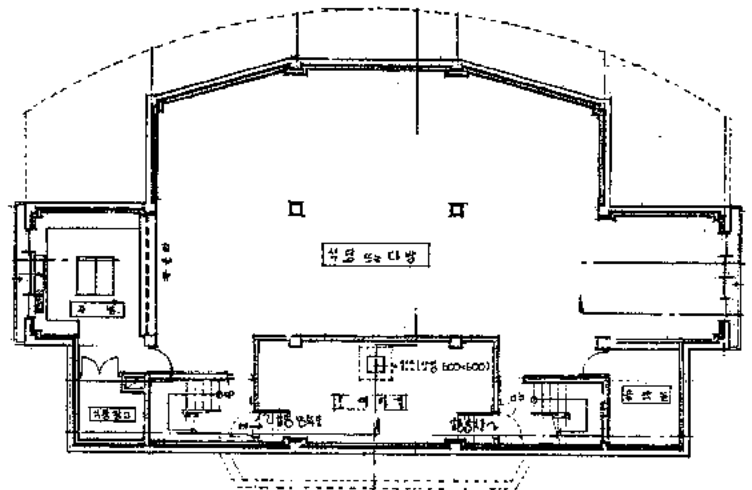
2층 평면

원주·강릉 고속버스터미널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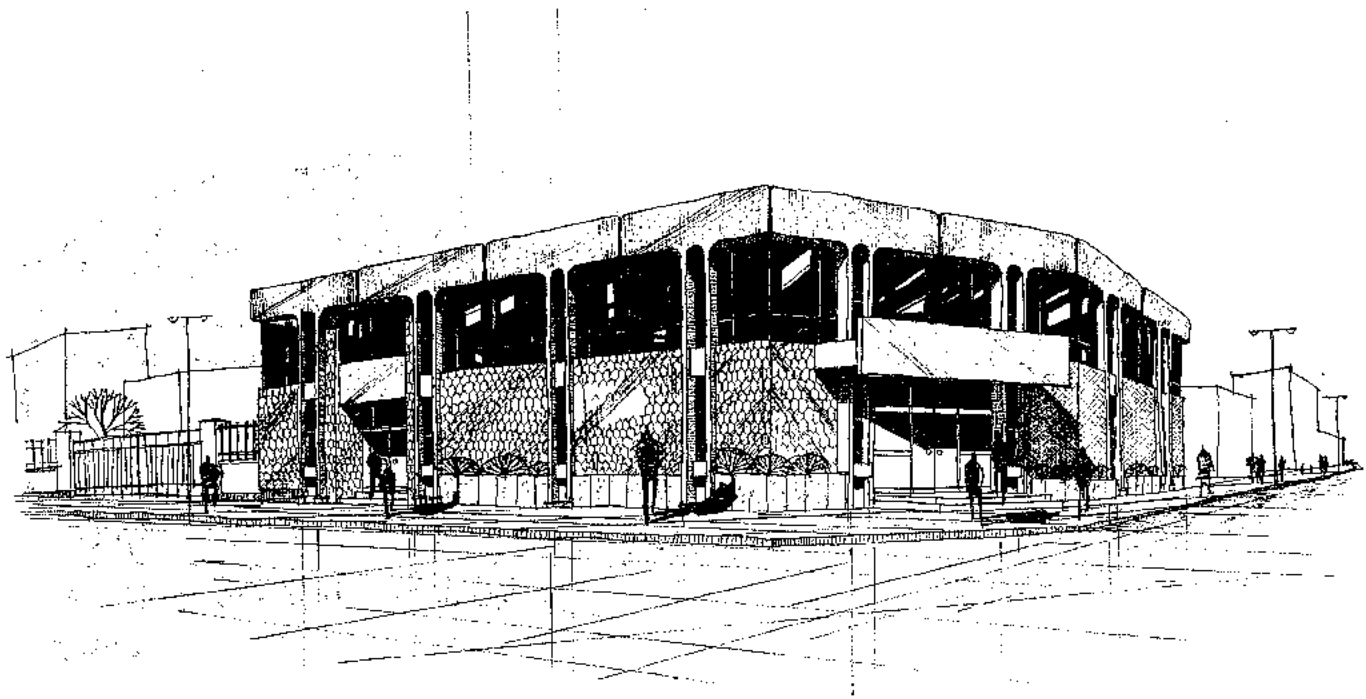
종 목		원 주	강 릉
위 치		원주시 우산동	강릉시 고동
대지면적		5,245m ²	30042m ²
건물면적			
A 동	지하층	72. ⁰⁰ m ²	294. ⁸⁵ m ²
	1 층	359. ⁹⁸ m ²	359. ³⁵ m ²
	2 층	222. ⁰⁰ m ²	222. ⁰⁰ m ²
	옥 탑	49. ⁴⁴ m ²	49. ⁴⁴ m ²
	소 계	702. ⁷⁹ m ²	925. ⁶⁴ m ²
B 동	1 층	82. ⁶⁸ m ²	82. ⁶⁸ m ²
연 면 적		785. ⁴⁷ m ²	1,008. ³² m 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부벽조	철근콘크리트조·부벽조
전 속 주		동부고속·중앙고속	중앙고속·동부고속
설계·감리		삼 일 건 축 서 천 식	
감 독		원호창·조후영	김남두·조후영
시 공 자		대 전 사	신 우 건 설
박 가		고속버스3대	고속버스3대



1층 평면



지하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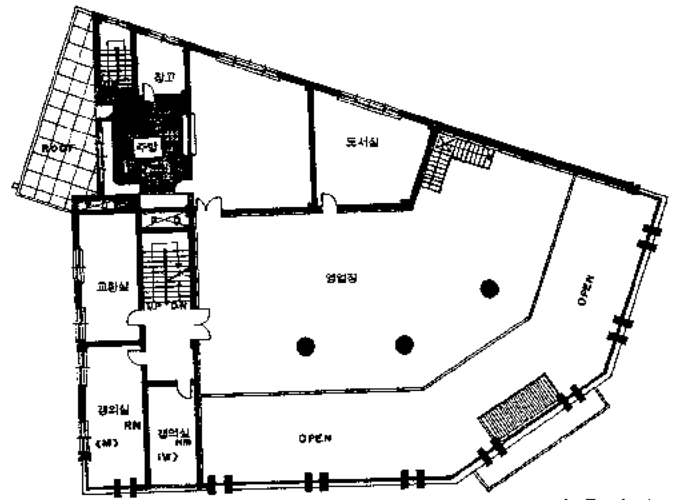
투시도

제일은행 응암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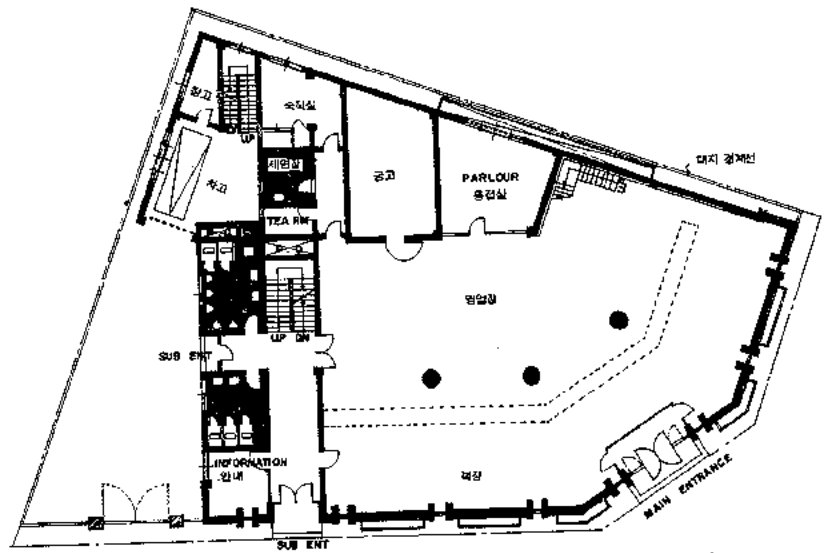
설 계 : 柳承根 (新建築綜合研究所)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로타리
 대지면적 : 892.65 m²
 건축면적 : 지하층 310.19 m²
 1 층 640.66 m²
 2 층 427.02 m²
 옥탑층 50.20 m²
 연면적 1,428.27 m²
 용 도 : 은행점포
 구 조 : 라멘조
 준 공 : 1976. 6. 8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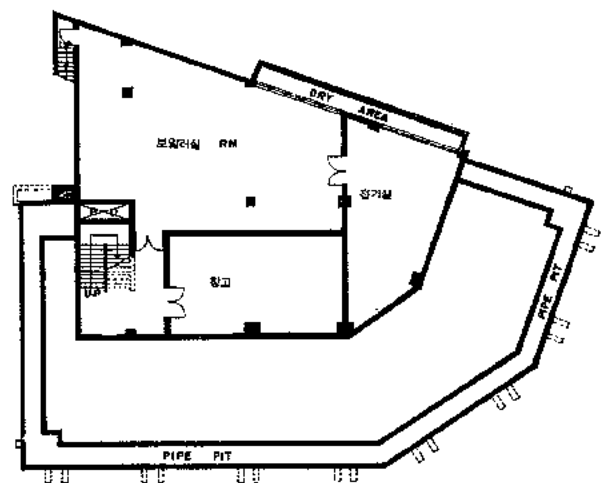
내돈을 맡기는 곳이 銀行店鋪이다.
 그러므로 心的으로 믿음성과 安全性이 特別 要求된
 다. 從來의 營業場・客場이 外部에서 全体査視되어
 온 開放的 不安全性에 反해 内部空間은 間接 採光
 을 利用한 內的空間의 威嚴性과 open space의 上・
 下・營業場, 고객 動線의 單純을 위한 Guest Hall
 System의 平面, 貯기둥과 貯蓄을 象徵하는 六角形
 의 花崗石 벽체로 内外部空間을 正確히 遮斷 安全
 性과 威嚴性을 表現한 外的環境의 特徵을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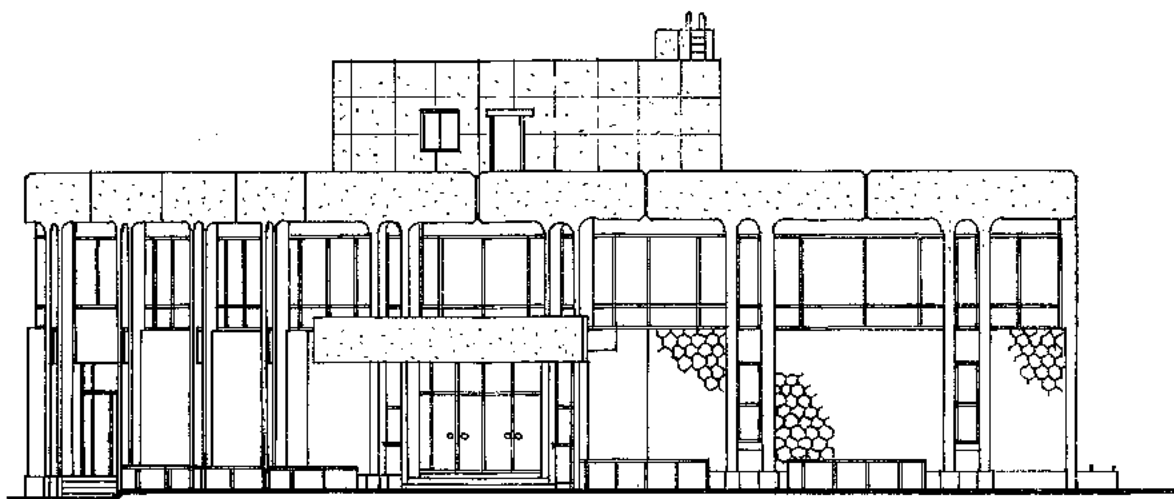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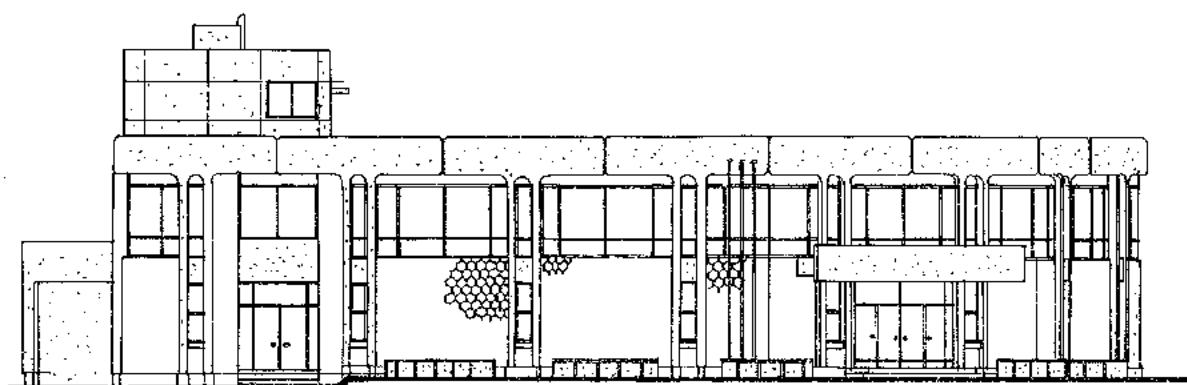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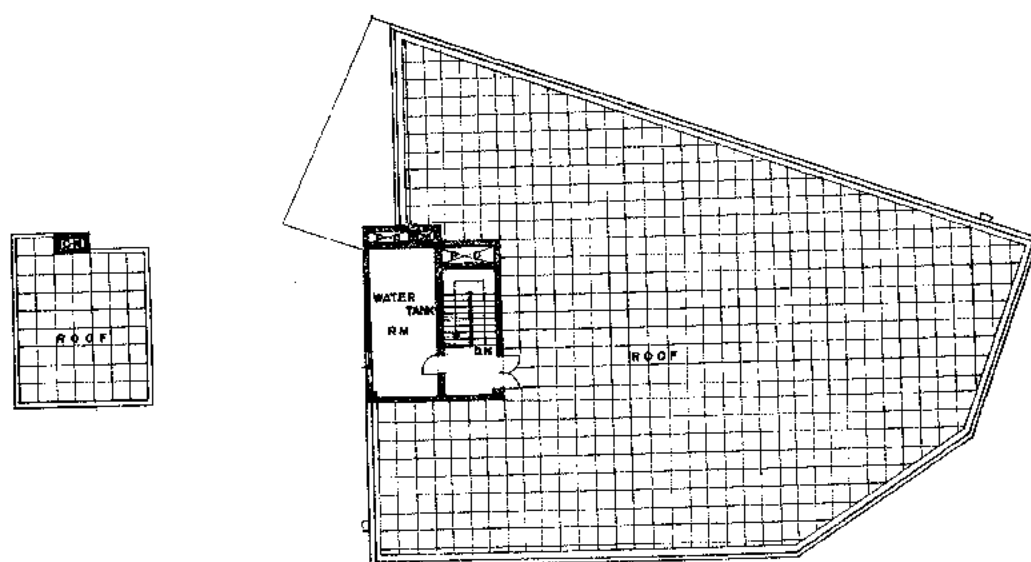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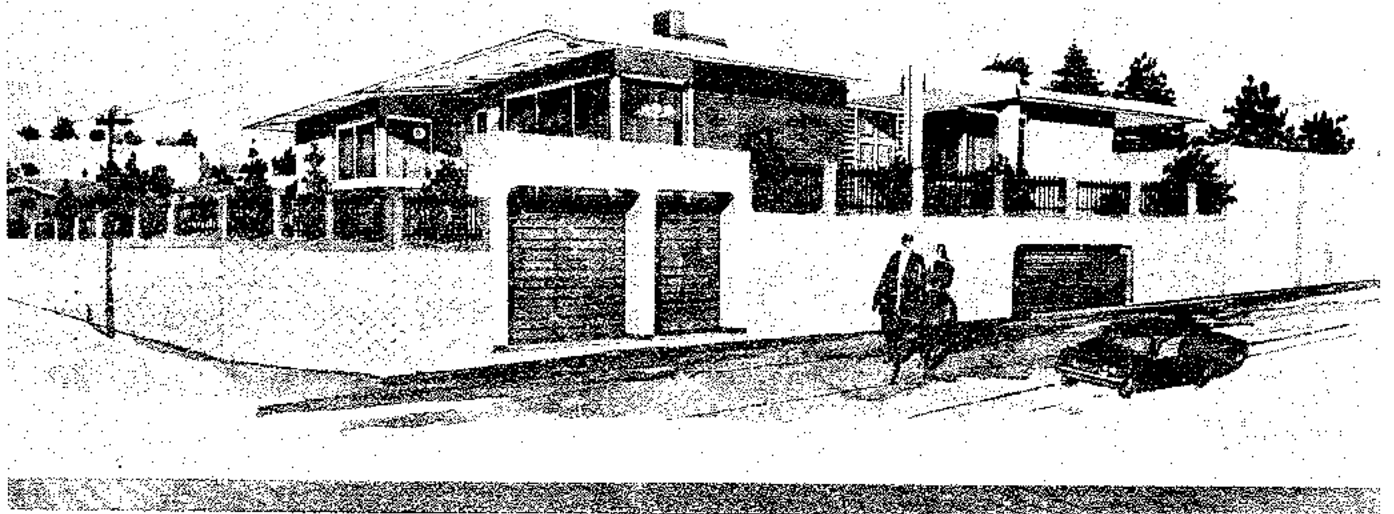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남측입면도



옥탑층



투시도

이 사장댁

설 계 : 이재규 (중앙건축연구소)

위 치 : 서울 종로 해화동 53-16

대지면적 : 279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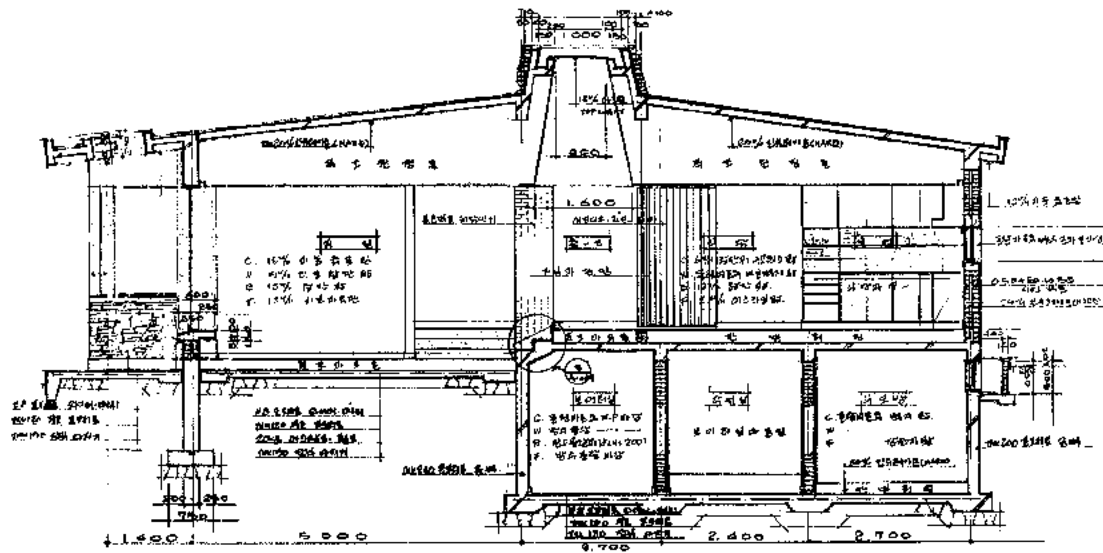
건 물 : 면적

1층 : 147. ²³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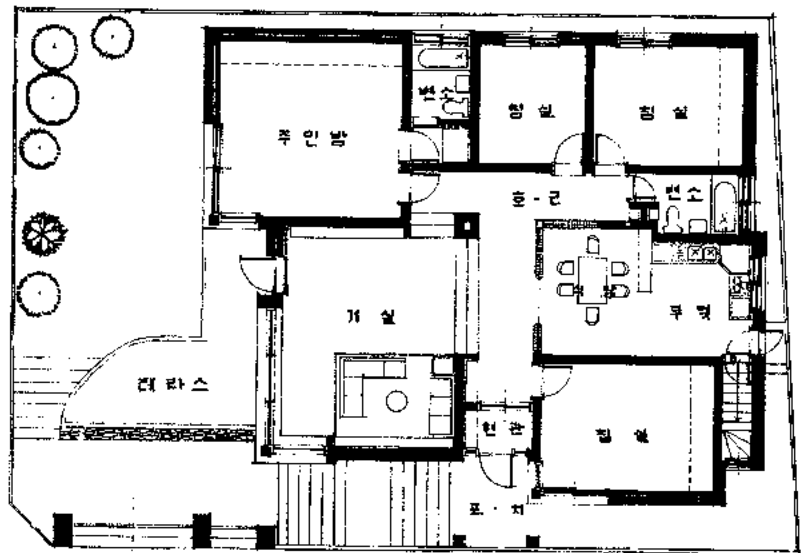
지하층 52. ¹²M²

계 : 199. ³⁵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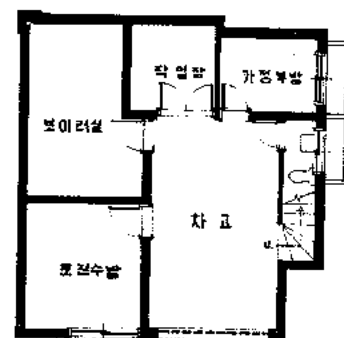
구조 : 연 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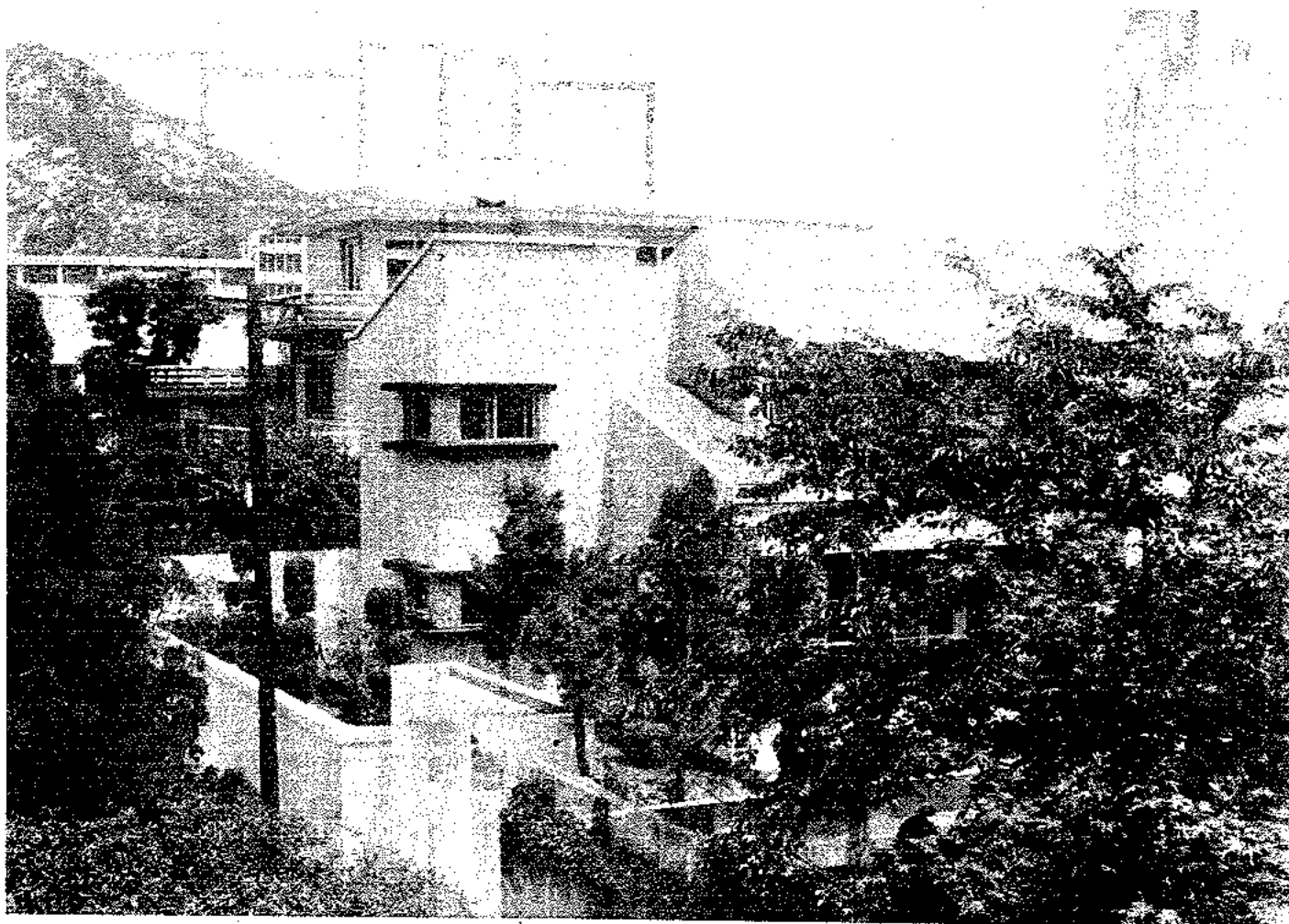
주단면도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L 氏住宅

설 계 : 김만준 (신도시건축)

위 치 :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구 조 : 벽돌조 · 외부 본타일 마감

대지면적 : 389.97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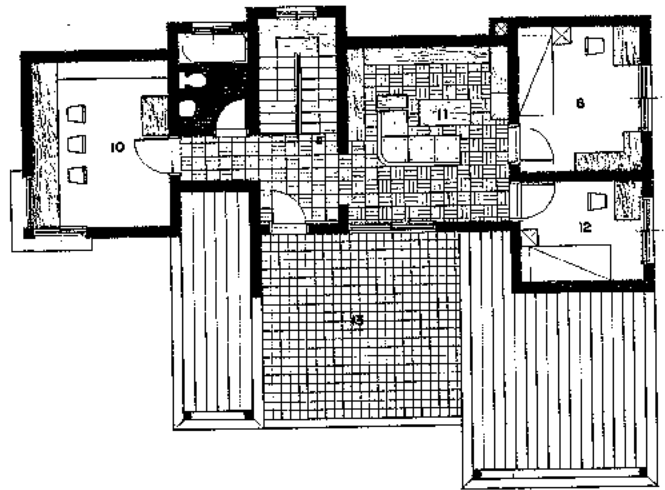
건축면적 : 지하층 39.96 m²

1 층 109.35 m²

2 층 63.86 m²

연면적 213.17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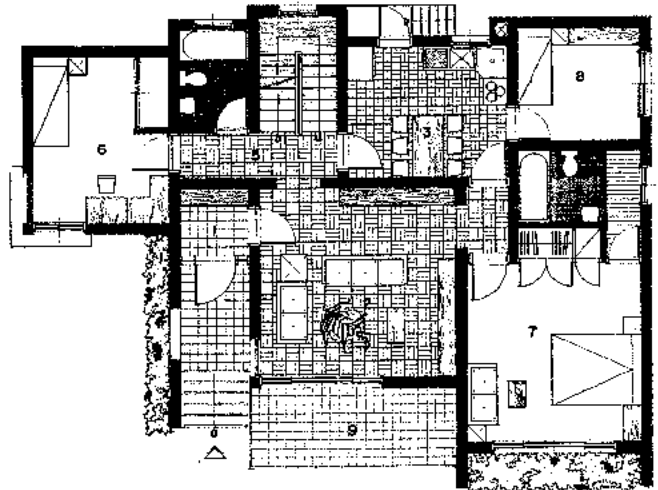


2층평면도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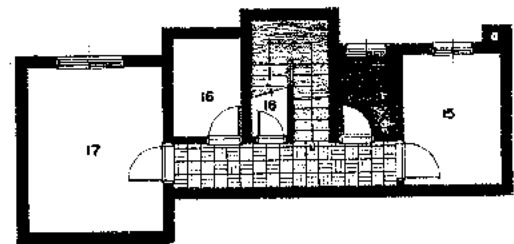
建築主가 單層에서 모-든 生活을 할 수 있도록 要求하며 작은 面積(垓地)에서 特別 傾斜된 땅에서 計劃함에 中 無理하게 生 覺되어 몇번 建築主와 協議 本案이 決定되었다.

- ① 홀 中央에 天窗을 두어 中央部照明의 效果를 期하였다.
- ② 傾斜된 마당을 埋立하여 居室에서의 出入을 容易하게 하였다.



1층평면도

1. 현 관
2. 거 실
3. 식당및부엌
4. 욕실및변소
5. 홀
6. 학생방
7. 주인방
8. 가정부방
9. 테라스
10. 서 재
11. 가족실
12. 손님방
13. 발코니
14. 세탁실
15. 보일러실
16. 창 고
17. 예비방



지하실평면도

1976년을 보내며

李 春 相 新洋建築事務所

1. 1976년

바람이 차다. 초 겨울의 문턱에 서있다. 年頭辭를 읽은적이 數日前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今年을 다 보내고 한장의 Calander 만 남아 있다. 거창한 計劃아래 할일도 많다고 생각 했고 해야 할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진전 없이 지냈다.

會員의 福祉向上,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외치는 建築士協會 또한 별다른 結果가 없다는 것, 해를 다 넘기며 서둘러 생각 된다.

建築行政의 뒤바뀐속에서 建築士의 面貌를 찾아 가고 있다고 생각 했다면 矛盾된 말일까?

주어진 일 속에서 責任感이 더 강하게 되었고 建築行政處理를 더 많이 알아야 했고 技術的인 果題가 뛰어나야 했던것이 사실이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떠들석 한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安逸無事主義로 일에 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에 忠實치 못했다는 結果밖에 없다.

建築士 資質 向上을 위해 굳건한 意志와 上下 一体속에서 強한 運命共同体 意識과 連帶責任感을 가지고 協同속에서 저마다 努力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이 나個人이 사는 길인 동시에 우리라는 建築士共同体가 살수 있는 길인 것이다.

1976년도 다 갔다. 나는 反省해 본다.

1977년이 온다.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1977년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創造的 自己 表現을 해 보겠다. 나의 天職과 使命을 自覺하고 온 精誠과 情熱을 쏟겠다.

時間을 다루며 바뀌는 都市의 面貌, 建物の 造形美, 都市計劃 等 建設의 이모저모가 우리 建築士 Idea, 創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뿌듯한 喜悅을 맛볼 수 있다.

作品을 만든다는 것, 藝術을 創造한다는 것은 온 情熱을 쏟는 것이며 자기의 뼈를 깎는 것이다.

創造는 若腦과 榮光으로 彩色된 生の 보람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價值가 있고 意味가 있는 것이다. 建築士의 創造의 힘, 이처럼 보람 있고 위대한 힘이 또 어디있을까?

이런 보람속에서도 不惑之 年을 보내게 되니 섭섭하며 아쉽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經濟成長에 발마추어 一面總力 安保와 一面 國家 建設에 盡力하며 운택하여지는 生活속에서 各自가 自己業務에 充實하며 産業 都市, 觀光都市, 住居 都市 建設에 모두 힘을 傾注하며 지내왔다.

우리 家庭이 和睦하며 우리 동네가 和睦하고 여기에 우리 都市와 國家가 내 피부에 더욱 따스한 입김을 불어준다. 이와 같아서 내 事務室에서 조그마한 設計作品(作品이라 부르는 부끄럽지만 나의 精誠이 깃들었기에)을 꾸미다 보면 이웃을 잊어 버리고 지내다가 문득 느낄때는 우리 協會에 처한 어떤 渴望을 느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도와 주었는지? 얼마나 참여하여 올바른 이야기를 하였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法과 建築士

1 우리의 社会生活 樣式이 複雜性을 띄우게 됨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테두리가 많아졌으며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社会 規範속에는 各自에게 最少한 共通된 法이 있을 것이다. 나는 法学徒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論할수도 없고 그 自格도 없다. 다만 나의 業務取級에 不可分 한것이 建築法이다.

法이란 모든 것을 規制할 수 있는 滿足한 法은 限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建築法이 10余年間에 다섯번 바뀌고 그 施行令은 일곱 차례나 改正되었다. 建築士가 法과 施行令을 채 외우고 理解하기도 前에 改正되니 業務處理에 많은 隘路를 느낀다. 그 뿐인가 各自 나름대로의 法解釋, 各 都市마다 다른 條例, 訓令等……이것을 다의우고 理解하며 設計를 하자니 建築士가 된것 보다 오히려 法律家가 되어 建築法을 講議하는 것이 設計보다 빠를것 같다. 勿論 이것은 都市 社会의 急進의인 膨脹에 뒤따른 法の 改正과 條例라 믿고 自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附屬 되도록 建築士 法도 改正되어 建築法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建築士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建築法에 발마추지 못하는 士法으로 業務를 處理하자니 自己 矛盾과 自家撞着에 逢着하게 된다. 여기서 建築士가 落後되고 權利를 못 찾고 犠牲者가 나오고 混亂을 招來하게 된다. 이러한 士法の 改正은 建築士 協會에서 좀 더 움직여 과감한 法の 改廢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죽 담당하면 行政 當局에서 住宅 建築 許可節次 改善方案이 나오며 또 그것이 施行되고 있다. 事實 建築士로서는 부끄럽고 人格에 冒瀆을 느끼는 일이다.

조그마한 茅屋에서부터 大關같은 豪華住宅에까지 過程이야 어쨌든 建築士가 設計를 하고 建築法에 適法하게 許可를 받아 建築을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왜 竣工時에는 엉뚱한 집이 되고 또 그것을 自己가 責任을 질 줄 모르는지? 三人, 五人이 共同 責任을 지라고까지 되었으니 이런 建築士들을 爲하여도 建築士 法이 改正되어 내 權利와 義務를 아는 建築士를 保護하는 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法은 萬人에 公平하다. 그러나 法은 善을 保護 하고 惡을 除去하는 것이다. 建築士라고 恒常 保護만 받겠다는 것은 큰 誤算이다.

앞에서도 記述 하였지만 建築士가 오랏줄에 묶은것 같이 三人, 五人連帶 責任制란 참으로 通歎하며 왜 이렇게 轉落하였나 하고 괴롭기만 하다.

우리가 發展的으로 우리 業務를 保護하고 零細性을 떠나서 서로의 技量을 거르며 協同心을 發揮하여 스스로 合同事務所를 發足시켜 國家와 國民에 俸仕하며 國家에서 保護해주며 國民이 信賴할 때 一個 建築士로서 보람을 느끼며 人生의 喜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法을 지키지 않고 그 法을 保護 善用하여야 될 建築士가 自己 処身을 잘못 할때는 그것은 한 人生의 終末을 告하는 것이다.

3. 建築士와 建築士協會

왜 우리는 建築士 協會에 대하여 論하는 때가 많은가?

建築士란 國家에서 施行한 考試에 合格하여 建設部長官의 免許 取得으로 建築士란 칭호를 받게되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建築士라 하는 것을 便宜上 設計 事務所를 開設하여 登錄한 建築士를 稱한다고 前提하고 들어가기로 한다.

우리는 十餘星霜에 協會의 發展相 과그 자취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外形의인 것(協會의 會館, 會員의 增加 予算의 膨脹等)이었지 좀 더 알찬 協會는 못 된것 같다. 勿論 其間의 外的 與件 때문에 充實한 發展에 阻害가 있었다고 看做한다. 앞으로는 內實이 있는 協會로 發展할 것을 바란다.

우리 會員은 協會에서 決議되면 그대로 따르고 會費를 내라면 잘 納付하여 왔다. 이제는 協會가 盤石위에 놓였으니 모든 事業計劃 施行에 錯誤가 없기를 바란다.

會員이 協會에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周圍에서 느끼는 것, 業務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요구 한다.

每年 年末이 되면 莫大한 予算案을 可決하고 雄大한 事業 計劃을 確定 짓는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의 決算時에는 獨特한 業績이 없이 끝난다. 우리 周圍에서의 쉬운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業績이다.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역어 보려 한다.

우리 事業 計劃에 海外 建築界 視察派遣이 있다. 全會員이 納付한 會費로 모두가 參與할 수는 없으니 各自時間의 其他 與件이 갖추어지는 會員이 몇사람 다녀 온다. 나는 그 報告를 會誌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外國의 어떤 學術의인것 即 國內에서 開發이 되지 못한 建築資材, 施工方法 設計 作品에 對한 研究檢討와 報告會 등이 우리에게 發展的이고 進取的인 것이다. 國民 學校學生이 서울 求景을 하고 사골로 돌아가서 紀行文을 쓰는듯한 報告는 우리에게 必要한 것이 아

니다 勿論 부드러운 筆體로 紀行文도 쓸 수도 있다. 허나 海外 視察團 과전까지의 事業 計劃을 施行하려면 予

算과 貴重한 外貨의 價値를 認識할때 遊覽하는 式의 海外 視察團 派遣은 再考할 余地가 있으며 最少限 視察團이 帰國後 一定한 論理的인 report 는 提出하여 좀더 工夫하는 建築士가 되도록 誘導하여야 될 것이다.

앞에서도 論하였지만 建築士는 事務所 開設 登録을 하여야 業務에 臨할 수 있다.

그러나 往往 그렇지 않은 事態가 벌어져서 協會에서 그것을 阻止하려고 予算과 勞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은 많이 是正되었지만 二重職이란 것이 業界를 混亂시켰다.

예를들면 敎職者(특히 大學敎授)가 어떤 設計 用役에 參與하여 營業을 할때가 있다. 그것이 正當한지 非違인지는 各自 良心에 呼訴한다.

우리나라는 敎育熱이 大端히 높다. 建築設計 監理를 하다보면 시골 山間 僻村에도 中高校가 있어서 더우나 추우나 學校에서 工夫하는 것을 보니 中高校 敎育은 國民一般敎育으로 擴大되어 훌륭한 國民이 養成 된다.

여기에 맞추어 大學敎育도 나나 할것 없이 進學 하며 現社會에서 大學入試가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그 入試의 難關과 莫大한 登録金을 納付하고 修學하는 大學生들 敎職者는 이러한 專門敎育을 받고져 하는 英才들에게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講義를 할터며는 學門研究 檢討의 時間에 쫓길 터인데……어떻게 一般實務 營業을 하며 또 그러한 敎授에게서 講義받는 學生들은 自己의 勞力과 登録金이 아까웁지 않은지?

外國에서는 敎授도 一般實務 營業을 할 수 있도록 法이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萬若 敎授가 受注하여 營業을 하면 學生은 自己自身을 爲한 講義 研究에 時間을 割愛치 않는 敎授는 排斥하며 그 學校 財團에서는 그런 敎授는 學界에서 물러나게 하며 ower 는 어떻게 學術 研究에 바쁜 敎授에게 設計를 依頼할 수 있느냐 고返問한다.

또한 敎授들은 自己 弟子들이 社會에서 活動하도록 끊임없이 指導를 하여야 한다. 自己 權威主義的 陶醉感을 버리고 建築界의 淨化를 바라는 것이 우리 協會를 爲하고 自身을 爲하는 것이다.

우리 協會에서는 會員의 質的 向上과 會員의 敎育을 爲하여 指導 事業이 있으며 많은 予算도 策定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창한 予算과 指導보다 가까운 데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首都 서울이나 地方을 莫論하고 거의 모든 建築物는 建築士를 거쳐 이루어진 設計다. 그런데 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도록 粗雜한 것이 있다. 언제부터 누구의 作亂인지? 開

発地域에 나가 보면 住宅이라는 것이 도대체 設計를 한 것인지……어디서 模倣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이상아 못한 住宅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왜 이런 設計와 이러한 配置를 하여야 되는지? 흔히 들 집 장사 집이라고 한다. 집 장사 집이라고 假定하자 그것으로 自慰가 되는가? 집 장사가 設計를 하고 집 장사가 監理를 하였단 말인가? 누구이든 간에 建築士가 設計를 하고 監理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技術 이전에 精神的인 姿勢 問題이다. 그것을 設計라 하고 그런 住宅을 數十棟 數百棟을 建築 許可를 내어주고 致富하였다고 自負한다면 차라리 어려운 大學 工夫보다 市場에서 장사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品位를 우리가 保存하여야 한다. 設計다운 設計를 하고 훌륭한 建築家의 先驅를 능가할 수 있도록 努力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草家三間이라도 우리의 技量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建築主가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그 家庭과 環境에 맞도록 引導하여 都市空間 構成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例도 協會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 생각지 말고 關心을 두어야 할 것이다. 圖書登録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된 設計書에 회비 징수하고 도장이나 찍는 것을 願하지 않는다. 會員의 指導事業에 올바른 座標를 세우고 方向 設定을 하여야 될 것이다. 내 周圍가 淨化될 때 우리 團體가 淨化되며 社會의 부조리는 척결된다.

協會 運營에 內面的 制度的 矛盾點도 있다. 今年에는 協會 予算의 統一性을 期한다고 下向式的 予算 體系인 統合予算을 完全히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協會 機構組織 偏成에 對한 正 관계정기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莫大한 予算이 所要되는 分所의 統融合 이라든가 再偏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協會에는 여러 가지 運營規定이 있으나 分所의 運營規定이 弱하다. 따라서 分所는 分所本然의 任務보다 膨脹하여 越權行爲가 많다. 이것은 協會에 對한 會員의 怨聲을 들을 수가 있다. 分所는 會員의 圖書登録의 便宜에 必要性을 느끼어 設置되는 것이다. 그것이 變質되어 自己 分所會員끼리 団合하여 協會(支部) 運營에 힘을 가하는 式(특히 總會時)은 큰 잘못이다.

나는 地方支部(分所)에 出張가는 境遇가 많다. 그때면 그 支部(分所)의 職員과 會員들은 그 地方의 條例라든가 內規에 對한 說明을 하여주고 建築許可申請圖書를 條例에 맞게 친절히 가르쳐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데 어떤 會員은 地方에 가면 地方色을 나타내는 不便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誤解와 他地部 會員이 自己 고장에 왔다는 氣分에서 비록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로 가까이 지나고 친절하면 總會에서 論議
되었던 所屬支部에서 圖書登錄을 하자는 案이 안 나왔
으며 客地에 나가서 그 地方의 支部에 가서 圖書登錄
을 하고 業務取級에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便利할 것
이다.

이렇듯이 協會는 高次元의보다 우리 周圍에서 眞理를
찾고 會員의 品位와 權益옹호에 研究하여 주기 바란다.

4. 1977년

이제 생각나는대로 筆이가는 대로 몇마디 엮어 나갔다.

1977년은 四次 五個年 計劃의 첫 해이다. 1976년은 建
築活動의 伸張率이 鈍化된 것으로 統計가 나왔다. 우리
會員들은 많은 苦難을 겪고 참으며 國家建設에 役軍이
되었다고 自認하고 싶다.

“나라는 내 自身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느끼며 앞으
로도 어떤 方向과 어떤 進路가 “나”를 “爲하고 내 家庭
을 “爲하고 어떤 것이 國家를 “爲하는 것인가를 認識하여
야 할 것이다. 先輩는 後輩를 사랑하고 아끼고 後輩는
先輩를 존경하고 서로 自立精神과 協同으로 對할
때 모두 發展하고 신뢰될 것이다.

우리의 生命은 永遠한 것이며 所重한 것이다. 그 所重
한 生命力이 엮어 놓은 作品은 永遠한 것이다. 따라서 “人
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고 한다. 모-든 設計가 作品·
藝術이라고 生覺할 수 없다. 내 精誠이 깃들고 精熱이 깃
은 作品이 값이 있는 것이다.

우리 1976년을 영광되게 보내드리고 1977년의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할때 서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며 따뜻한 1977년을 맞이 합시다.

물 자 절 약

반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
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지도 기부 및 전
회원은 자발적으로 출산수입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
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1976년

회고 座 談

회지 “건축사”를 중심으로

일시 : 1976. 12. 11. 12:00시

장소 : 본회 회의실

참석 : 회장 이 규 복

사회 : 편찬위원장 김 두 섭

편찬위원 김 인 석

“ 김 진 일

“ 이 경 회

“ 이 문 보

“ 유 경 철

필 자(회원) 최 창 규

기고자(회원) 황 일 인



사 회 : 공사 바쁘신중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자리를 회지“건축사”를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편달을하여 주시는 회원 두분을 모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줄 믿습니다. 격이없으신 말씀을 많이 주시면 “건축사”지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장님께서 그간 느껴신점과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 장 :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축사”지를 여러분께서 간접직접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이자리도 그러한 뜻으로 마련 될줄 믿습니다. 본인이 외부로부터 많은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회지“건축사”가 많은 발전과 그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위원 제위와 필자, 기고자 여러분의 힘입은 소치라고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건축사”지가 완전히 성숙한 경지는 아니므로 부단히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줄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세계적인 건축사지가 되도록 편달 바랍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1977년 본회 사업 계획중 외국의 교수진도 초빙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세미나도 갖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1976년을 보내면서 우리 건축사지를 위한 건설적인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격이없이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하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철 :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방담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기를 위원직에 머물면서 피부로 느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회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더 우리 “건축사”지는 회원 위주의 회지로서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건축사지에 참여하는 범주는 열 손으로 꼽을 정도의 한정된 몇몇 분만의 기고지체법 인식되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원과 밀착치 못되고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회원들이 깊숙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시 말해서 회원들의 투고를 적극 유도해서 회원의 회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동력과 편집인원의 증원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문보 : 저도 지금 말씀하신 유의원과 함께 “건축사”지 편찬에 오래 참여 하여온 사람으로서 또 지난 1년을 회고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면 많이 정돈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아쉽고 꼭 지난해에는 실현해야겠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유의원 말씀대로 회원과 밀착해야겠으며 1976년을 종합분석해보면 기고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원들의 기고율은 25% 정도며 회원 코너 등에 국한된 느낌인 것입니다. 비회원의 원고로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비회원의 기고 내용도 그 주류는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었고 76년 하반기 부터는 비교적 실무에 관한 정보가 많이 게재 할애 됐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작품면으로 보면 해외 작품 소개와 회원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원 작품이 우대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에서 오는 차이도 발생 되리라 믿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회원 작품 우대는 계속 모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 회 : 해외 작품과 회원 작품 편집 관계는 실무자로 부터 자주 듣는 문제로서 편집과정 원고의 빈약에서 (특히 사진) 오는 것으로 알며 해외 작품과 같은 대담한 편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점은 양해 해 주셨으면 하며 그렇다고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 취재를 목표로 77년에는 더 좀 진취적인 방법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문보 : 제작비와 비슷한 예산이 무형투자자라도 배려되어야 할 줄 압니다.

유경철 : 회원의 입장에서 특히 작품을 기고 하시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황선생님

황일인 : 편집 멤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무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생각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품을 기고 한다는 과정은 공통된 의견이겠습니다. 마는 도면 작성은 그런대로 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사진 제작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힘

들다고 봅니다. 회지 “건축사”에 게재할 수 있는 사진원고는 건물사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업적인 기사가 동원 되지 않는한 멋진 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인석 :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 사진은 특히 전문 기술이 요한다고 봅니다.



이경희 : 외국의 경우 건축사진은 전문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전담원을 양성하는 것도 연구 과제라 봅니다.

유경철 : 회원들에게 남은 것은 회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좋은 작품을 발굴 희망 있는 앞날을 약속하는 뜻으로도 각 지방지부에 신재하는 우수 작품을 능동 취재해서 빛을 보도록 노력해야 될줄 알며 지방별로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최창규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필자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참여 해야 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욕이 문제인것 입니다.

회원들의 참여 의식을 일깨우게 할려면 우선 자극이 필요 하 라라 생각 합니다.

벽두에도 여담으로 잠간 말씀 드렸읍니다만 우리 회원의 수가 이제는 상당수의 대가족으로 무궁 무진한 저력을 지녔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같은 대가족이 회지 “건축사”를 멋있고 알차게 꾸미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특히 회원 코너 같은 난은 숨은 개인의 취미 같은 것 무궁무진 하리라 믿고 발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본인도 추천 하기도 하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추천하시면 좋은 글이 많이 나올줄 믿고 작품 사진 원고 관계는 본인도 늘 느끼고 있는 분야로 카메라맨의 양성이 시급하여 그 기술은 역시 직업적인 수준에 육박 하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할줄 압니다.

회 장 : 전찬 위원장과 의논해서 방향을 설정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황일인 : 3 단체 외에도 건축 잡지가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 기선을 우리 “건축사”지가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뛰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지도 면(PAGE)를 늘렸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회원 작품에 대한 편집 경향을 좀더 우대하는 방향(면할애)을 연구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평의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작품에 따라 면할애를 안배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 회 : 원고 기고 규정상 회원 작품은 평등하게 취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로 작품 성격상 대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역시 그 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품 선정은 과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든것을 75년도 부터는 약간 그 기준을 완화시켜 되도록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역시 어느 수준에 미달되는 작품은 곤란 하다고 봅니다.

이문보 : “건축사”지를 독자층이 건축사 회원에 국한시켜 생각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 건축과에 송달하는 회지를 학생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드러다 보기 때문에 적어도 작품이 이루어질 때 까지에 올바른 DATA를 많이 상세하게 편집 게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석 : 회원 작품의 빈곤이라 듣고 있으나 사실은 그 원고 제작 과정에서 오는 고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작품 원고를 제시하자면 보통 성의로서는 어렵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작가에게 원고 제작을 100% 의뢰 하기에 원고가 입수키 힘들 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역시 회원 작품은 능동적인 수집 방법이 좋을 줄 압니다, 물론 여건이 여의치 않겠지만.

이경희 : “건축사”지의 성격 형성이 중요 하리라 봅니다. 보다 중요하다고 느낀점은 역시 회원에게 새로운 기술 정보, 작품 소개일 것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작품을 발굴해서 작가의 의도 건물평가(건물이 건축된 후 사용자에 의해 어떻게 사용 관리되고 있나) 건축기술 구조등의 평가 내용면에서 뚜렷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다른 곳에서 구상 못하는 것을 해서 우리 건축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건축사”지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사 회 : 지난 한해 동안도 회지 “건축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지 “건축사”가 이 정도로 발돋움 한것도 역 위원 제위와 기고자 필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룩됐음을 다시한번 이 기회를 통해 감사 드리며 계속 아낌없는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 합니다.

시카고 바하이 敎會를 보고와서

禹 達 亨 우달형건축설계사무소

진정한 聖殿은 바로 神의 말씀이다, 온 인류가 그 말씀에 돌아서야 하며, 그 말씀이 온 인류를 爲한 統一의 中心이 되기 때문이다.聖殿들은 神의 統一시키는 힘의 상징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때에津法이 그들을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고 그 津法이 그들을 하나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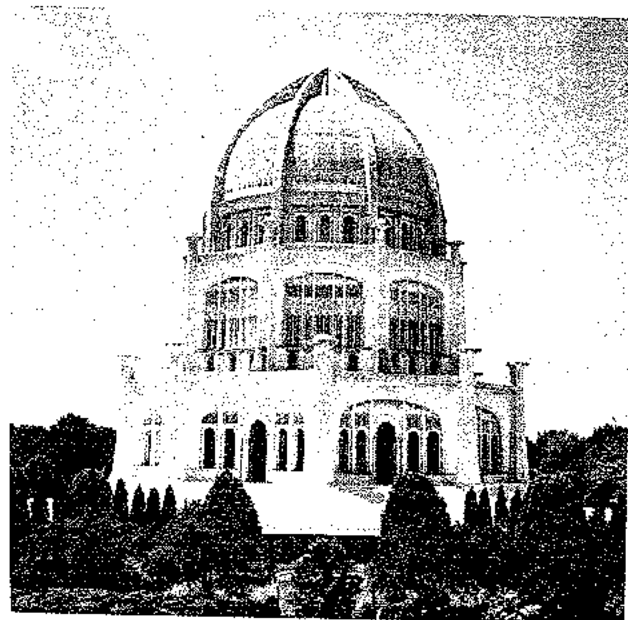
간단히 말하여, 성전들과 예배 처소의 본래의 목적은 단지 통일을 목적한다; 각양 각색의 사람들 곧 人種이 다르고 才能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一致가 그들 사이에 있음을 보여주기 爲하여 함께 모이는 만남의 場所인 것이다.

예 배 당 (The House Of Worshig)

윌미트(Wilmette)에 있는 바하이 예배당이 1953년 공공 사용을 위해 봉헌된 이래로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찬란한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곳을 둘러싸고있는 안온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왔다.

그 예배당은 이들 300만의 방문객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여기를 방문할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다. 이것과 같은 예배 처소들은 바하이 信仰의 最初의 기록들에서 이미 예상 되었었다. 그 처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모든 종교와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에 局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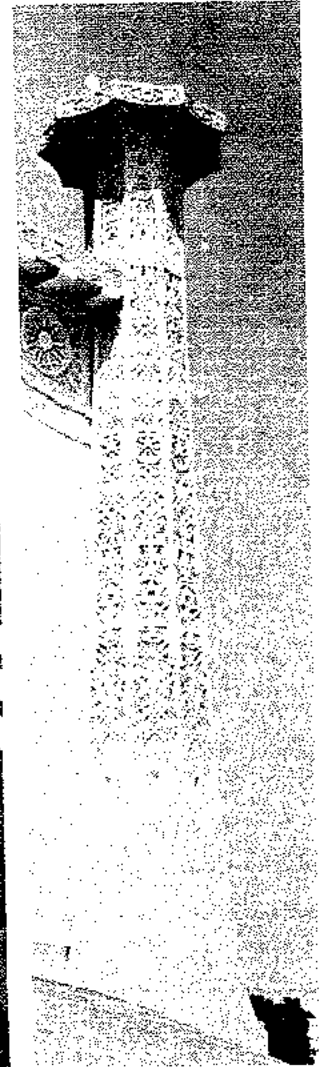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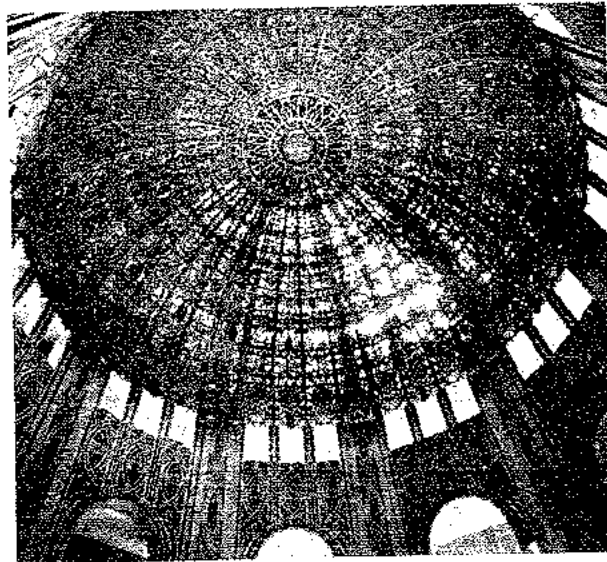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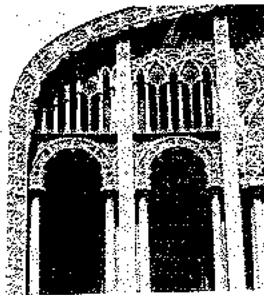
세련된 祭式儀式들은 이 예배당에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거기엔 강단도 없고 설교도 없다. 그리고 바하이 信仰에는 성직자도 없다.



예배는 세계의 登衣된 危敎들에서 나온 교독문들로서 이루어진다. 바하이의 견해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 자신의 芸的 進歩에 책임이 있으므로, 예배당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個人的인 예배와 명상이다.

이 예배당이 비록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할지라도 그곳은 세속적 관심과는 동떨어진 天上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조만간 교아원, 병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소, 지체 불구자들의 안식처, 대학, 도서관 그리고 여인숙과 같은 사회 봉사 기관을 포함할 복합체의 중심체이다. 이들 구제기관들 중 최초의 것은 노인들을 위한 바하이 양로원으로서 1959년 이래로 예배당 가까운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예배당은 1921년에 짓기 시작했다. 그 계획의 기금은 바하이로부터만 받았다. 이 건물의 완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건물은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 原形에 대한 의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함으로 하나가 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원리이다.



설 계 (The Design)

서방세계에 있어서 최초의 바하이 예배당을 위한 계획은 1903년 시카고의 소수 바하이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카고에 미국의 바하이 공동체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1894년이였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기들에게 제안된 이 예배당을 위한 설계들을 제시했다. 1920년에 최종 선택이 있기 직전에 모집된 설계도들이 스미드소니아 협회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건축가 루이스 부르조아가 가장 뛰어난 재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파리에 있는 Ecole Des Beaux Arts에서 공부했었다. 그의 설계도 - 완성된 예배당으로 보여지는 북미 전역을 걸쳐 바하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49명의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것이었다.

부르조아는 1909년 바하이 예배당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고 자기가 만족할만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8년 동안 고심했다. 1917년에야 드디어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의 말대로 그는 灵感을 가지고 鐘모양의 성전을 설계한 것이다. 그는 紙面 위에 그 생각을 적절히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석고 모형 (Plaster model)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우선 그는 그 매개물을 사용하는 것을 익혀야 했다. 3년동안 그는 빈곤 가운데서 살았으며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한 財政은 그가 뒷뜰에서 가꾼 꽃을 팔아서 충당했다.

부르조아씨는 그의 한 친구에게 자기의 作品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12년전에 나는 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 성전모형과 설계도가 만들어졌지요), 그때 나는 내 집에 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형태는 하나의 큰 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 정원이 어째서 鐘모양이냐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이 鐘은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樂器입니다: 그것은 아주 먼곳까지 소리를 운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 따위도 운반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 따위도 운반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큰 鐘을 달았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바하이의 세계에서 鐘모양으로서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큰 鐘입니다. 미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종소리를 들을까요?"

전 축 (The Constraction)

부르조아의 모형이 1921년에 전시되었을 때 뉴욕 타임스紙는 이렇게 論評했다. "미국인들은 한 예술가가 국가들의 종교연맹의 의사를 이 건물 속에 이루어 놓은것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조용히 연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많은 건축가들과 기술자들은 그것이 과연 건축될 수 있을지를 의심했다. 문제는 성전의 정교한 장식의 끈모양(Lacy Patterns)을 옮길 견고하고 경제적인 材料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알미늄 合金이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작업에 부적당함이 드러났다. 화강석, 대리석 그리고 다른 돌들과 마찬가지로 테라코터(Terra-Cotta)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모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마침내 유명한 건축 조각가인 존 어얼리(John Earley)가 석영과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混合物을 견고하고 경제적인 장식 형태로 주조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조각가들이 진흙을 부르조아의 그림에서 그 모형을 본뜬 큰 널판을 폈다. 그림들 중의 하나는 109피트 길이의 종이장들위에 있었다. 다음에 세 단계를 더 거쳐서 기하학적 형태들과 종교적 상징들이 섞여 짜인 그 모형은 석고 모형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 속으로 석영과 시멘트의 혼합물이 부어진다. 완료된 부분들은 기차로 윌미트(Wilmette)에 운반되어, 한

부분씩 강철 구조 위에 매달았다. 그 돔(Dome)의 외부만도 387개의 부분을 필요로 했다.

방문하는 법 (How To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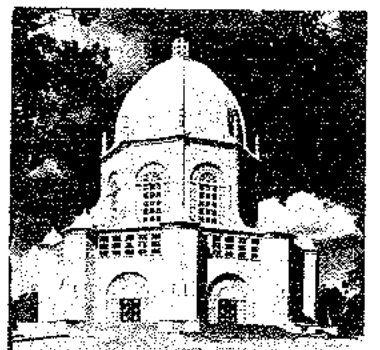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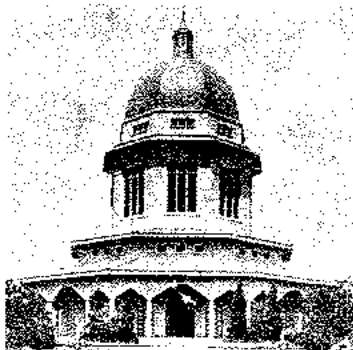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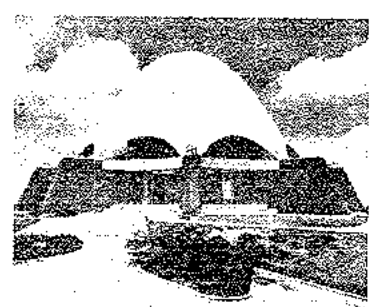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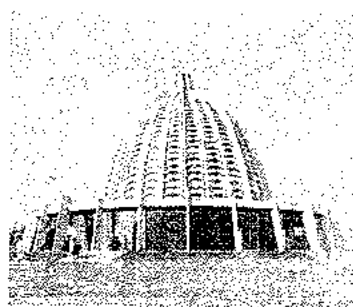
그 예배당은 연중 매일 개방되어 있다. 공중예배는 매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10월 15일에서 5월 14일 사이의 방문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5월 15일부터 여름 기간에는 방문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유로운 단체 관광객들은 (312) 256-4400 교환 15 혹은 16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인들이나 소수의 방문객들의 단체는 사전 예약을 할 필요는 없다.

전열품들과 슬라이드 프로그램들은 바하이 신앙의 기본적인 교훈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자원해서 일하는 안내인들은 책임성 있게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의 강당은 개인의 기도와 명상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 마침내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공동체 안에 바하이 예배당이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다섯개가 있고 두개 이상이 계획 중에 있다. 두개 이상이 계획 중에 있다. 아래에 보여지는 사진들은 다음의 지역에 있는 예배당들이다. 시계방향으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우간다의 캄팔라;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이다. 그리고 계획중인 두 건물은 인도와 서부 사모아에 곧 세워질 것이다.



바하이 신앙(The Bahai Faith)

바하이 신조는 19세기 중엽 페르시아에서 생겼다. 창설한 선지자 바하울라(Bahau'llah)는 귀족 집안에서 1817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귀족이라는것이 그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그의 생애동안 그는 추방, 고문, 투옥을 당했다. 이는 그의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그의 말로는 神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敎訓들 속에서 세계의 모든 共同体들이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그들 所願의 표현을 발견하는데, 이 교훈들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져 왔다.

“바하울라가 宣布한 啓示는, 그의 추종자들이 믿기로는, 기원에 있어서 神의이고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관점에 있어서는 폭넓고, 方法에 있어서 科學的이고, 原理에 있어서는 人間中心的이고, 人間들의 知性과 心情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動的이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신앙의 창설자의 선교란 종교의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신의 계시는 연속성이 있고 점진적이며, 그리고 과거의 모든 종교의 설립자들은 비록 그들의 교훈들의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찌라도 동일한 장막에 거하고 동일한 하늘 안에 솟아 있고 동일한 왕좌에 앉혀지고 동일한 말을 말하고, 그리고 동일한 신조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의 근거는 인간 진화의 전과정의 절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유기체적 통일 원리와 통일시되고 운행한다고 그들은 이미 증거해 왔다. 이 엄청난 진화에 있어서 이 단계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접근해가고 있으며 또한 신성하게 수여된 메시지가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天上의

잠재성, 이것을 결여한 것은 아무것도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

바하이 신앙은 神의 통일성과 선지자들의 통일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리를 주장하고 모든 형태의 미신과 편견을 비난하고 종교의 근본 목적이 일치와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그것은 과학과 병행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평화롭고 질서잡힌 것이며 발전적인 사회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와 특권을 권장하고 의무교육을 지지하며,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철폐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된 일을 예배의 위치에까지 높이 하고 보조적인 국제언어의 채택을 추천하며, 또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의 보호와 확립을 위한 필요기관들을 제공한다.

현재 바하이들은 지구상에서 300처 이상의 나라와 지역과 섬들에 살고 있다. 바하이의 교훈들과 그러한 교훈들 안에서 설립된 기관들에 의해서 指導됨으로써 그들은 바하울라에 의해 약속된 세계 평화의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속에서와 그들의 바하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형성된 통일성에 의해서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한 보편적 동거 즉 한 공동신앙”으로 결합하기 위한 바하울라 교훈의 힘이 살아있는 표본들이다.

組積造 및 鉄筋콘크리트 建築物의 伸縮 이음에 關하여

辛 鉉 植 中央大工大教授

1. 概 說

人間의 智慧가 發達되고 經濟的인 領域內에서 生活하게 되면서 住生活의 發展을 더욱 加速化시켰고 木材 또는 石材를 利用한 建築이 盛行되였으나 그 以後 粘土製品인 燒벽돌도 많이 利用되어 왔다. 20世紀에 와서는 시멘트를 利用한 시멘트벽돌 또 시멘트와 鉄材를 利用하는 鉄筋콘크리트造 建築物이 建物の 相当數를 차지하게 되었고 漸次 大型化되어 가고 있다. 또 高層化되면서 建築物의 自重을 輕減할 目的으로 鉄骨構造物도 많은 量이 新築되고 있으며 Span이 큰 工場 建物の 지붕 트라스는 거개가 鉄骨을 使用하는 實情이다.

그런데 建物에 使用하는 建築材料는 各已 固有의 熱膨창율이 있어 建築物完工후에 建築物이 内外의인 熱의 作用에 依해 팽창 또는 수축하게 된다. 이와같은 建物の 伸縮이 클 때는 그 構造物 또는 마감材料에 損傷을 주지 않도록(建物이 伸縮하는 어느 限界內에서) 伸縮에 對한 완충재를 利用하여 調節할 수 있다.

建物에 作用하는 橫力은 考慮하지 않더라도 建物の 沈下, 含有하는 濕氣의 變化 및 溫度變化에 따라 建築物의 構成材料에 過度한 應力이 作用하여 建物の 變動을 惹起케 한다. 그러므로 建物の 主的인 움직임(movement)의 要因을 建物の 沈下에 依한것, 濕氣에 依한것, 溫度(熱)에 依한 것으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2. 沈下에 依한 움직임

建築物의 沈下는 建物の 規模와 그 均質如何, 建物の 길이, 構成材料, 構造物의 性質에 따라 달라진다. 建物 全体가 均等하게 若干 沈下되더라도 그 構造物에는 큰 損傷은 주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建物の 各部分의 沈下에 差異가 있을 때는 構造物에 각기 다른 應力이 作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應力の 差異는 벽돌 構造 建物일 때는 龜裂을 發生케 할 것이고 一体式 構造物에서는 過度한 應力이 作用하게 되는 部材도 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不等沈下의 原因은

(a) 地盤에 構造物에서 傳達되는 荷重이 地耐力보다 클 때

(b) 地盤의 水分의 多少에 變化가 있을 때

(c) 構造物의 下部에 坑을 파거나 이와 비슷한 作業을 하거나 큰조의 下水道(pipe) 등이 묻혀 있을 때

(d) 一般的인 地盤의 移動이 있을 때 上記와 같은 地盤條件에 依한 建物の 不等沈下의 要因은 地盤을 安定工法에 依해서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改良하여야 한다.

또 地盤狀況을 考慮하여 適切하게 基礎를 設計 하므로서 最小限度의 沈下에는 充分히 耐力을 갖일 수 있게 할 수 있는것이다.

3. 溫濕氣에 依한 伸縮

構造部材의 濕氣에 依한 伸縮의 크기는 적은 便이다. 大部分의 材料는 水分을 吸收하여 팽창한다. 콘크리트 시멘트 물탈, 회반죽도 水分에 依해 팽창하고 乾燥되므로 수축하는 現象이 있다. 또 濕氣에 依한 伸縮의 크기는 材料에 따라 다르므로 伸縮이 큰 材料는 경우에 따라 特殊한 方法으로 測定할 必要가 있다.

또 Expansion joint는 지붕 Slab에 限하여 設置 하는 것이 아니고 内外壁에도 팽창에 依해 應力이 作用할만한 곳에도 設置한다. 그래서 一般的으로 鉄筋콘크리트 建築物에서는 構造物의 밑바닥面에서 지붕面까지를 끊어서 Expansion joint를 設置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림 2의 (L)에서와 같이 기둥과 보를 겹으로 하는 것이 가장 簡單한 方法이지만 建物의 凹部分의 中央部에 位置하게될 때와 같이 바람직 하지 못할때는 캔틸레버 슬래브나 보를 두어 解決할 수도 있다((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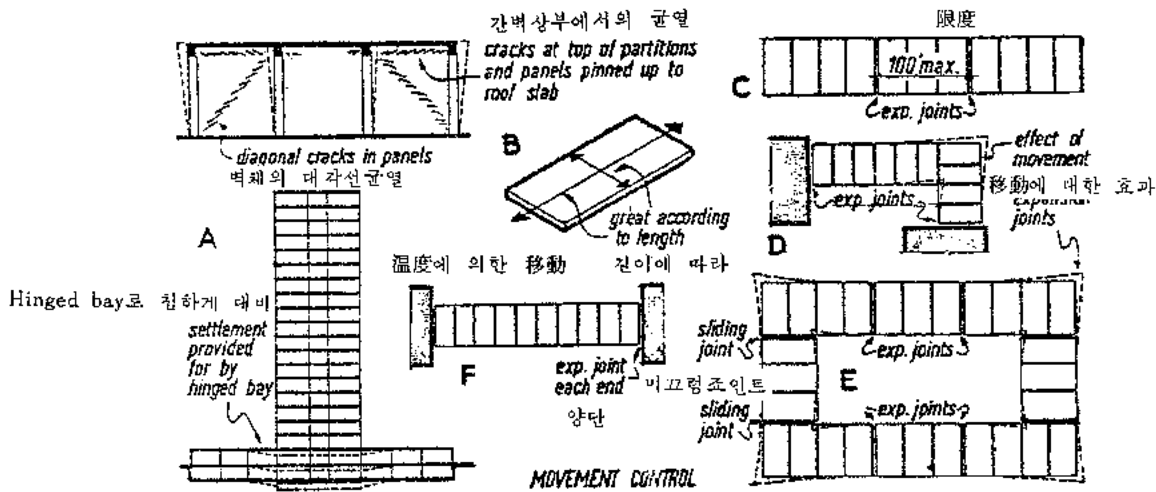


그림 1 건물의 이동 조절

4. 溫度에 依한 伸縮

建築物의 지붕이 熱遮斷材로 保護되지 않고 大氣中에 露出되면 晝間의 強烈한 太陽光線으로 팽창하게 되고 夜間에는 溫度 저하로 어느 程度 收縮하게 된다. 建物의 形態가 單純하게 矩形인 平面이고 길이 100피트(約30.48 m)일 때는 建物의 收縮 또는 팽창이 작고 어느 方向으로라도 自由로 수축 또는 팽창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外壁이나 間壁에 對해서는 注意해야 한다(그림 1 参照)

그러므로 建物의 길이가 100 ft (30.48)를 超過할 때는 伸縮줄눈 (expansion joint)을 두도록 하고 建物이 더욱 클 때는, 100 ft 以內마다 伸縮줄눈을 두도록한다. (參考文獻① PP 222) 그리고 伸縮줄눈의 實際의 인 넓이는 溫度 變化와 材料의 팽창 계수를 考慮하여 計算해야 한다.

그림 1에서 D, E는 制限點에 Expansion joint를 設置한 例이고 E部分에서는 端部에서 미끄럼 作用이 許容될 수 있도록 設計해야 한다. 또 그림 1의 F에서와 같이 兩側의 構造物을 連結하는 渡廊下와 같은 곳과 構造物에서 지붕 Slab 나 바닥 Slab에 큰 開口部가 있어 突然한變化가 生길만한 곳에는 expansion joint를 設置해야 한다.

鉄筋콘크리트 構造物 및 組積構造物은 太陽熱과 雨水에 오래도록 노출 되므로 수축 또는 팽창한다.

구조용 콘크리트는 理論적으로 길이 100ft일때 溫度가 100°F ()로 變化하면 約 3/4 in (1.905cm)의 變化를 가져온다. 그러나 建物에 있어서는 實際적으로 위의 半程度의 變化를 가져 온다(參考文獻② pp 92)

鉄筋콘크리트 建物의 한 點에 있어서 鉄筋은 溫度變化에 따른 應力을 分布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表面의 龜裂의 發生을 最小限度로 制한다. 그러나 極限의 環境雨일 때는 鉄筋을 充分히 많은 量을 使用하더라도 龜裂을 抑制하지는 못할 것이다. 鉄筋의 팽창율은 구조상 콘크리트의 팽창율(표 I 참조)과 거의 같으므로 鉄筋量을 增加시킨다 하더라도 溫度變化에 따른 全體的인 收縮 또는 팽창에 對해 有效하지는 못할 것이다. 鉄筋은 含有 濕氣에 依한 體積팽창을 抑制하고 應力을 分布시키는데는 有效 할 것이다.

또 한개의 建築物이 異質地盤에 놓이게 될 때 例를 들면 한 쪽은 岩盤에 놓이고 其他部分은 普通흙과 같은 地盤에 놓이게 될 때 기초 또는 기초벽사이에 expansion joint를 設置하는 것이 建物의 龜裂防止上 有效할 것이다. 그리고 平面이 U, T, 또는 L形일 때 서로 接續되는

부분에 expansion joint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Control joint (調節줄눈)

調節 줄눈은 伸縮줄눈(expansion joint)을 더욱 制限(修正)한 것이다. control joint의 位置는 그림 4 및 그림 5에서와 같이 한다. 이것은 미리 定하는 位置에서 収縮에 依한 最小限의 龜裂이 發生되도록 하는데 有効하다. 即 좁은 간격으로 미리 파 놓은 홈에서 龜裂이 發生케 하여 他部分에의 龜裂을 防止토록 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 줄눈은 콘크리트의 두께가 달라지는 部分 또는

넓은 面積의 壁面 또는 體面창의 原因으로 2次 應力이 作用할 可能性이 있는 處에 設置 한다.

龜裂이 發生하기 쉬운 外部 콘크리트벽面 에서는 25ft (7.62) 以內의 間隔으로 設置한다. 또 窓門이 드문, 드문 있을 때는 20ft (6.095m) 간격으로 두고 建築物의 모서리 部分에서는 10~15ft (3.048~4.57m) 以內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考收獻② pp. 95) 이외에도 壁版이 부침 기둥과 接續되는 部分, 鐵骨기둥이 콘크리트 벽과 接續되는 部分, 그리고 開口部 周圍等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방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끼워 미끄럼에 유리하게 한다.

관통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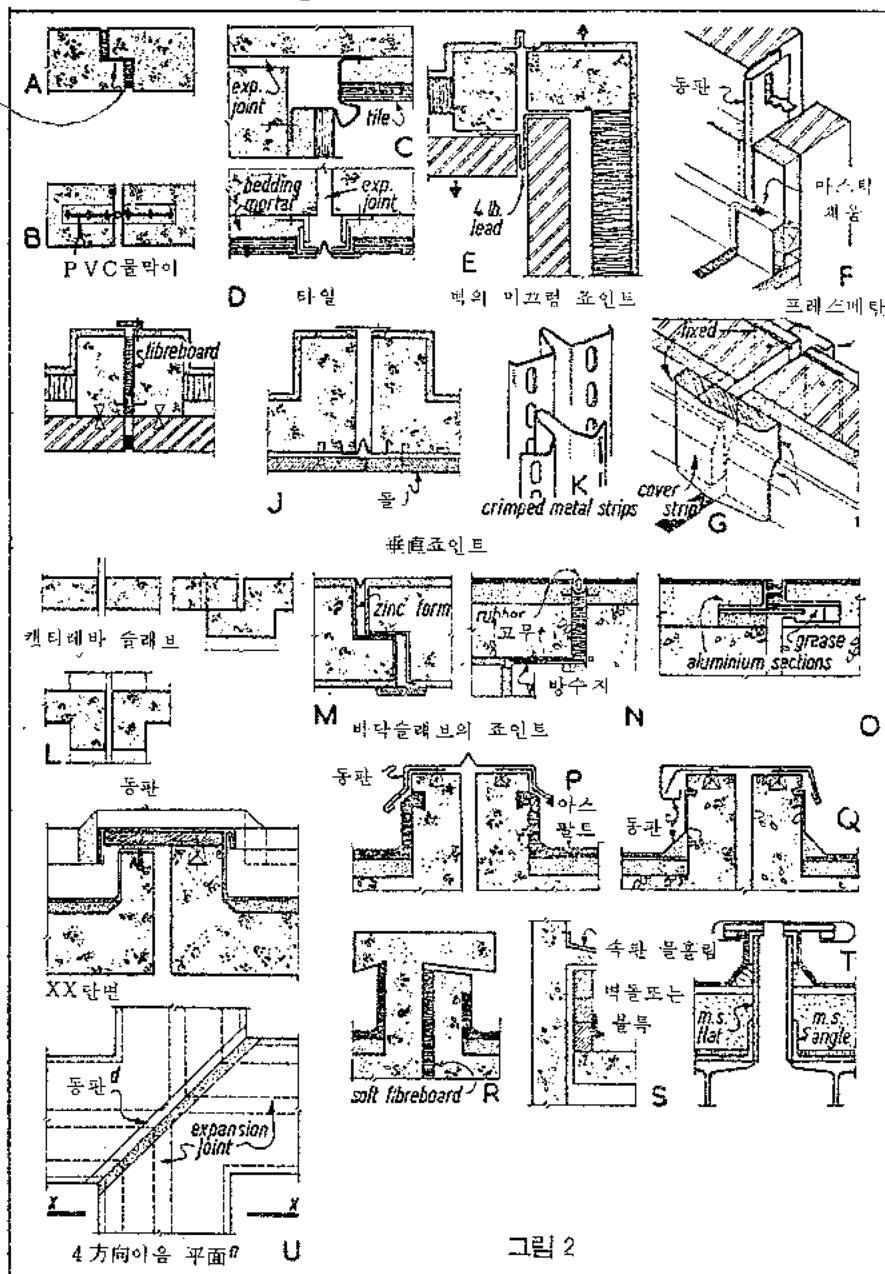


그림 2

표 1 各種建築材料의 溫度에 依한 팽창 (근사치)

線膨脹계수 50°F 上昇할때 100 oF × 10 - 6 ft인것이 팽창하는량 (inch)		
콘크리트	6.7	0.4 (1.06 cm)
철 근	6.5	0.39 (0.99 cm)
알루미늄 및 합금	12.7	0.76 (1.93 cm)
벽돌 조적조	3.4	0.21 (0.533 cm)
석회석	3.2	0.19 (0.483 cm)
스레이트	5.25	0.32 (0.88 cm)
유 리	4.5	0.27 (0.686 cm)
석면 시멘트	4.7	0.27 (0.686 cm)
목재 : 섬유방향	3.1	0.28 (0.71 cm)
섬유에 직	23.5	0.19 (0.483 cm)
각방향	5.3	1.4 (3.556 cm)
강화프라스틱		0.32 813 cm)

※ 参考文献 ①에서 발췌한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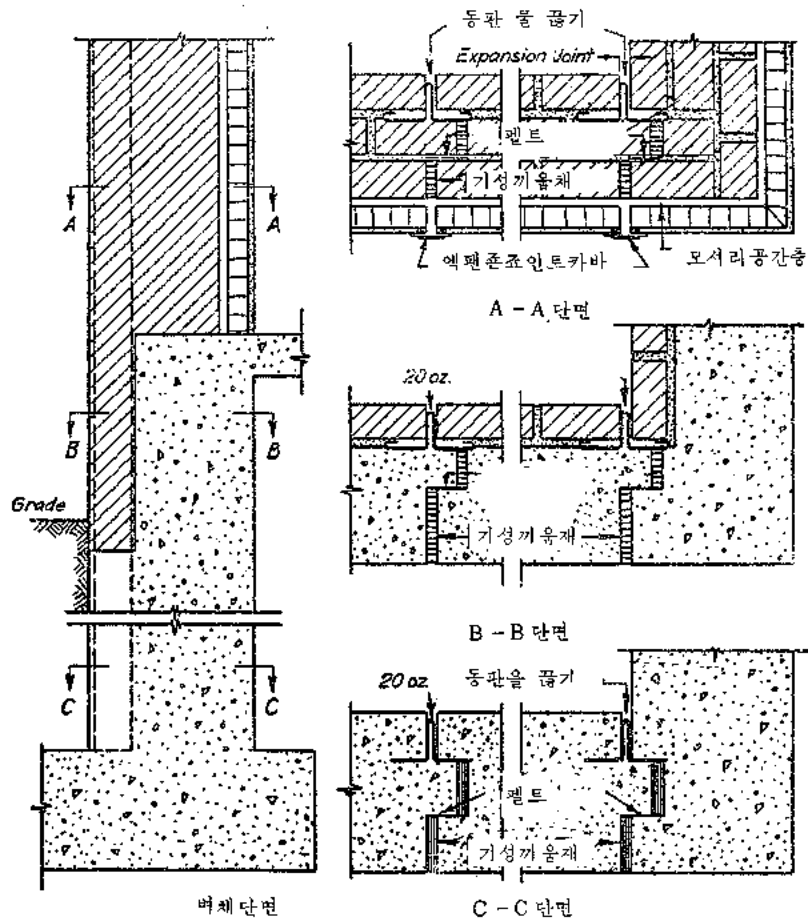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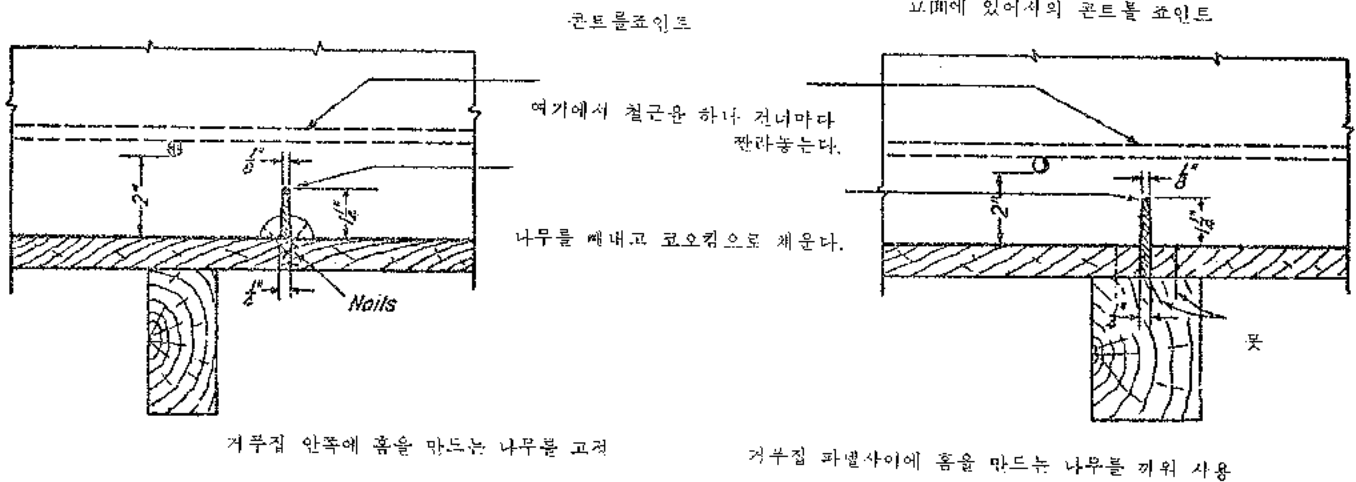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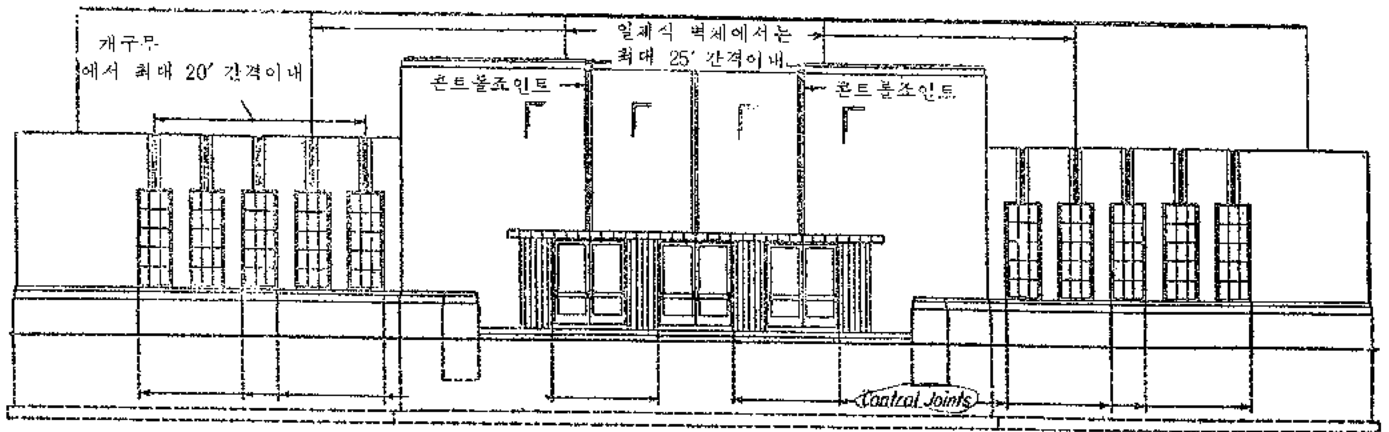


그림 3. 벽체의 expansion Joint



거푸집 안쪽에 홈을 만드는 나무를 고정

거푸집 패널 사이에 홈을 만드는 나무를 끼워 사용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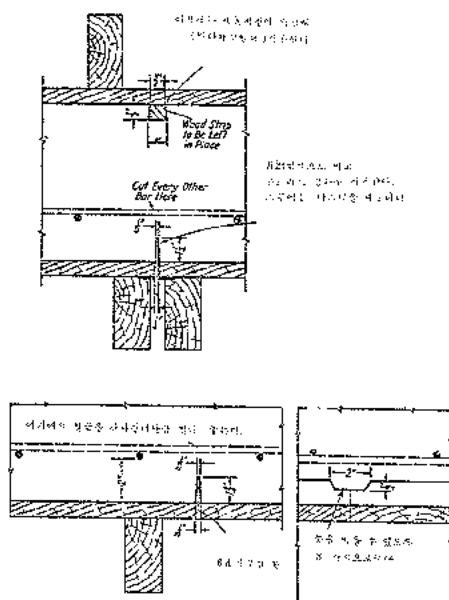


그림 5. 콘크리트 조인트 (2)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control joint는 一般的으로 덧대
木 또는 硬質 고무板으로 거푸집에 덧대어 콘크리트의 內
外部에 位置하도록 하여 콘크리트에 垂直홈을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外部에는 깊이 1 1/4 in (3.175cm),
内部에는 깊이 3/4 in (1.905cm)로 한다. 언제나 이 두개의
홈이 벽두께의 1/4과 같게 한다. 外部 홈은 變質되지 않
는 彈性 코오킹 폼파운드로 채우고 콘크리트에 調和되
도록 塗裝한다. 벽의 内部 홈은 테프를 붙여 마감한다.

Control joint 部分의 鉄筋이 構造的으로 重要하지 않
을 때는 Control joint 部分에서 水平 鉄筋數의 半은
끊어 놓는다. Control joint가 窓 또는 出入口 와 같은
開口部에 응접할 때는 規定 外의 配筋은 끊어 놓거나
또는 全量을 끊어 놓는다(그림 6 參照)

벽돌造 建物에도 Control joint가 필요 하다. 벽돌面
은 계절 치장으로 할 때가 많으므로 구조용 콘크리트보
다도 大氣에 더욱 露出되는 경우가 많아(그림 3 참조),
體積 變化가 原因이 되어 繼續的인 龜裂이 發生하는 結
果를 가져온다. (두 材料의 溫度에 依한 팽창 계수 差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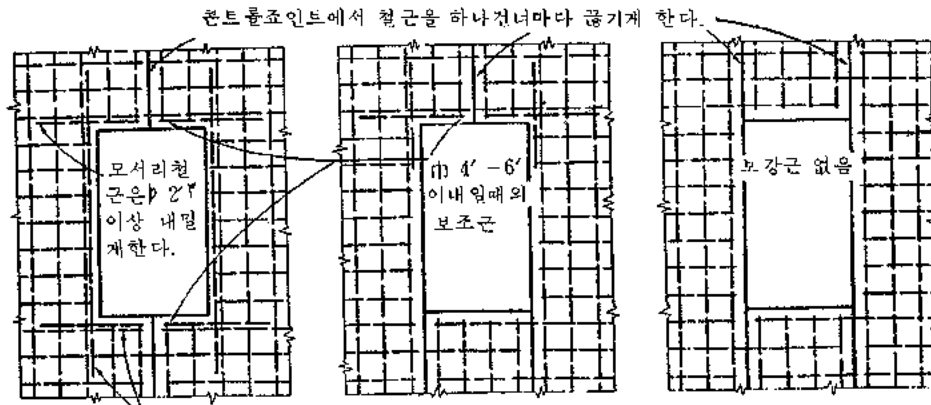


그림 6. 콘트롤 조인트가 있는 개구부 주위의 배근

파라넷트에는 control joint의 간격에 特別한 規定이 힘들고 모서리 부분에서는 10ft (3.048m) 以內에 두
고 나머지 部分은 20~25ft 間격정도로 한다고 crane
氏는 그 著書에서 提案 했다. 또 이 joint는 벽돌을 쌓을
때 joint 部分을 미리 매어 쌓기로 하거나 쌓은 후 組積
工事に 톱 (masonry saw)으로 잘라 分離 시킨다.

6. 施工줄눈 (construction joint)

施工 줄눈은 施工 過程에서 不得已하게 水平 또는 垂直
方向으로 이어져 생기는 줄눈을 말 한다.

이 줄눈은 設計할 때에 미리 정하여 줄눈 동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紀行文 (3)

建築士가 본 유럽

羅 永 均

東新建築 羅永均綜合設計事務所

9月10日

스위스 제네바.

美國의 뉴욕을 떠나 장장 8時間의 비행에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Swiss Air Line을 처음 탔다. 500座席이 빈자리가 없이 꽉 찬 것이 美國을 旅行하고 돌아오는 유럽사람이 많은 타인것을 알 수 있다.

中國의 작은나라 Siwtzerland의 작은 都市 Genva이고 보니 空港도 작다.

入國수속도 여권을 확인 하는 것으로 끝나며 짐조사도 하지 않는다.

Hotel에서 나와 대기중인 Bus를 타고 Amat Carlton Hotel로 가 여장을 풀었다.

房부터가 미국과 달리 작은나라 조용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시켜 준다. 작은 방이지만 家具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있으며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까지 딸려 있는 것으로 보아 독신 아파트로 겸용할수 있는 호텔인 것 같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로써 유럽의 여러나라 중에서도 여러가지의 특성이 있는나라 모두 가치있는 대상이요 가슴을 부풀게하는 대명사들이다.

먼저 유럽의 자봉이다. 지리적 구조로서 유럽을 덮고 있는 알프스의 가장 중심적 험준한곳에 위치한다.

해발 4,000m이상 높은 봉으로 온통 둘러 쌓여있는 곳.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에 이어지고 페나인 알프스와 베르너알프스에 닿았으며 론 계곡을 지나면 핀시메라르호은, 융프라우, 아이거, 배타호른에 접하며 레만호의 남쪽으로 리기 피토라스, 단유미디의 산봉을 거느리고 동쪽으로는 글로스글로크너에 연하고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이태리 서쪽으로는 불란서 북쪽으로는 독일에 쌓여 있으며 고유의 言語가 없이 독일어(74%) 불어(21%) 이탈리아어(5%)를 공용하고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人口 약650만,

일년 내내 백설이 덮혀있는 알프스山과 草木으로 물들어 있는 계곡이며 빙하의 녹은물은 수정처럼 맑게 흘러 푸른물이 가득한 호수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눈이 종와 눈길을 따라 가노라니 산이요, 산이종와 산길을 따라 더듬어가니 산이었다. 그산은 철학이 있었고 엄숙한 자연이 있었다. 또한 한없이 포근한 천사의 가슴이요, 그윽한 아름다움이 있는 낙원이었다.

흔히 산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예찬한다. 사람은 산과들에서 태어날기에 선천적으로 산을 종와하나다.

그래서 山은 등경의 대상이고 정복의 만족감을 주는 모양이다.

몽블랑 거리.

제네바市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며 유명한 은행과 상점, 특히 시계점이 즐비하게 있으며 제네바 교통의 중심지인 코르나반 역전 광장에서 레만호까지 통해 있는 큰거리다. 이곳에서 제네바의 전부를 볼수있다고 하면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건축물은 4, 5층정도의 건물들로서 작으마한 규모로 우리 서울의 영등포 정도로 생각하면 비교가 될 건물들이나 이곳에서 건축에 관한것은 신경쓰지 않기로 하고 일반 관광이나 착실히 하기위한 나름대로의 바쁜시간이다. 꽃으로만든 시계가 있고 그 주위를 작은 공원으로 보면 되겠으며 레만호에서 100m나 올라간다는 분수의 물줄기가 높이 솟아 오르는 모습또한 장관

이며 깊은호수, 조용한호수, 맑은호수, 아니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호수,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호수라고 할까

호수가에서 빵 조각을 뿌려주고 있는 할머니와 빵을 받아먹고있는 백조떼, 물오리떼, 그 틈으로 날라와 뺏어먹고 달아나는 물새들의 모습까지를 넋을잃고 쳐다 보다가는 나도 한주먹의 빵을 얻어서 뿌려줘 본다. 물고 달아나다 떨어뜨리면 다른놈들이 다시 쫓아가는 모습들이 풍경을 보다가는 좀더 들어가서 보고파 레만호의 유람선을 탔다.

배는 끝이보이지 않는 레만호를 떠벌리 갔을때 눈앞에古城이 닥아온다. 호수의 바위섬에 묘하게 건축한「시용성」이다. 육중한 고풍이 한결 인상적이다.

유령이 나올것도 같고 꽃같이 아름다운 공주가 창문을 열고 손짓할것도 같다.

레만호에 버친 한쪽에 아름다운 그림이다. 시용성(Chateau de Chillon)은 성베르나르 고개의 가도를 지키기 위한 성채로 세워졌다가 그후 13세기에 시용의 司敎에 의하여 現在의 모습으로 改築되었다한다. 그러나 7~800년이 넘는古城인것이다. 그뒤 사보이공의 城으로 되었다가 천재시인「바이론」이 이곳을 무대로 시를 쓴이후부터 일약 유명해졌다.

바이론은 종교개혁의 여파로 사보이공에게 체포되어 이성에 갇혀있던「프랑소아 보니발」을 주인공으로 하여「시용의 囚人」이란 시를 썼다.

그후 시를 아는지나 바이론을 아는지들에게 시용성은 꿈의 대상이 되었다. 그 시용성도 후의 태양이 너무 밝아서인지 고색이 창연하게 침침한 성채를 풍기는것 같다.

뱃머리는 다시 거슬러 부두에 닿았다. 배를 내려 몽블랑교 바로 옆에 있는 루소섬을 찾아보았다. 몽블랑교 대교열의 베르크코를 연하여 조그마한(한강의 여의도정도)선이 스위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루소의 동상이 있는 곳이다.

택시를 타고 일행 몇명이 팔레·데·네이션(Palais des Nations)을 찾아 보았다.

레만호를 우측으로 끼고 몽블랑하안을 따라 조그마한 언덕길에 오르니 순백색의 장엄한 전물이 나타난다.

1937년에 국제연맹 본부로 세워진것으로 현재 UN의 유럽본부로 쓰이고 있다. 앞 정원에는 국제연맹 창설자인 미국의 대통령「윌슨」을 기념하기 위한 천체의가 장식되어있다.

내부를 보지못하고 외형만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이곳저곳을 다 보아도 깨끗하고 평화스러운 아늑함이 깃든 자리임은 틀림이 없다.



스위스 백조의 호수

해발 4807m의 Mont Blanc

Bus를 타고 20분정도 가니 스위스의 국경이 나온다. 여권만 보여주고 육로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땅으로 달려가는 그 기분을 또 어떻게 표현해야 적당한지 모르겠다. 비행기를 타고 넘는것과 우리 고속도로의 표사는곳과 비슷한 시설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남북의 관계를 상기시켜준다.

한시간정도 산길을 꾸불꾸불 돌며 험한길을 통과한다. 자동차의 속력이 감속되는것을 보아 높은 계곡길인것 같다.

앞에 보이는 산도 우측, 좌측에 보이는 산도 모두 눈덮인 산이니 전부 몽블랑으로만 보인다.

두어시간만에 몽블랑의 입구 샤모니에서 하차했다. 샤모니에서 바라보이는 저기저 봉우리가 저것이 몽블랑이라한다. 저기까지 우리가 오를수 있다니!

생각만해도 꿈이 아닌가 싶고, 20分間 여유가 있는 Cable Car 승차권을 사놓고 추위를 견딜 복장의 준비도 없이 왔기에 잠바라도 사입으려고 하니 서울잠바의 10배에 값이니 사입질 못하고 아무리 춥다해도 견디고 참자고 다짐하며 드디어 Cable Car는 Mont Blanc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이 Cable Car이지 Elevators나 다름없이 수직상태로 올라간다. 속력도 대단히 빠르다. 현기증과 두중력감을 일으키게 한다. 허나 현기증 정도는 아랑곳 없다. 이것이 지구를 내려다볼수있는 천당이다 하는 기분 천당애를 올라가는 기분이 현기증과 추위정도는 충분히 이겨 낼 정도다.

중간 역인 해발2308m의 Plande l'Aiguille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바꾸어 타고 또 계속 오른다. 4807m의 몽블랑이 가까와 오는것도 감격, 황홀하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올라오니 내려다 보이는것은 구름 뿐이요. 구름위에 솟아있는 산, 뾰족한 돌산, 그산의 뾰족한 부분의 예는 눈과 어름. 그리고 구름.

분간하기조차도 힘든 풍경이다. 케이블카의 무서운 공포증. 추위 겹쳐서 무서움 속에 덜컹덜컹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다 감았다. 잠시후 눈이 떠진다. 아무일없이 케이블

카가 벗어있고 문이 열려 하차하고 있다. 터미널에 닿는 소리에 놀랐던 것이다.

3842m의 Aig du Midi에 도착한것이다. 이곳 듀미디 침봉은 한마디로 말해서 돌로 뾰족한 석탑을 만들고 그 석탑의 가느다란 정상에 바로 듀미디 영봉이다. 나무도 없다. 넓이도 없는 바위만이 앙크린 석벽에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 무슨수로 케이블카의 중간역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최초로 발을 붙이고 석벽에 몸을댈수 있었을까? 과학의 힘으로, 였을까? 인간의 의지로 이룬것일까? 분명 침봉의 중간역은 그공사가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진다. 보편적인 건축기술의 이해로써는 불가능한 대답 뿐이다.

장한 「인간의 새발견이다」

듀·미디의 따끈한 커피한잔에 얼어있는 몸을 녹이고 다시 4인승 케이블카를 바꾸어타고 몽블랑의 정상에 가로 놓인 빙하를 건너 정상에 오른다.

4807m의 Mont Blanc인것이다. 허나 다시 듀·미디로 내려와 이곳의 전망대에서 몽블랑을 쳐다보는 그 경치만이 인간이 볼수있는 최종의 극치인것같다. 추워서 떨며 두 주먹을 꼭쥐고 서서 사진을 찍으며 산소가 부족한 탓인지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곤란하고 귀까지 아프다. 말소리도 잘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오래오래 있고싶지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허나 올라올때의 부푼감정은 사라지고 공포증이 생긴다. 올라오긴 했어도 케이블카의 가는줄에 몸을 맡기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꿈만같다.

그래도 단체행동은 개인의 공포증도 제거해 준다. 내려가는 Cable Car를 탔다. 내려오면서도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잠시도 눈돌릴 틈이 없다. 허나 Cable Car에는 50餘名이 타고 있는데 어떤 老婦人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극치의 자연 풍경에 감성표현은 노래가 최고인것 같다.

부인의 곡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쳐준다. 다음은 누구의 선창인지 우리一行은 애국가를 합창했다. 우리 애국가가 끝나니 모두들 박수를 쳐준다. 미국인에게 한국의 애국가라고 설명을 해주니 또한번 박수를 쳐준다.

몽블랑의 자연극치에 우리 애국가를 부르며 신비한 하늘나라를 다녀 내려오는 선녀의 기분도 우리下山하는 기분과 통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아니 이번 세계일주의 여행에 건축공부하는것은 완전덤이고 미국에서 디즈니랜드와 나이야가라 폭포를 보고 여비의 쑤은 연였으며 오는 이곳 몽블랑을 바라보고 萬年雪의 신비와 빙하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여비의 쑤은 연였으니 이제부터의 남은 여행은 덤으로 얻은 여행이라고 해서 전부가 맞는 말이라고한다.

겨봉의 영상을 안은채 산을내려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에 비쳐진 낙조를 그린 레만호를 바라보며 숙소에 담았다.



듀미디 침봉

숙소에 돌아와서도 몽블랑을 오르기 전에 듣던 설명을 되새겨본다.

샤모니는 몽블랑의 만년설의 신비가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름도 없는 산간의 촌락이었다 한다.

유럽의 지붕이요. 신파용이 살고 있다는 알프스의 영봉 몽블랑이 1786年 8月 8日 몽블랑산밑에 살던 의사「가부리엘·삐까르」와 수정을 캐던「작·바르마」가 처음 정복을 하면서 유럽은 벌집을 쑤서놓은듯 흥분하였고 그로부터 샤모니는 몽블랑을 오르려는 알피니스트의 발걸음으로 발새는줄 모르게 되었다고한다.

이렇게 유명하여지게 되어있고 분비게 되었다고 한점 수궁이 가고도 남는다.

스위스는 천험의 땅을 향유하며 이를 잘 개발하여 세계의 공원으로 선전하고 또 선전을 실체화 하기위하여 정치적으로는 영세중립을 표방해야할 당위성이 있는가 보다.

스위스의 밤도 저물어가고 다음행선지를 위해 꿈은 달려간다.

9月12日

블란서 (French) · 파리 (Paris)

유럽문화의 중심지인 파리를 舊都로 갖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文化的 전통을 자랑하는 블란서는 自由, 平等, 博愛의 零團氣가 넘쳐흐르는 共和制의 先驅的 역할을 해온 나라이기도 하며 藝術의 나라요 고도로 發達한 文化國이지만 거기에 더한것은 觀光의 나라이기도하다.

유명한 루우브르 박물관의 미술품보다도 관광객의 대열이 더욱요란하게 보인다는 한가지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드나 들고 있는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를리 공항에서 내려서 근처에 있는 Holiday Inn Hotel에 여장을 풀고나니 市内가 약 15km된다는 먼곳이 되어 많은 불편을 갖게 되었다.

첫째 言語소통에 몹시 고생을 했고.

둘째 택시를 탈때마다 바가지 料金에 神經을 곤두세웠고.

셋째 食事때 마다 물을 별도로 사 먹어야 하는 不便에 다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점.

그러나 이곳에서 姜錫元氏의 案内를 받으며 市内의 이곳 저곳을 고루 보게 되었다는 것을 천만 다행이 있으며 제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姜錫元氏를 잠깐 소개하면

韓國人으로서 유일한 파리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요. 우리 一行中 李種完氏와는 弘大 同期同窓이고 李京鎬氏와는 서울工高 同期同窓인 關係로 파리에 서도 유명한 姜 규송 (Gh Pingusson) (現 85才) 씨의 秀弟子 4名 (프랑스人 3, 한국인 1)에게 設計事務所를 물려주어 現 4人이 合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三年間 設計를 해야할 業務가 계약이 끝나있다는 일이 그토록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부럽기 한이 없었다.

불란서의 設計事務所 실정이 점차 젊은 사람들이 큰일을 많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委囑하고 있는 실정이며 政府에서 用役을 출때에는 누구의 弟子냐 하는 先生의 이름으로 일을 맡기게 되는게 현실이라 하며

先生 姜·규송씨는 루콜비재씨와 맞겨룰수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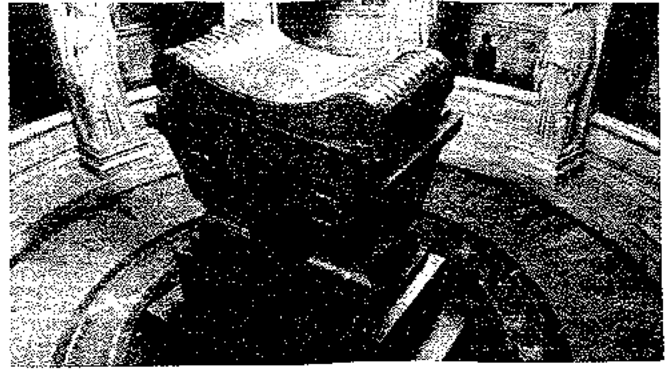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集合하여 에펠탑부터 보고 市内外를 돌기로 했다.

1887년부터 3년에 걸쳐서 귀스타브 에펠씨 (철교 전문 설계사)에 依해 建立된 塔으로써 現在는 파리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건립당시에는 사이요 궁과 함께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建築物이라하여 技士 에펠에 對해서 비난이 심했다고 한다.

원래 에펠탑은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세워진 것인데 「300미터의 불란서 깃대」란 에펠씨의 말이 전해지고 있다. 안테나 까지 포함하면 높이는 320,76m이다. 시간을 벌기 위하여 올라가지않고 아래에서 설명만 듣고 우리 전속사가 본 에펠탑의 신기한 점이라고 하면 구조체 전부가 주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장재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하는 궁금한 의문을 품고 보게 되었다.

다음 코스는 담에서 마주보이는 건물이 있어 그곳으로 걸어가니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라 한다. 군기가 세계에서 제일 엄한 학교로 유명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남은집으로 유물로 보존할 가치밖에는 아무 것도 없겠구나 하는 느낌.

미국은 발전하는 도시요. 파리는 퇴보하는 도시라고 누가 말했듯이 예술의 작품을 보관 관리하는데만 치중하다 보니 개축 수리를 함에도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市内 어느곳을 가보나 그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었다.



나폴레옹의 붉은 대리석관

파리는 分明 藝術의 都市이다. 그러나 늙은 도시이기도 하다.

파리의 市民은 惡에 차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불친절하기 한량없고 말대답 하는 것 부터가 신경질 적이다. 내가 타본 택시운전기사 전부가 그러했다. 택시요금은 市内料金과 번두리로 나가면 더 비싼 地方料金으로 계산되며 대기요금도 분명히 신호대기에서 까지도 요금은 계산되거니와 여가에다 Tip 까지도 가산 하여 받으면서도 친절이란 찾아 볼수가 없으며 英語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답답한 상태이다.

姜錫元氏의 案内로 다음코스인 앵발리드로 갔다.

앵발리드는 사이요궁 부근에 왕관을 연상시키는 높이 105m의 앵발리드 돔이있다. 원래는 루이 14세가 세운 폐병원 (廢兵院)이었으나 現在는 프랑스의 풍운아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곳으로 더 유명하다.

붉은 대리석관에 영원히 잠든 나폴레옹은 아직도 파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보다.

불란서의 일개 포병장교에서 황제에 까지 올라가고 불란서를 무질서에서 구하고 유럽을 통합하려고 알프스를 넘던 「나폴레옹, 보나파르」 그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자신력과 신념으로 불란서를 사랑하다가 엘바섬에 유배되고 세인트헤레나에서 죽기까지 풍운아요 애국자요 정열가로 군림하면서 유럽을 통치하고 호명하였으며 한때는 무한의 사치까지 목에 걸었으나 이제 그는 앵발리드의 돔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이 역사요 증거요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후손이 있고 인간은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1821年 St. Helena에서 죽은 나폴레옹은 「내가 사랑하는 불란서 국민속 센강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의하여 그의 死後 19年後에 파리로 무언의 개선을 하여 이곳에 잠들어 있다.

나폴레옹의 대리석관은 둥근 돔안의 중앙에 안치되어 있으며 이 台座 밑 鋪石에는 나폴레옹이 참전했던 전쟁터의 이름과 행적등이 새겨져 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 관의 주위를 한바퀴돌고 다시 2층까지 올라가 많은 유품과 기념하는 조각 작품들을 무수하게 돌아보고 마르니에 가로수가 우거진 골목길을 지나 몽·마르트르(montmartr)에 올랐다. 예술가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언덕이다.

테르드르 광장(Place de Testre)에는 유명 무명의 화가들이 제각기 화구를 걸어놓고 그림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관광객들에게 그림사기를 권하는 것으로 보아 무명화가들이 대부분인것 같다.

이곳을지나 몽·마르트르 언덕위에 있는 사크레쾨트성당(Basilique du Sacre Coeur)을 돌아보고 유래를 간단하게 설명들었다.

몽·마르트르의 역사는 기독교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명한 상·드니의 기적이 그것이다. 이 언덕에서 잘린목을 양손에 바쳐들고 몽마르트르언덕의 샘물에서 얼굴을 씻은후 6km쯤은 걸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최초의 이곳을 순교자의 언덕이었다고 한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다음 코스로 부지런히……

에트왈 개선문

1806년에 착공하여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쳐 완성된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이 탑은 에트왈 광장의 중앙에 서 있다. 높이 50m 폭 39m의 세계 최대의 개선문이다.

개선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는 유명한 거리인 샹젤리제를 걸어 내려 간다. 에트왈 개선문에서 뻗어 나간 열두대로중 가장 대표적인 거리이며 화려한 고급품을 파는 상점과 레스토랑 및 카페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각국의 항공회사와 여행사의 서어비스 점포등 각국의 관광안내 간판이 이채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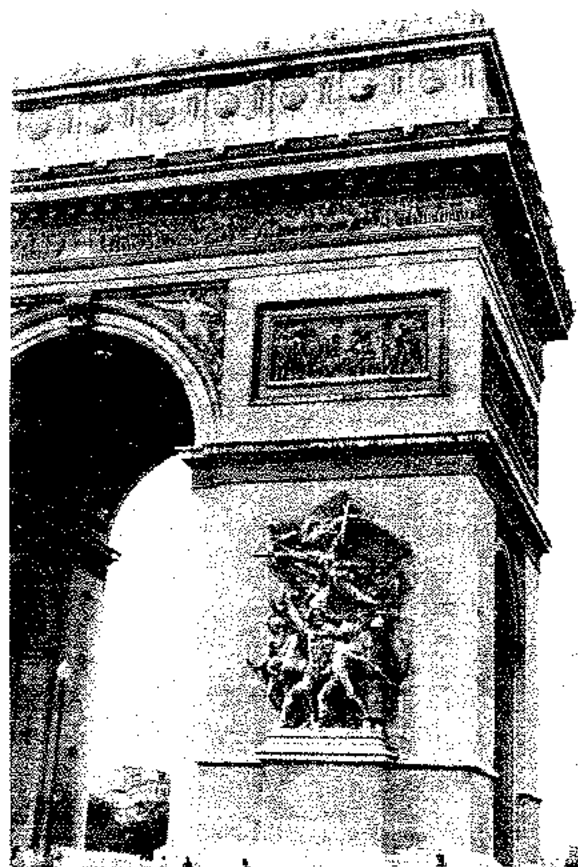
루블博物館

루블박물관에 도착하니 관광객이 너무도 많다. 주차장까지도 복잡하다.

어느 미술가는 루블박물관에 소장된 미술품에 매혹되어 보고 또 보기를 거듭하여 종래에는 파리에 아무것도 보지않고 루블만 보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러한곳을 무엇부터 얼마나 봐야하나?

루블은 지금 궁전과 미술관으로 구별되어있으며 최초에는 전투적 요새지로 군사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16세기에 루네쌍스 풍의 왕궁으로 개축했으며 그후 역대의 왕들이 계속 증축하여 파리 제 1의 전물이 되었다.

지금은 거의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 所藏品은 약20만여점으로 世界第一이며 고대그리스, 로마 이집트, 오리엔트 중세 르네상스시대의 조각품 회화미술품등이 전시되어있다.



에트왈 개선문의 부분

그러나 한시간여 동안 특히 유명한 밀로의 흰비너스상의 우아함을 보고 영원의 미소를 짓고있는 유리관속의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상과 「앵글」의 몇작품만을 보고는 集合을 하였는데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루블박물관의 변소시설만을 보고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저녁 호텔에서 물을 잘못먹은 탓으로 「설사」라고 하는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곳마다 便所부터 찾아보게 되는, 아니 급히 변소만을 찾는 변소 전문 建築士 李種完氏가 탄생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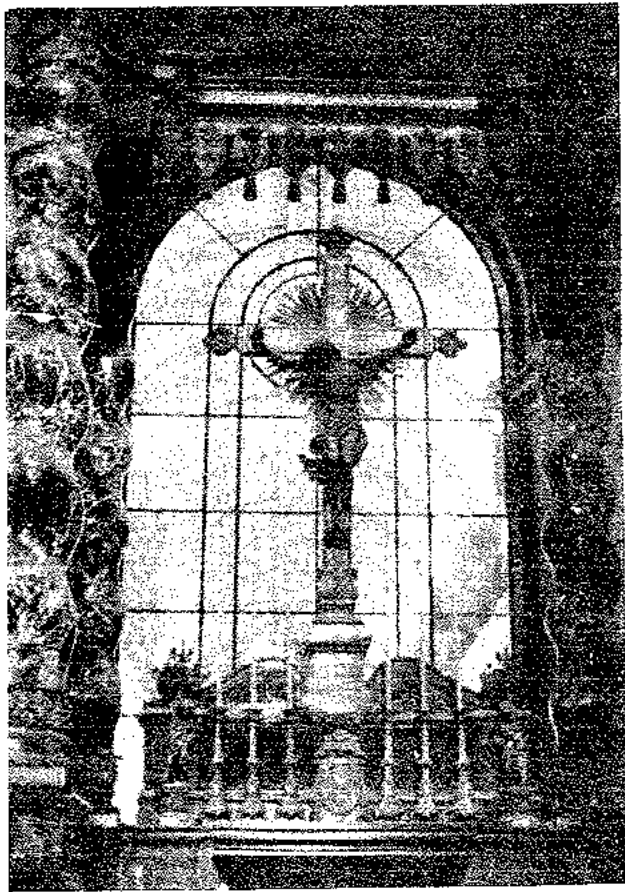
便所施設만을 正確하게 視察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一行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웃으며 기다려 준다.

다른 이유로 늦어졌다면 가혹한 벌금형으로 몇불의 미화를 받았을텐데.

서울에가면 어떠한 건물을 설계하게 되더라도 便所部分은 李種完氏에게 의뢰하자고 무언의 약속을 해본다……

더 보지못하여 아쉬운 마음만 남긴채 택시에 분승하여 세느(Seine)江邊을 따라 유람선창으로 갔다.

유람선에도 便所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李種完氏가 승선하였으니 낙오자 없이 一行 전부가 세느江을 한바퀴 물게되었다. 江邊의 수많은 建物を 보기에 분주한가 하면 그보다도 세느강을 따라 무수히 걸쳐진 다리(橋)群 다리의 하나 하나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다



쁜 모양을 하고 있다.

橋脚이나 난간에 이르기 까지 作品으로 이루어진 彫刻
品이 다리(橋)로 이용되고 있다고나 할까?

이런 다리를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建築物이 보이고 또
다리를 통과하고 나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인다.

9천명을 수용한다는 성당건물 중세기 고딕식으로 세워
진 예술품은 69m의 높이로 정면에 솟은 두개의 탑을 났
을 잃고 쳐다보다가 또 교량이 지나치면 다시 사진을 찍
기에 바쁘다.

파리는 뒷골목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던 대로변의 큰 건
물이던 건물의 어느 한 모퉁이던간에 예술의 작품으로 이
루어 지지 않은것이 없다고 표현하면 적당할것 같다.

유람선은 시테섬을 돌아서 올라오기 시작 하면서 부터
는 바가오기 시작하여 비를 피하느라 선내 2층으로 내려
와 창밖으로 내다 보게되었고 유람선은 계속 다리 밑으
로 흘러가고 있다.

헌데 배 안에서 젊은 인간예술품을 발견한것입니다.

젊은 男女 한쌍이 배가 출발하고부터 도착할때까지 줄
곧 입술을 맞대고 포옹을 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
고 있는 것이다.

젊은녀석의 입술은 루즈로 붙들었건만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전부 관심 없는 사람들이요 쳐다 보기도 않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네들의 여유(?)를 엿볼수 있을것만
같다.

이것은 비단 파리뿐이 아닌 먹고사는 문제가 기이끝난
美州, 유럽등지의 人間 藝術品의 강 난이라고 표현하고 싶
다.

파리 中心街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대사관 건물 修理工
事を 하고있는 現場을 보게됐다. 강석원씨의 설계감리로
시공되고 있으며 넓은 뒷마당 잔디위에 앉아서 좋은 설명
을 들었다.

외형은 옛모습을 살려야 하는 조건부터가, 施工費가 우
리 서울의 실정에 수십배가 소요된다는것, 설계비만해도
서울의 10倍以上 이니까.

이토록 많은 구경을 하고는 강석원씨의 집으로 초대되
여 가서 一行전부가 저녁대접 까지 후하게 받고는 나왔으
니 이 큰 신세를 어찌 다 갚을수 있을까 엄려 스럽기만
하다.

호텔로 돌아가기전에 샹젤리세의 야자관광을 했다. 바
로 파리의 쾰하 밀바닥의 실정이라고 하면 될것같다. S-
ex를 위한 점포, 아니면 쇼를 하는 술집등이 도열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며 그별씨한 선전을 하기도 한다.

파리의 교통수단인 택시, 버스, 전철, 배 등을 끌고루
다 타보며 하루 16시간의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
쉬게 되었다. 헌데 호텔로 돌아오며 老人 택시운전 기사
에게 또 곱쟁이 요금을 물고 나니 계속 바보노릇만 한것
이다.

내일은 아침부터 Orly Air Port에서 Bus를 타고 찰
스 드폴 공항으로 가서 London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하
는 날이기에 이미 늦은 時間이지만 잠자리에 들고나니 파
리의 일과도 다 끝난셈이다.

9月14日

영국 런던(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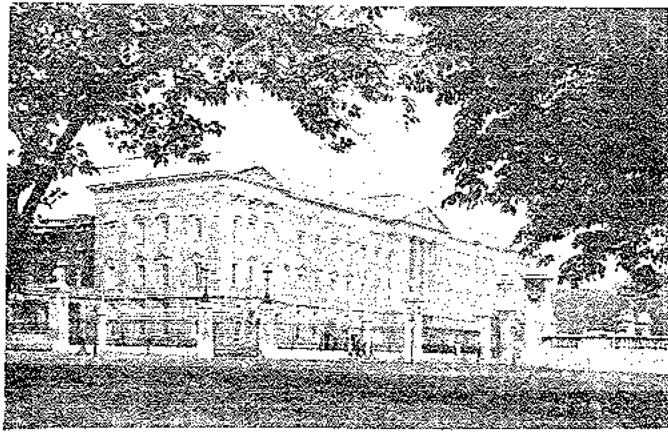
London Heathrow 공항에 13:00時에 도착했다. 영
국의 국제비행장으로는 유일한 곳이라하나 국제규모에 손
색이 없는 6개의 주활주로를 갖춘 큰 비행장이다.

서울에서 예약을 한 Imperial Hotel을 불란서에서 확인
하니 예약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통에 당황하여 위
치도 확인하지 못하고 전화로 어제 예약을 한 London
Esso Hotel로 찾아가니

市內를 벗어난 변두리에 위치한곳이다. 그래도 우리를 반
아주었다는 것이 고맙기만 하며 불란서에서 불천적 속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왔으니 영국의 첫 인상이 나에게는
너무도 좋기만 하다.

첫째, 택시 운전사의 친절함을 들수있고

둘째,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중간에 보이는 주택가의
비슷비슷한 모양의 2층집마다 꽃나무가 많고 창문앞
에마다 화분이 놓여있어 꽃을 사랑하는 나라.



셋째, 한마을을 지나칠때마다 잔디가 잘 깔려있는 축구장이 보인다.

넷째, 호텔에 도착하니案内하는 사람이 짐을 各房으로 갖다준다고 우리들은 손도 못대게 하는 친절을 보이더니 우리가 한국사람이란것을 알고는 자기는 캐나다 병원에 취직하여 한국 메디칼 센터에서 1年間勤務를 한적이 있다고 하며 서울을 잘안다고 반가워 해준다.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기까지의 짧은 시간에도 불란서와의 정반대이며 스위스의 조용하고 깨끗했던 인상과 일치되는것은 역시 꽃을 사랑하는 민족이란 점이다.

약 25만km²의 면적과 5,500만의 인구를 가진 영국. 한때는 「해지는 일이 없는나라」하고 사랑하며 지구의 약 1/4의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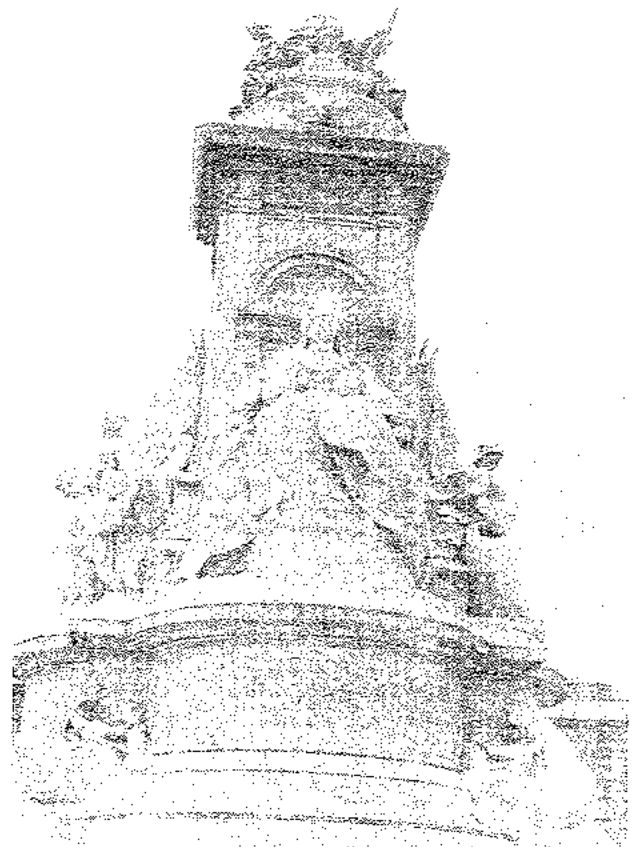
런던은 약 190km²에 인구 800만의 템즈강변에 자리잡은 고도로써 BC55년경 로마군의 침공으로 군영지로서 시작되었으며 10세기경 Danes의 왕 쿠르트가 정치의 중심지로 살아온이래 계속 영국을 지배한 모든 왕들이 대부분 왕도로 거처하였던곳이 런던이다.

전철을 타고 市内 中心地 Piccadilly Circus에가서 우산부터 사들고 비를맞는데 자신을 갖고 간단한 쇼핑을 18:00時까지 하고는 영국의 定食으로 저녁식사를 푸짐하게 하고는 다시 전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와 영국의 첫날을 일찍 쉬기로 했다.

9月15日

Bus한대를 대절하여 런던의 첫 코스로 버킹검궁전(Buckingham Palace)을 찾았다. 가랑비가 내리는 아침 버킹검궁전 위병 교대식이 불만하다하여 灰色의 古樓으로 늘어선 거리를 지나궁전앞 광장에 닿으니 먼저 금색찬란한 기념탑이 우리一行을 반기는듯 솟아있다.

현해리석의 좌대위에 금빛을 발하여 손을젓고 서있고 그아래에는 여왕을 둘러싸고 용기, 성실, 모성, 진실, 정의의를 나타내는 빅토리아여왕상이 있으며 그아래에는 사자들이 수호하고 있다. 그위에 4층건물이 버킹검 궁전이나 왕궁같지 않은 영국식의 평범한 건물이다.



버킹검궁전앞 빅토리아 여왕상

17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세인트·제임스(St. James Palace)궁에서 옮긴이후 역대 영국왕실의 궁전이다.

지금도 궁전 정면의 깃대에 왕이계시면 왕기를 게양하고 부채중에는 하기하여 시민과는 친근감을 더 유지한다고 한다.

오늘따라 군위병의 교대식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왔다가 돌아갈줄을 모르고 입초서 있는 군위병들만 쳐다보고 있다.

검은모자 붉은외투를 입고 나팔소리에 맞추어 교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기병대의 소대병력이 궁전앞으로 행군하는 모습만 보고 길거리에서 빵조각을 비둘기에게 주고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물려있는 바들기네. 그름에도 참새가 끼여서 부스러진 모이를 주워먹기에 바쁜모습을 보며 다음 코스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궁전의 외형으로도 평범하고 검소한 모습이 대영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영국민의 마음에 고향인가 하고 생각할때 국민과 밀접하고 국민속에 존재하고 사랑받는 군원이 있을 것같이 생각된다. 물론 궁전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과 연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생각에서 버킹검궁의 인상은 한마디로 생각했던것보다 소박하고 우아하다고 말하고 싶다.

불란서를 돌아보는동안 루블궁전의 웅장함을 보았고 벨사이유궁전의 장대함에 루이 왕조의 화려한 생활을 상상할수 있었으며 고궁의 어데서나 사치, 화려한 장식에 황

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화려함 뒤에는 국민의 피땀이 얼었고 원한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불만서의 전통 군주제는 소멸했고 영국의 군주제는 아직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세가 그들의 사는 궁전의 모습 외형만 보아도 알만하다고.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과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사원에 닿으니 영국의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물이라고 하는 사원 정면에 서쪽으로 두개의 탑이 한마디로 아름답게 보인다.

오랜 풍우에 시달린 흔적일까. 흑회색으로 피로해 보이는 모습같기도하고 한없이 장엄하게 보이기도 하는 상태다. 11세기에 건축하여 13세기 Henry 3세 왕이 다시 십자가 형으로 증축을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영국의 역대왕들의 대관식을 거행한다고 하며 본당 내부에는 왕족을 비롯하여 영국이 낳은 偉人, 名士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으며 영국의 제왕과 왕족들은 물론이려니와 과학자 뉴턴, 다윈, 음악가 퍼어셀, 정치가 그래드스톤의 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신락원의 작가 밀턴의 흉상이 있고 그 옆에는 롱펠로우의 흉상이 있다. 정열의시인 바이런의 묘비가 있고 부론테 자매의 묘비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國民의 거리를 좁히는 원인이 아닐런지?

寺院을 나와 국회광장(Paliament Square)을 걸어본다.

現在の 建物은 1852년에 建築한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寺院과 더불어 고딕식으로 지어진 영국 최고(最古)의 제일 아름다운 建築藝術品이라고 한다.

北쪽으로는 국회의사당의 상징이라 할수있는 Westminster Tom이 서있다. (一名時計塔)

고딕식의 塔은 높이 96m이며 외부의 時計와 연결된 거대한 時鐘이 걸려있다. 무게가 13.5Ton의 거대한 종이 유명한 빅벤(Big ben)이다. 15분마다 時鐘이 울리며 현재 영국의 BBC방송에서 時鐘으로 使用한다.

템스江을 옆에두고 국회의사당 Westminster Abbey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디즈레일리」 「그래드스런」 「처칠」 등의 동상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동상이 미래의 역사와 정취를 지켜보는듯 서있다. 바로 웅장하게 보이는 고딕양식의 대건물이 국회의사당(Huse of Paliament)이다. 세계의회정치의 표본을 이루고 700년의 전통을 갖은 민권의 전당이 바로 눈앞에 있다.

역시 民主主義의 産室인 英國에 民權殿은 무한한 장중함을 간직한채 후세에도 빛이나라.

大英帝國 博物館

본박물관은 그 규모가 거대하여 전문가가 아닌이상은



3~4일이 걸려야 다 볼수있다고 하나 아예 한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보고픈것을 본후 집합하자고 했다. 대영박물관의 지보는 엘진 대리석(Elgin Marbles)이라 한다.

이것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Pediment, Metope, Prieze, 등의 조각군을 수집하여 원형의 특성을 살려서 전시한것이다.

또한 이집트의 각종 석상을 그 크기에 상관없이 운반하여 전시한 모습은 그들의 수집욕에 일단 경이로운 마음이 든다. 에집트실을 잠깐보고는 나와서 느낌이 있다면,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우리는 소홀히 다루는 예가 많았는데 이곳 대영제국 박물관에서는 천대받는 전통까지도 곱게 전시하고 수집하는 수고의 념을 고맙게 생각하기로 하고 화이트 타워를 돌아 불러디 타워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영국왕실 소유의 보석을 진열하였다는 Jewel House에 들어가 보니 보초가 서있고 보석이 진열된데 경비가 엄중하다. 1m간격으로 한명씩 경비원이 서있으며 한참 들여다보면 그만보고 가라고 밀어내는 程度이다.

유명한 몇가지만 소개하면 1838년 빅토리아 女王·대관식에 사용하였던 Imperial State Crown이 3천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천문학적 가치로 우아함을 나타내고 안치되어 있는데 그의 많은보석중에서도 317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제란 크기의 루비는 가장 뛰어난 것이다.

또한 왕홀에 박혀있는 530캐럿의 다이아몬드와 함께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것이다.

왕관의 고귀함을 보니 보석이 진열된 室門이 은행의 금고문과 똑같은 시설로 되어있고 삼엄한 경비에 수궁이 잔다.

타워를 한바퀴돌다 The City를 방문했다. 전통을 사랑 하는 런던중의 런던 더시티는 성·바울(St. Paul)대성당을 中心으로 2.6km²의 地帶를 말하는 곳으로 이곳이 最初 런던의 발생지이며 現在도 세계 금융의 中心地이기도 한 곳이다.

建物の 大部分이 2~300年前에 建築한 銀行 保險會社 등이 古色蒼然히 느러선 모습에서도 사치하지 않고 육중한 습관의 일면을 보는 듯하다.

차는 나시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 화이트홀 서쪽의 官庁街로 向한다. 런던의 어 데서나 볼수있는 평범한 길에 평범한 건물들이다.

파리의 엘리제 궁처럼 유별하지도 않고 와싱톤의 관청가처럼 중후하지도 않다. 비슷한 건물을 몇구역 지나 차는 십자가 보이는 문이달린 집앞에섰다. 이곳이 大英帝國을 다스렸고 지금도 世界政治舞臺에서 입김을 서리는 영국수상의 관저인 것이다.

다우닝과 10번지가 바로 이곳이다. 18世紀 初 당시의 수상 볼포울 이래 그래드스톤(J. H. Gladstone), 로이드·조지(L. George), 체임벌린(N. Chamberlin), 처칠(Churchill) 등 世界史에 이름을 남긴 영국의 명제상들이 살던 곳이다.

영국의 왕성에서도 느낄수 있는 친밀감을 다시한번 발견하였다. 정치를 하는 집정자들은 국민의 위임된 대표이기에 국민속에 파묻히면서 진실을 알아내고 현명한 정책을 자아내어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자신있게 선도하는것도 이와같이 평범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根本이 있었나 보다고 수긍이간다.

즉 다우닝과 10번지 수상관저의 평범한 거처를 보고 위정자를 믿지않을 국민이 있을수 있겠는가? 대중과 더불어 호흡하는 속에서 政治의 이상과 국민과 함께 존재한다는 정치이념이 생기는 모양이다.

영국의 民主主義가 마냥 부럽기만하다. 감개를 안은채 어둡고함께 Bus는 숙소인 LONDON Esso Hotel로 돌아왔다.

산업혁명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롤스로이스의 전통을 비싸게 팔출도아는나라, 신사의나라며 왕의나라에서 좀더 체취를 길히 이해할 틈도없이 내일은 Belgium의 Brussels로 가야 한다는 고된 여행을 생각해서 쉬지 않으면 안될 시간에도 두꺼비 한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사다 달라고 달라를 내놓고 부탁하는 李段學氏의 말에 一行은 목소를 터트리고 비행기에서 사놓은 양주나 들자고 하여 가랑비를 종일 맞으며 고생스러운 구경에 지친 몸에 양주 한잔이 활력소가 되길 빌며 마셔준다. 변소설계 전문가는 오늘도 변소설계에 바쁘다 보니 그 한잔의 양주도 마다하여 여행중의 몸의 피로움을 당할때의 심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은 이해 못할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으며 오직 이해할수 있다고 하면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

는 者자일것이라고.

영국을 떠나게 되면서 예전에 들던 말을 생각해본다. 불란서는 여자를 위한 나라이고 영국은 남자를 위한 나라라는 말, 그말 처음 누가했는지 틀림없는 말이었다고 증명하여 주면서…… (계속)

9月16日

Belgium의 Brussels

London Heathrow Air port에 9:00時에 도착하여 출국신고서 대신 Brussels에 入国申告書를 제출하고 짐 조사도 하지않고 화물은 들어가고 휴대품만 간단히 자동 기계로 조사를 하고는 너무도 간단한 수속에 우리 국내 비행기를 탑승하는것 보다도 더 수속이 편하니 오히려 이상한 감으로 탑승을 하였으며 10:20時에 이륙하여 약 40分間の 비행후 Belgium(벨기에)의 首都 Brussels에 도착한 것이다. 유럽을 공부한 우리들에게 벨지움하면 펍크크게 부각되나 면적은 고작 3만km²를 적우 넘으며 人口는 1천만명에 불과하다. 지금 유럽 경제의 연합체인 EEC(歐共市)의 本部가 이곳에 있으며 NATO(北大西洋軍事同盟)의 司令部가 있다. 더욱 近來 우리나라의 海外進出이 두드러져서 遠洋魚業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선원들은 벨지움의 국제적 港口인 안트워퍼프(안베르)市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곳 역시 영국과 근접해서인지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 몹시 서운했으나 비정도의 장애물은 제치며 강행군을 할수있는 실력양성은 이미 미주에서 끝낸 후이니……

이곳에도 쇄도하는 外國觀光客과 國際會議가 잦은關係로 호텔 예약이 펍 어려워 市内中心地이긴 하나 古色蒼然한 Cecil Hotel에 여장을 깔았다.

223호室에 李種完氏와 함께 짐을 풀어 옷장에 옷을 걸며 정리하다가 옷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훑어봐도 신기한 정도의 房이다. 15~6世紀에 建築한 것인지 家具一切가 골동품에 속하는 것이다.

TV는 물론 라디오 하나 없으며 Bed도 크기와 모양 모두가 房마다 다르다. 浴室에 浴槽는 작은 가족이 함께 들어가도 될만큼 적은 대중탕만 하나짜.

엘리베이터를 타고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움직 이는가 하면 문도 열고 타고 열고 내려야 하는 처음보는 Elevators였으니까.

市民들의 모습은 펍 건강하고 명랑하게 보이며 친절하다. 言語는 대부분이 불어를 사용하니 의사가 활활히 통하기가 어려웠다.

벨지움은 王이 국가원수인 입헌군주국으로 유럽 에서도 선진공업국으로 경제 문화 사회가 안정된 곳이다.

1時에 集合을 하여 中國食堂을 찾아가 午餐을 푸짐하게 하고 午 Bus를 타고 市内를 돌아 보기로 했다.

市内 어테를 보나 中世紀(15세기) 프랑스로 고딕풍의

교회도 여러곳에서 볼 수 있으며 旧市街地는 중세 풍의 건물들이 차분히 자리잡고 있다.

바쁜 스케줄에 따라 여러곳을 보아야 되므로 부지런히 市街地의 유명한 곳을 돌아 보았다. 제일 먼저 그랑플라스 광장으로 갔다. 브러셀의 중심지이다.

15세기 고딕바로크풍의 건물로 반듯하게 4각 광장을 이루고 있다.

광장의 북쪽에 고딕스타일의 市庁舎가 자리잡고 맞은편에는 왕의 집(Maison de Roi)이 있으며 좌우의 건물은 Guild house(協同組合)가 있다. 세제의 문호 「빅돌 · 위고」는 이곳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한다.

사이에 자리한 우아하고 근엄한 건축물이 중세기의 변용을 소라없이 증명해 주고 있다. 단조로운 현대식 건물에 비하면 500여년전의 건축물에 장중함을 저절로 삼탄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도금술 한 호화로운 조각의 장식 건물에 발걸음 돌려 100여m를 걸어 길모퉁이에 觀光客 유선한 곳으로 갔다. 이곳이 유명한 “오줌누는 동상”(Manneken pis)이 있는 곳이다. 크기 두자도 안되는 조그마한 동상이 우리눈에는 별로 신기할 것이 없으나 꼭 지켜야 하는 기념물이라 한다. 자연인즉 옛날 市長의 아들인 어린 뱀장불명이 되어 市民이 총 동원되어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른들의 걱정은 아랑곳 없이 천진한 모습으로 길모퉁이에서 오줌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동상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옛날 궁중의 풍습과는 꼭 달랐을 것이라는 면을 보는것 같다.

市民과 함께 生活하고 市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市長이였기에 市民이 흡心하여 아이를 찾고 또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 기념 동상을 세웠으리라 생각된다.

市内에서 고풍을 자랑하는 노트르담(Notre Dame de la Chapelle)聖堂을 찾아 보았다.

파리의 노틀담 寺院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지만 교회는 하나의 예술품임에 틀림없다. 내부는 로코코풍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스페인의 아로나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고적이 카톨릭 성당이듯이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미셀 · 퀴릴聖堂(Cathedral St. michel et Gudule)의 장엄한 모습은 실로 웅장의 極致라고 하겠다.

이 聖堂을 完成하는데 4世紀가 걸렸다 하니 고개가 우뚝해진다. 고딕식 석조 건축물은 인간의 힘이 무한함과 건축예술의 무궁함을 증명해주는 산증거물인것 같다.

성당의 본당과 탑은 13세기부터 15세기 걸쳐 完成했으며 성당은 16~17세기에 건축하였다고 한다. 正面의 스테인드 그라스는 빛의 조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부러셀의 최대의 건물이라고 자랑하는 최고재판소(Palais de Justice)를 둘러 보았다. 一名「매머드」라고 부른다.

큰 건물이라는 뜻이다. 1863년부터 1883년간에 걸쳐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레코 로마풍의 건물로 유럽 최대의 건물이라고 하며 돔의 높이가 115m에 달하며 27개의 법정과 245개의 방이 있다고 한다.

유럽의 文化나 建築樣式이 그리스도교적 공통성이 있는가 하면 國家, 地方에 따른 서로 相異한 點과 特徵이 모두 다르다는 點도 아울러 觀學할 수 있게 된것 같다.

남쪽으로 約20余km 가서 「위털루」라는 곳へ가서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英國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과 싸워 최후를 맞이한 유서깊은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Bus는 호텔을 향하고 있다.

남쪽으로 라틴계열의 강국이 있고 북쪽에는 게만족이 버티고, 동쪽으로는 색슨이 군림하는 속에서도 민족과 땅을 지키기 위한 모습과 유적을 市内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작은 나라치고 방어와 자기 보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무장을 한 용감한 市民은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공원이나 곳곳에 유명한 장군들의 웅장한 동상을 흔히 볼 수 있는것도 브러셀의 특징일것 같다.

벨지움의 일반관광지로는 오스텐드를 중심으로 북해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뱀학의 삼림과 구릉, 신비적인 동굴과 산업중심지를 이루는 동부의 리에제와 그 부근에는 온천지 스파(Spa)가 있다고 하며 寺院의 침탑이 높아 솟아 있는 여러 도시와 루벤스등 거장의 명화를 소장한 미술관등이 있으나 다 돌아보지 못하고 부러셀의 2박 3일도 바쁘게 끝나고 덴마아크의 코펜하겐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建築法規 問題 解説 (4)

建設部

韓奎峯

지난 5月号 부터 연재하기 始作한 「建築法 質疑応答」은 6회에 이르는 동안 70種의 質疑에 對한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과 解説을 게재하였다.

「建築士誌」를 통하여 “質疑에 對한 有權解釋”의 內容을 紹介한 때문인지 近來에 對해서는 質疑의 件數가 많이 줄어 들었고 從前에 紹介한것과 그 內容이 같거나 類似한것들이므로 每号에 게재할만한 分量이 안되는 것을 忖이나 多幸하게 생각하며 이번달 부터는 一般的인 問題解説과 같이 質疑応答內容을 紹介하려고 한다.

지난 11월호에 「道路와 通路」라는 題目으로 住銀 韓 鼎燮 技術部長님이 쓰신 글은 建築法에 對한 建築人 相互間의 協助과 意見 교환으로서 有益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같은 機會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3) 避難施設로서의 階段

避難階段, 特別避難階段 및 直通階段은 前述한바와 같이 避難施設로서의 重要性에 따라 設置하게 하는 것으로.

- 特殊建築物 中 火葬場・屠殺場・진에 및 오물처리장
- 과
- 一般建築物(特殊建築物이 아닌것)中 2層以下の 建築物과 延面積 1,000M² 未滿의 建築物은 適用 對象에서 除外된다.

① 直通階段

避難層이 아닌 層에 設置하여야 할 直通階段은 對象 建築物 어느 것이거나 1個所 以上이어야 하며 建築物의 用途와 主要構造部의 마감 材料에 따라 居室로부터 1個의 直通 階段까지의 步行 距離가 (表 17-4)의 基準以下가 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建物の 規模와 階段의 位置 등으로 直通階段의 數를 決定하는 規定과 (表 17-4)

에 適合하더라도 2個 以上の 直通階段을 設置하여야 하는 規定이 있다.

表17-4

構 造 居室의 種類	主要 構造部가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인 경우	其他의 경우
百貨店의 賣場	30(M)	30(M)
病院・호텔・旅館・共同住宅 ・寄宿舍其他 이와 類似한用 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該當 用途에 쓰이는 居室	50	30
上記 居室 以外の 居室	50	40
(註) 다만,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 또는 不燃 材料로 된 4 層 以下の 建築物로서 居室 및 居室로 부터 地上에 通하는 主된 복도・계단 기타 通로의 壁 및 반자의 마 감을 不燃 또는 準不燃 材料로 하는 경우에는 위 數 值(距離)에 10M를 加算 算.		

② 2個 以上の 直通階段 設置

(表 17-4)의 規定에 適合하게 계단의 數가 決定되어
야 함은 勿論이지만 (表 17-4) 規定에서 하나의 直通
階段으로 充分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個
以上을 設置 하여야 한다.

(가) 劇場・映画館・演芸場・觀覽場・公会堂・集會場
・百貨店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

(나) 병원 및 진료소 用途의 層으로서 그층의 병실바
닥 面積이 50M² 以上인 것.

(다) 호텔・여관・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類似한 用
途의 層으로서 該當 用途로 쓰이는 居室의 바닥 面積의
合計가 100M² 以上인 것.

(라) 위 (가) (나) (다)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層으로
서 그 層의 바닥 面積의 合計가 100M² (피난층의 直上
層과 地下層에서는 200M²) 以上인 것.

(마) 위 (가) (나) (다)와 복합 용도가 아닌 建築物의
層으로서 그 層의 居室 바닥 面積의 合計가 150M² (피
난층의 直上層과 地下層에서는 200M²) 以上인 것.

③ 避難階段과 特別避難階段

前述한 直通階段을 避難 特別 또는避難階段의 構造로 하
도록 하는 規定은 大別하여 百貨店(類似한 用途의 것
을 包含)의 경우와 其他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層數
에 따라 規定을 달리 하고 있다.

(가) 百貨店의 경우

• 3層 以上の 層을 百貨店으로 使用할 때에는 各層의
販賣場과 屋上 広場으로 부터 2個 以上の 直通階段을
設置하고 3層과 4層일 때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構造로 設置하여야 하며 5層 以上일 때에는 이
中 1個以上을 반드시 特別避難階段의 構造로 하여야 한
다.

이 때 “2個 以上の 直通階段의 數”에는 前述한 規定
(令 第104條 및 第105條)에 依하여 設置한 直通階段을
包含 한다.

• 5層 以上の 層을 百貨店으로 쓰는 바닥面積의 合計
가 3,000M²를 넘는 경우에는 前述한 모든 規定에 依하
여 設置한 直通階段外에 別途의 直通階段을 바닥 面積
3,000M²마다 1個의 比率로 設置하여 이를 特別 피난계
단의 構造로 하고 따라서 4層 以下の 層에는 通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이 規定에 依하여 設置하는 階段의 數는

△ 5層에서는 5層以上 모든 層의 百貨店바닥 面積의
合計에 따라

△ 8層에서는 8층以上 모든 層의 百貨店 바닥 面積
의 合計에 따라 그 層의 階段數가 決定될 것임으로 5
層으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 百貨店의 避難用的 階段에 대하여 層과 바닥 面積으
로 規定한것 以外에 階段의 幅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
로 因하여 階段의 數가 增加하는 경우도 있게된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의 有効幅의 合計 基準

(表17-5)

位置(層)	百貨店의 用으로 쓰이는 바닥面積	階段有効幅의 合計
地上層	●直上層以上の 바닥面積의 合 計 100m ² 에 對하여 ●直上層以上の 層中 바닥面積이 이 最大인 層의 100m ² 에 對하여	●6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이고 ●30cm比率로 算定 한 幅以上
地下層	當該層의 바닥面積100m ² 에 對 하여	40cm比率로 算定한 幅 以上
註 地上1層또는 2層에서 피난층 또는 地上에 通하는 階段의 幅은 實幅의 1.5배에 相當하는 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屋上広張의 面積은 直上層 의 바닥面積에 包含한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出入口의 有効幅

(表17-6)

位置(層)	當該層의 바닥面積	出入口의 有効幅
地上層 및 屋上広場	100M ² 에 對하여	27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地下層	“	36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나) 其他(百貨店 以外)의 경우

避難階段과 特別避難階段을 設置하여야 할 対象建築

物中 百貨店을 除外한 其他의 建築物은 層數에 따라 火災 및 特別 避難계단의 設置 規定을 달리하고 있으며,

5層에서 10層까지의 建築物과 11層 以上の 建築物로 区分 된다.

• 5層~10層의 建築物

5層 내지 10層 및 地下2層으로부터 避難층 또는 地上에 通하는 直通階段과 5層 以上の 層으로부터 避難층 및 地上에 通하는 直通階段과 直通으로 設置된 地下1層의 階段은 避難계단 또는 特別避難 계단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例外規定〉 主要 構造部가 耐火構造인 建築物로서 5層 以上の 層의 바닥 面積 合計가 100M²未滿이거나 100M² 以上이어하도 100M² 以内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 또는 甲種防火門(換氣用 窓으로서 그 面積이 2000M² 以下인 鉄製網込 유리를 넣은 開口部가 있는것을 包含으로 区劃되어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11層 以上の 建築物

11層 以上 또는 地下3層 以下の 層으로 부터의 直通階段은 모두 特別 避難階段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4) 階段의 構造

① 直通階段의 構造制限

屋外에 設置하는 直通階段은 木造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5層 以上の 層으로부터 設置하는 直通階段은 돌음階段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屋內 避難階段의 構造

(가) 最上層 以外の 層에 있는 階段室은 (直接 外氣에 接하는 部分·屋內에 面하는 窓 및 甲種防火門을 除外한다 耐火構造인 壁으로 区劃

(나) 階段室에는 窓 其他의 채광상 有效한 開口部를 設置하거나 予備電源을 갖인 照明 設備

(다) 最上層 以外の 層에 있는 階段室에 屋內에 面하는 窓을 設置할 때에는 1個所의 面積이 1M² 以下인 鉄製網込 복반이 窓으로 設置

(라) 屋內로 부터 階段에 通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마) 甲種防火門과 이의 設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設置

(바) 階段은 耐火構造로 하고 避難층까지 直通되게 設置.

③ 屋外避難階段의 構造

(가) 階段은 甲種防火門 및 鉄製網込유리 복반이 窓以外의 開口部로 부터 2M 以上の 距離에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나) 屋內로 부터 階段으로 通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다) 甲種防火門과 이의 設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設置.

(라) 階段의 有效幅은 90cm 以上으로 하고 耐火構造로 地上까지 直通되게 設置.

④ 特別避難階段의 構造

(가) 屋內와 階段室과는 直接 노대 또는 外氣에 向하여 열 수 있는 窓을 設置하거나 施行 規則 第20條에서 定하는 排煙設備를 갖춘 2M² 以上の 附屬室을 通하여 連結.

(나) 階段室 및 附屬室은 다음의 部分을 除外 하고는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으로 区劃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으로 区劃할 必要가 없는 部分〉

• 直接 外氣에 接하는 部分

• 排煙 設備部分

• 階段室의 노대 또는 附屬室에 面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복반이 窓

• 甲種防火門 및 乙種防火門의 部分

(다) 階段室에는 노대 또는 附屬室에 面하는 복반이 窓 其他 採光上 有效한 開口部나 予備電源을 가진 照明 設備를 設置

(라) 階段室에는 위 (다)의 規定에 依한 開口部 以外에는 屋內에 面하는 開口部の 設置 禁止

(마) 노대 및 附屬室에는 階段室 以外の 屋內에 面하는 壁에 開口部(出入口 除外)의 設置 禁止

(바) 屋內로 부터 노대 또는 附屬室에 通하는 設入口에는 甲種 放火門으로 노대 또는 乙種防火門으로 設置

(사) 甲種 및 乙種防火門과 이들에 設置하는 設 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 수 있게 設置

(아) 階段은 耐火構造로 하고 避難層까지 直通 되게 設置

※ 最上層에서는 (가) (나) 및 (라)의 規定을 例外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階段室의 노대 또는 附屬室에 面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窓을 복반이 窓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屬室의 排煙設備 基準〉

(가) 附屬室의 바닥 및 壁 天井은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로 할것.

(나) 附屬室에 設置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하고 避難의 方向으로 열 수 있게 할것.

(다) 排煙口 및 風道는 不燃材料로 하고 火災時 有效하게 排煙시킬 수 있는 規模로 하여 外氣 또는 專用的 굴뚝에 連結할 것.

(라) 排煙口에는 非常電源이 設備된 排煙機를 設置할 수 있게 할것.

(마) 排煙機를 設置할 때에는 排煙機의 作動에 依한 自動裝置로 하되 手動으로도 開閉할 수 있게 할것.

建築法質疑応答 (7)

建設部

韓奎峯

71. 商業地域에서의 原動機의 増設없이 精米機의 増設.

(質疑要旨)

地域이 指定되기 前に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精米所를 建築하고 精米業을 하던 中 商業地域으로 指定되어 있는 경우 原動機의 増設은 하지 아니하고 精米機의 増設을 한 경우 이는 用途 變更에 該當하는가?

(質疑者: 忠清北道)

(回信内容)

建築 444.1~21720(76. 11. 1)

搗精工場 建築當時 適法하게 建築된 建築物이고 当該地域이 商業地域으로 變更되어 令 第142條 第4項의 規定에 不適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法 第2條 第12號의 規定에 依한 建築行爲 및 原動機의 増設을 하지 아니하고 精米機械의 増設을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에 該當하지 아니함.

(解 說)

都市計劃으로 商業地域이 指定되기 前に 適法하게 建築된 搗精工場이라 하더라도 商業地域의 그 指定目的上 精米機의 増設을 許可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質疑上의 搗精工場은 이미 商業地域에 適合한 程度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原動機와 바닥 面積을 基準으로 建築制限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原動機를 増設하지 않고 工場의 바닥 面積이 増加되지 아니하는 以上 精米機械의 増設을 不許할 規定은 없는 것이다.

72. 建築許可와 土地의 形質變更許可를 同時に 行함으로써 因한 免許稅의 二重賦課

(質疑要旨)

建築法施行 規則의 建築許可 書式은 建築許可와 土地의 形質變更 許可를 同時に 処分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土地의 形質變更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建築許可만을 할 때에도 地方稅法에 依하여 建築과 形質變更두 가지 許可에 對한 免許稅를 賦課하고 있는 實定인데 土地의 形質變更을 許可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를 削除하고 建築許可 処分만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 荊州道)

(回信内容)

建築 444.1~21671(76. 11. 1)

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 申請時 土地의 形質變更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建築物에 對하여는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土地의 形質變更 事項이 除外되는 것임으로 同 許可 申請書 및 許可書上의 關係條項을 削除하여야 하는 것이며 地方稅法에 依한 免許稅 徵收는 許可申請 部分에 對해서만 賦課하여야 할 것임.

73. 共有地分 袋地上的 建築許可

地籍圖上에는 分割되어 있으나 登記上에 分割 登記되지 아니한 共有地分으로 되어 있을 때 隣接地分 共有者만의 同意로서 建築許可를 할 수 있는가? 共有者 全部의 同意가 있어야 하는가?

(質疑者: 江原道)

(質疑要旨)

建築 444.1~22950 (75. 11. 22)

質疑上の 共有地分인 垡地가 지적도상에 分割되어 있고 土地台帳에 登載된 상태로서 垡地의 範圍를 証明할 수 있는 경우에는 共有者의 同意없이 建築許可할 수 있으나 지적도상에만 分割되었을 경우라면 共有者의 同意가 必要한 것이며, 共有者 全員の 同意 또는 一部の 同意 어느쪽이건 이는 垡地의 範圍 및 所有權에 對한 明確한 証明을 할 수 있는 程度에 따라 許可權者가 事例別로 決定할 事項임.

74. 公有水面 埋立地上의 建築

(回信內容)

公有水面 埋立地上에 이미 建築許可를 하여 完工段階에 있으나 이에 先行되어야 할 埋立地가 竣工檢査를 未畢하고 있을 때 (埋立工事は 事實上 完工됨) 建築物의 竣工處理가 可能한지의 여부?

(質疑者:釜山市)

(回信內容)

建築 444.1~24337 (76. 12. 13)

公有水面埋立法 第13條 但書의 規定에 依據 埋立工事用이 아닌 工作物의 設置許可를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받은 경우로서 建築法令에 適合하게 建築許可를 하였다면 公有水面埋立工事의 竣工前이라 하더라도 建築物의 竣工檢査를 할 수 있을것임 끝.

(解 說)

公有水面埋立法 第13條에서 埋立 工事의 竣工檢査를 畢할때 까지는 埋立 工事用이 아닌 原則적으로 禁하고 있으나 同條 但書에서 埋立 工事의 竣工檢査를 畢하기 前이라도 建設部長官의 使用 許可를 받은 때에는 埋立工事用 以外の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게 規定하고 있으며, 建築物의 竣工檢査는 許可한 대로 施工이 完了되었는지를 確認하는 것임으로 前記 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土地에 建築許可를 한 때에는 埋立 工事의 竣工檢査 如否에는 關係없이 建築物에 對한 竣工處理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화책으로 협회와 가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주택 건축허가 제도개선책 실시에 따른 건의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건축허가 제도 개선책에 의한 조편성을 1,2급 혼성조를 편성 하도록한 귀부의 실시요강과 달리 급별 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귀부에서 기하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초 방침대로 급별제한을 하지말고 자율적인 조를 편성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을뿐 아니라 본협회에서도 그간 수차 서울시 당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우금껏 귀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지 않고 급별 3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본협회 서울시 지부소속 회원의 조편성의 지연은 물론 이로인한 막대한 업무장애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건의 하오니 조속히 해결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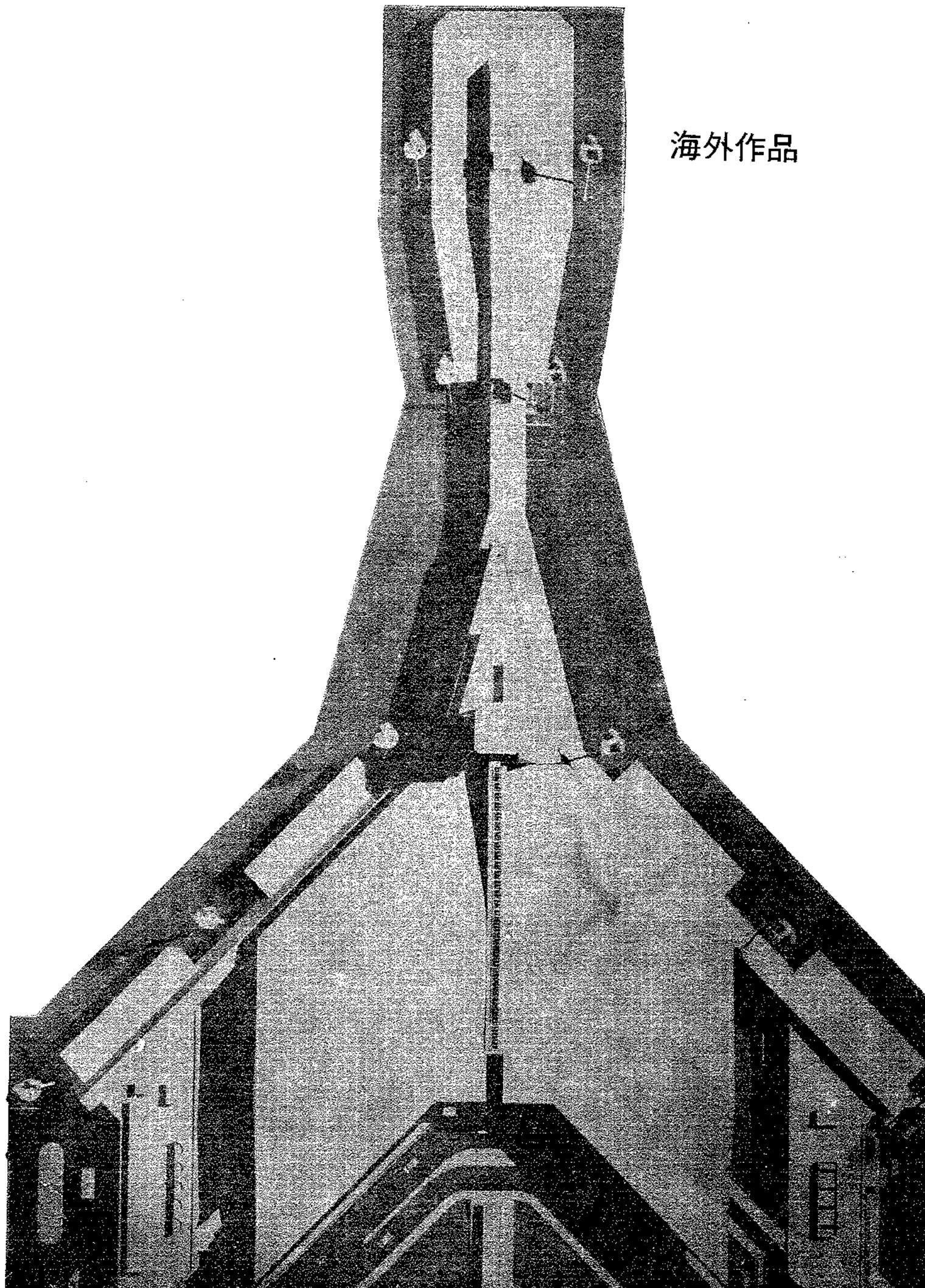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이 규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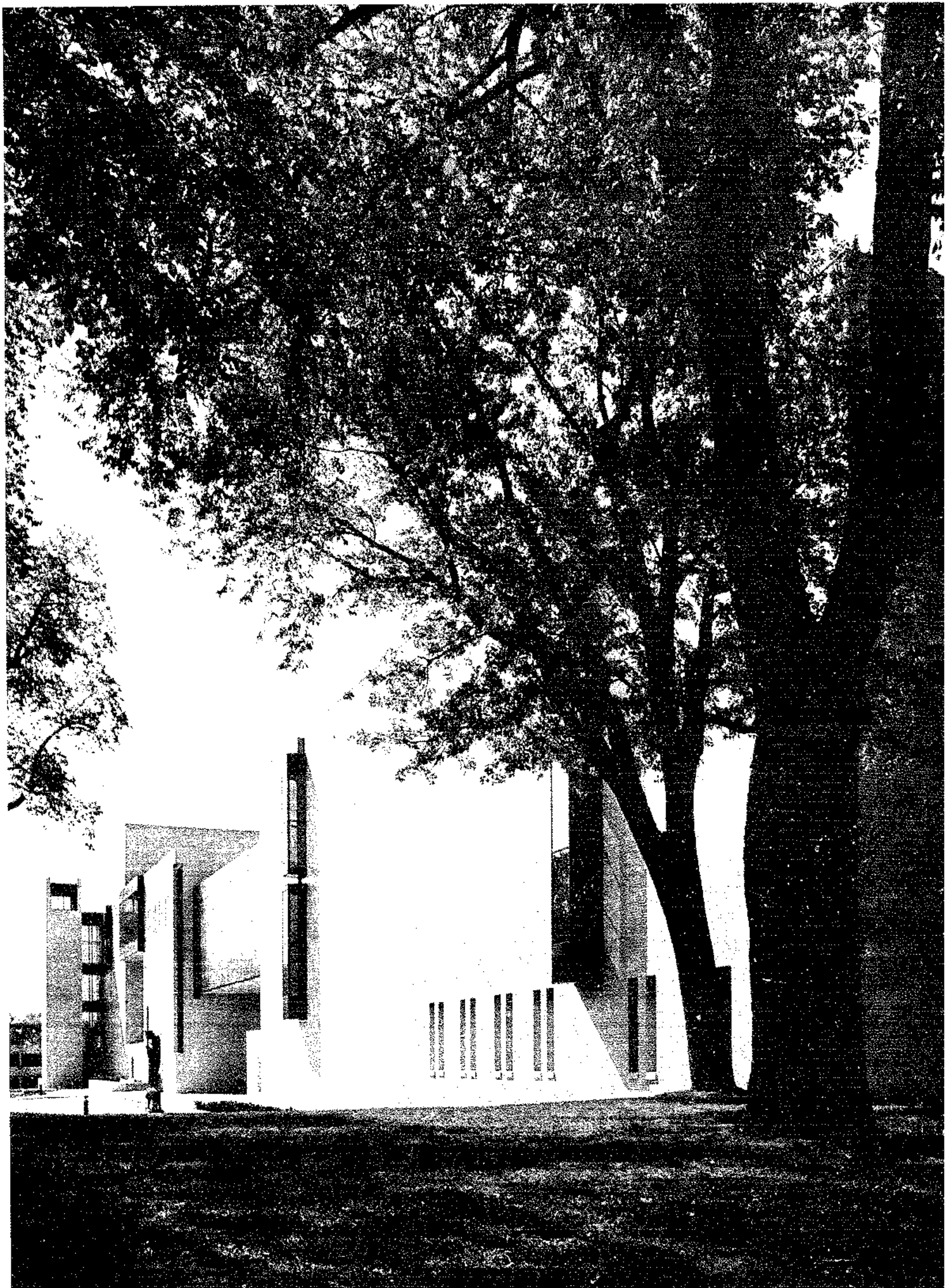
도시시설물의 미화와 품위향상에 관한지시

1. 우리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물들 중에는 그시대의 필요에 따라 건설되었으면서도 그 견고도와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미려하고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시설물들을 흔히 볼수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외국인에게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2.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만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많은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대, 소의 각종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남에게 자랑할수 있고 후손에게 물려주어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든다는 자책을 가지고 건설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3. 특히 도시의 각종 시설물의 건설에 있어서 과거에는 수요에 쫓겨 그충족에만 급급한 나머지 거치른 시공을 하거나 졸속에 채우치는 사례가 있었을뿐 아니라 시행 착오에서 많은 손실을본 경험도 있었으므로 이를 반성하고 최근에는 점차 개선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4. 그러므로 앞으로 각종 시설물의 건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고 후손에 남겨줄 문화 재적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공에 힘써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관계기관과 모든 공무원은 이를 명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가. 주요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공원, 도로변의축대, 옹벽, 분수등 모든 분야에 있어 대, 소의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공까지 자료수집과 점포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 급적 견고하고 미려하게 건설하도록 할것.
- 나. 이를 위해 토목이나 건축의 기술용역 외에 조경, 미화를 위한 설계용역에도 충분한 예산상의 배려를 할것.
- 다. 모든 건축이나 시설물의 건설에 있어서는 그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을 주위환경과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배려할것.
- 라. 모든 공사는 그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각별히 유의 할것.
- 마. 건설부는 외국의 참고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지방 자치단체나 건설 관계 기관에 제 공하여 참고케 하는 한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것.
- 바. 내무부는 지금까지 시설된 각지방의 시설물 중에서 분야별로 대표적인 우수 시설물을 선정하여 사진첩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 공하는 한편 상호 전락케 하여 각급도시의 정비와 시설 미화의 상승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지도할것. 끝.

(국무총리지시 제 12호)

海外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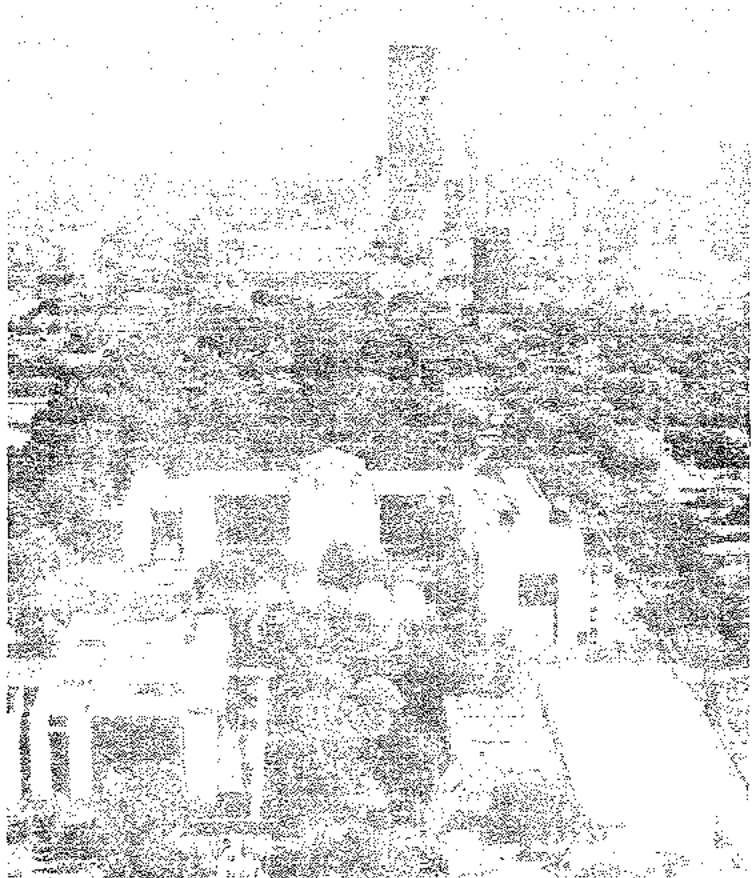




Minneapolis 예술센터

(1970~1974)

Minneapolis



건축주 : Minneapolis Society of Fine Arts

설 계 : Kenzo Tange & URTEC : Jiro Inazuka,
Yoshio Taniguchi, Shinsuko Takamiya,
Hiroshi Hasegawa, Makoto Miki, and
Kenji Okuyama.

공동설계 Parker Klein Associates, Architects.

구 조 : Meyer, Borgman, & Johnson

기계및전기 : Michaud, Cooley, Hallberg, & Erk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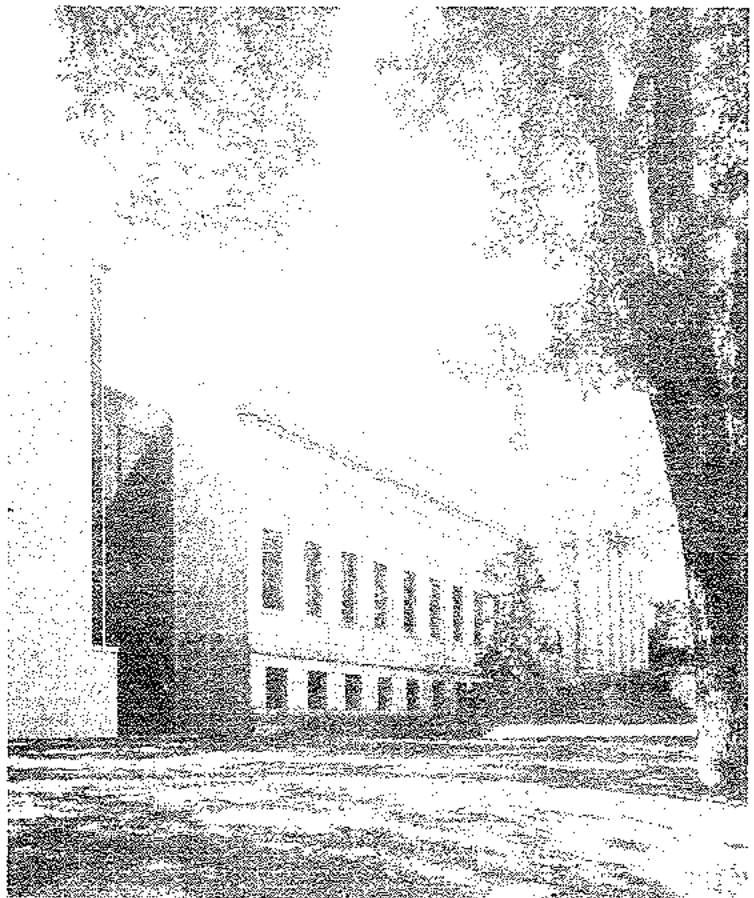
내 부 : Lella and Massimo Vignelli

극장설계및음향 : Bolt, Berane and Newman, Inc.

조 명 : Piacentini, Auerbach Associates.

박물관및 극장 : M. A. Mortenson, Minneapolis

미술대학 : Adofson & Peterson, Minneapolis



左) 三街에서 바라본 박물관과 극장
右上) Wash burn Fair Oaks 공원과 중
심가가 있는 미술관의 항공사진.
右下) 새 건물의 一面(左)과 옛 박물관
건물(右).

Minneapolis 정부는 많은 맨손 교회, 문화시설등을 갖춘 이곳에 문화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 이 예술센터를 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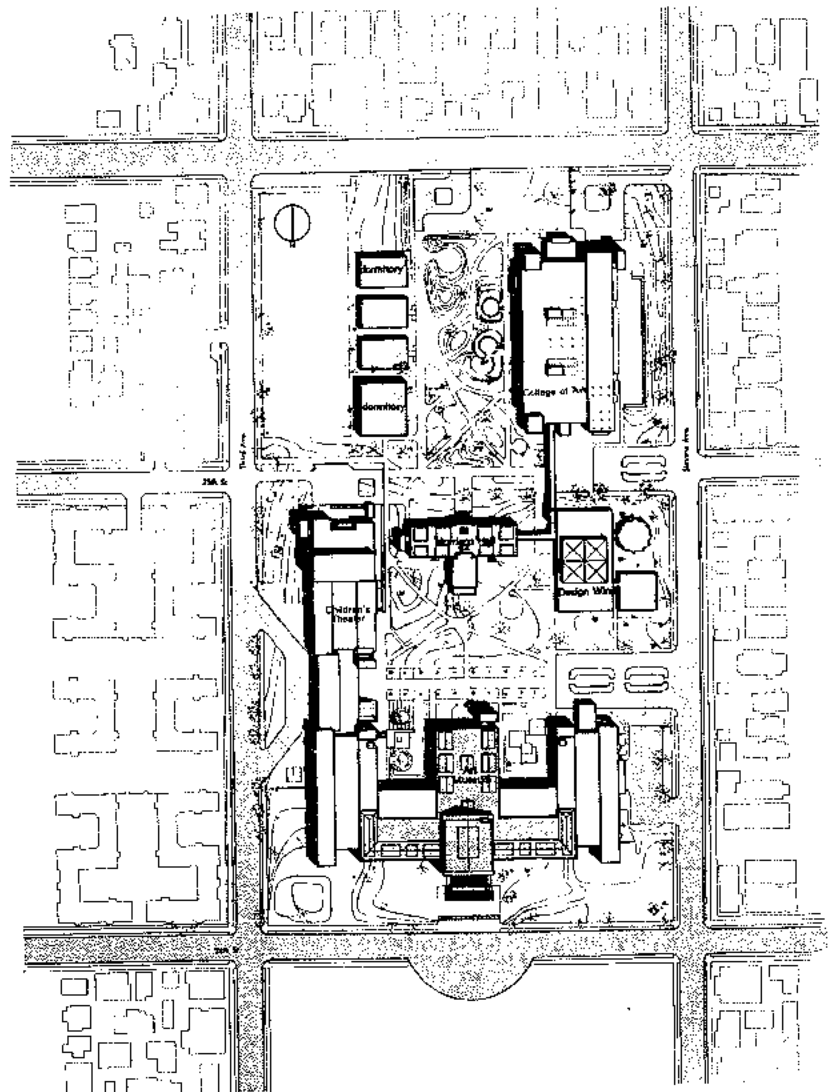
이 예술 센터의 중심건물은 Fair Oaks 공원과 마주보고 있는 1911년에 설계된 옛 박물관 건물이며 이 옛 박물관의 역사적 스타일을 지닌 정면은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곳 현존의 역사적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예술센터를 설계하는데 주안점이었다.

Minneapolis 예술센터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1. 박물관: 옛 르네상스 스타일 건물의 확장.
2. 어린이극장
3.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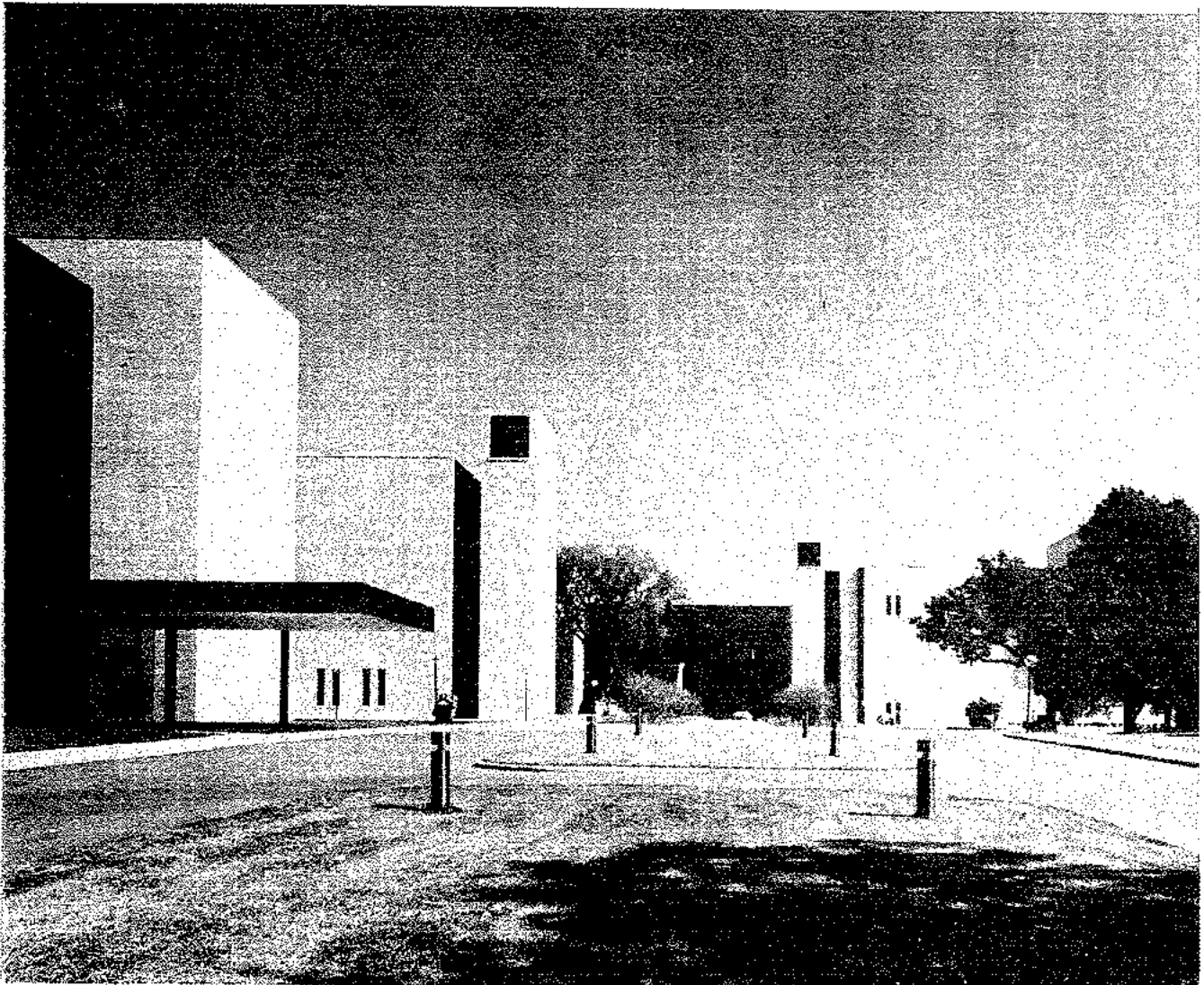
옛 박물관의 정면, 미술대학의 Morrison Hall등이 마스터플랜의 상당한 방해가 되긴 했지만 현존하는 건물에 새 요소들을 가미시킴으로써 이 예술 센터와 그 주위를 조화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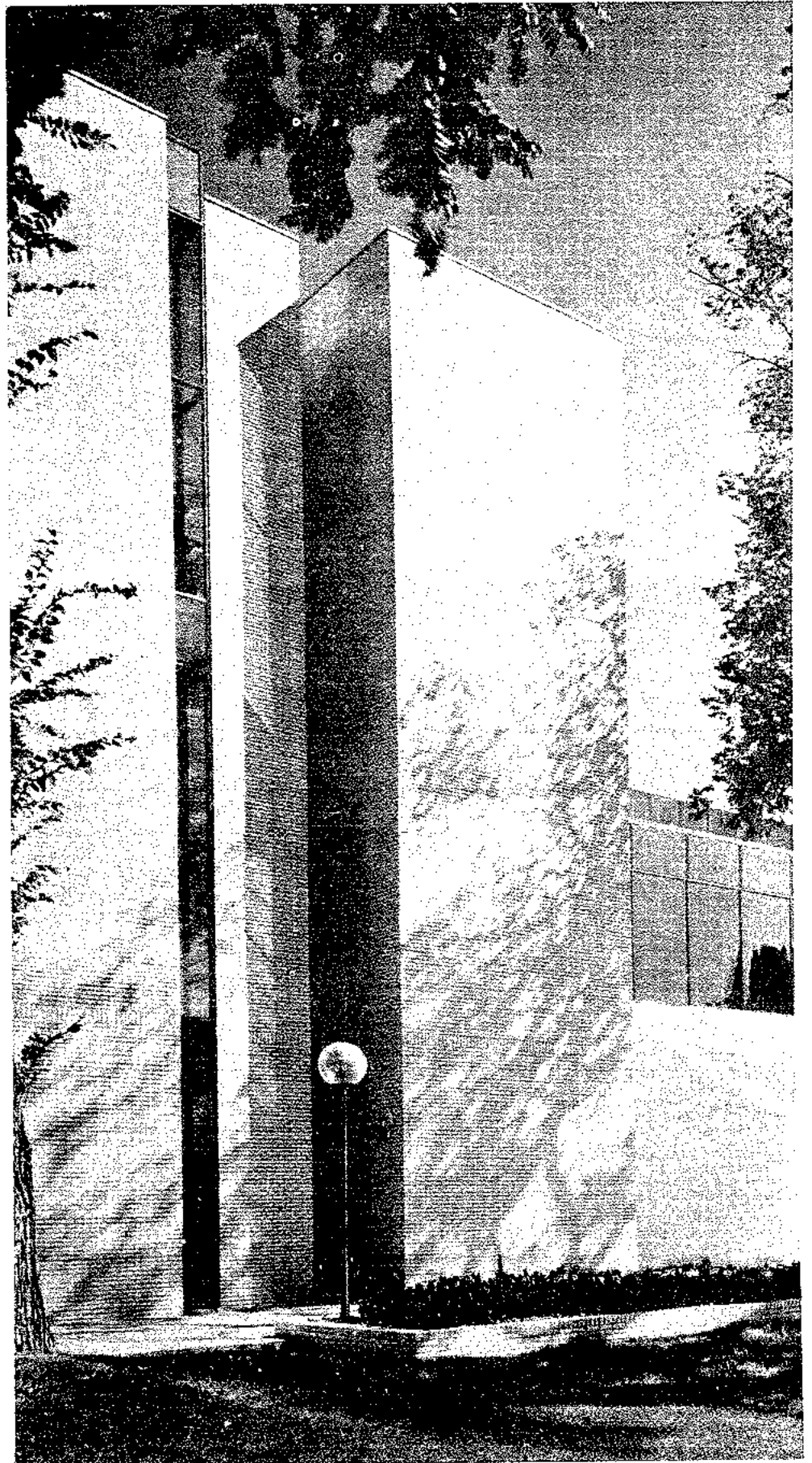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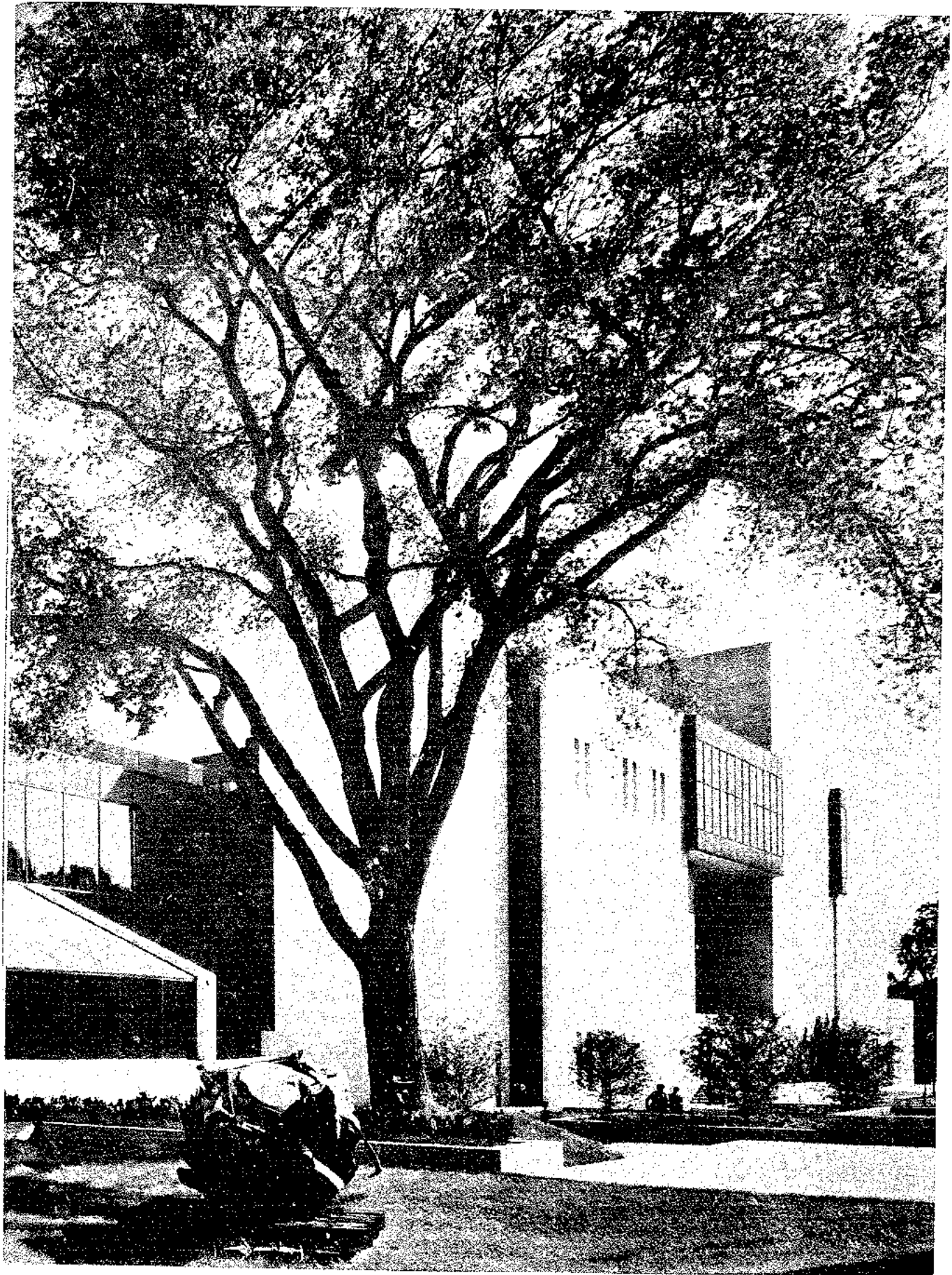
右) 三街에서 바라본 어린이 극장과 박물관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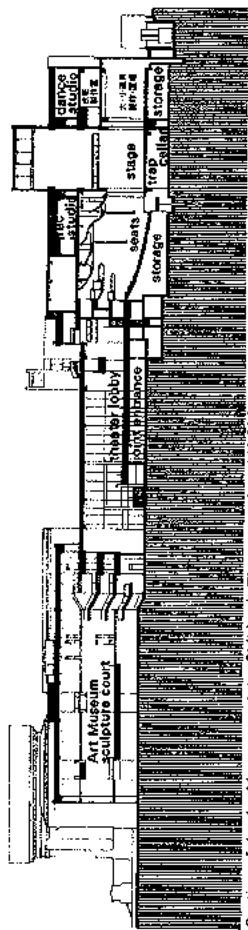
下) 건물사이의 정원에서 본 극장과 박물관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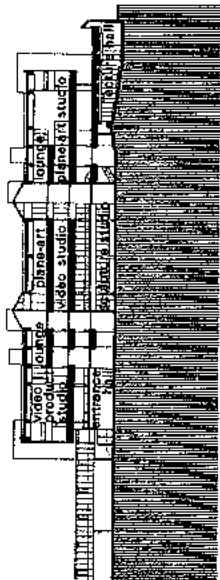


동쪽에서 본 박물관의 일부분
주출입구와 극장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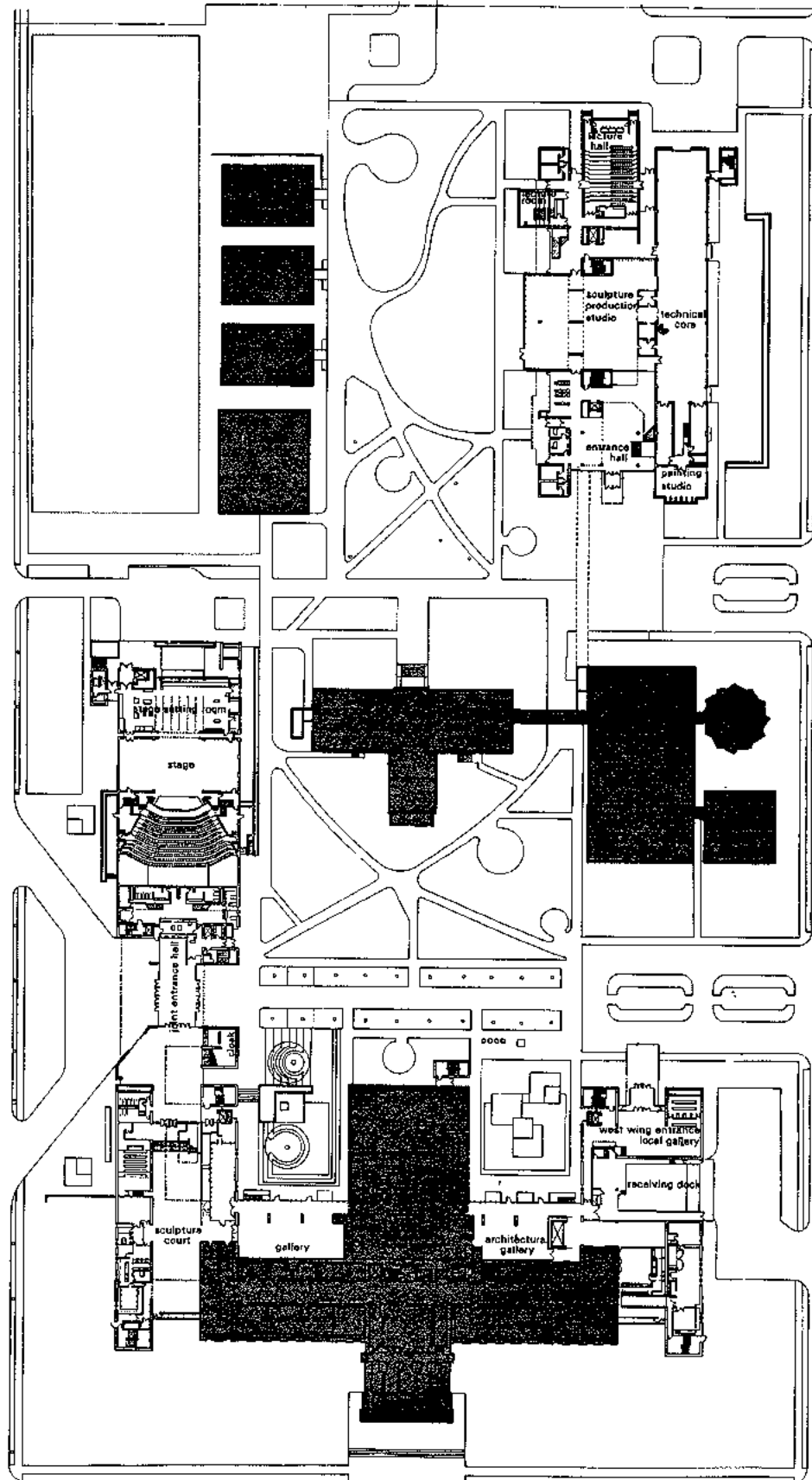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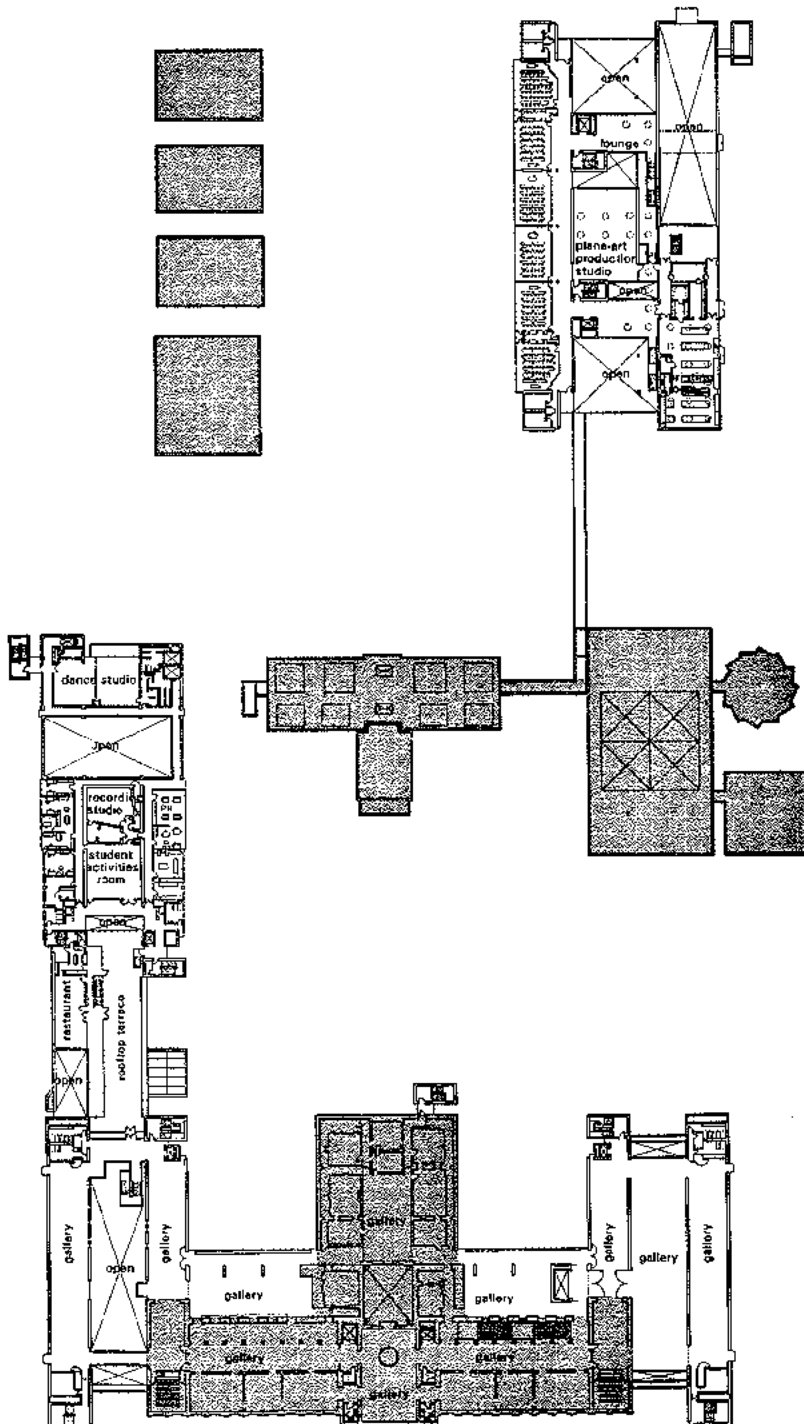
Section of the Art Museum and the Children's Theater; scale: 1/11,200.



Section of the Art College.



3층평면도 <질은 부분이 기존 건물이다>



<규모>

대지면적 : 61,000m²

미술박물관

연면적 : 신축 11,798m²

대수선 12,223m²

구조 : 철골조, 부분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미술대학

연면적 : 11,960m²

구조 : 철골조, 부분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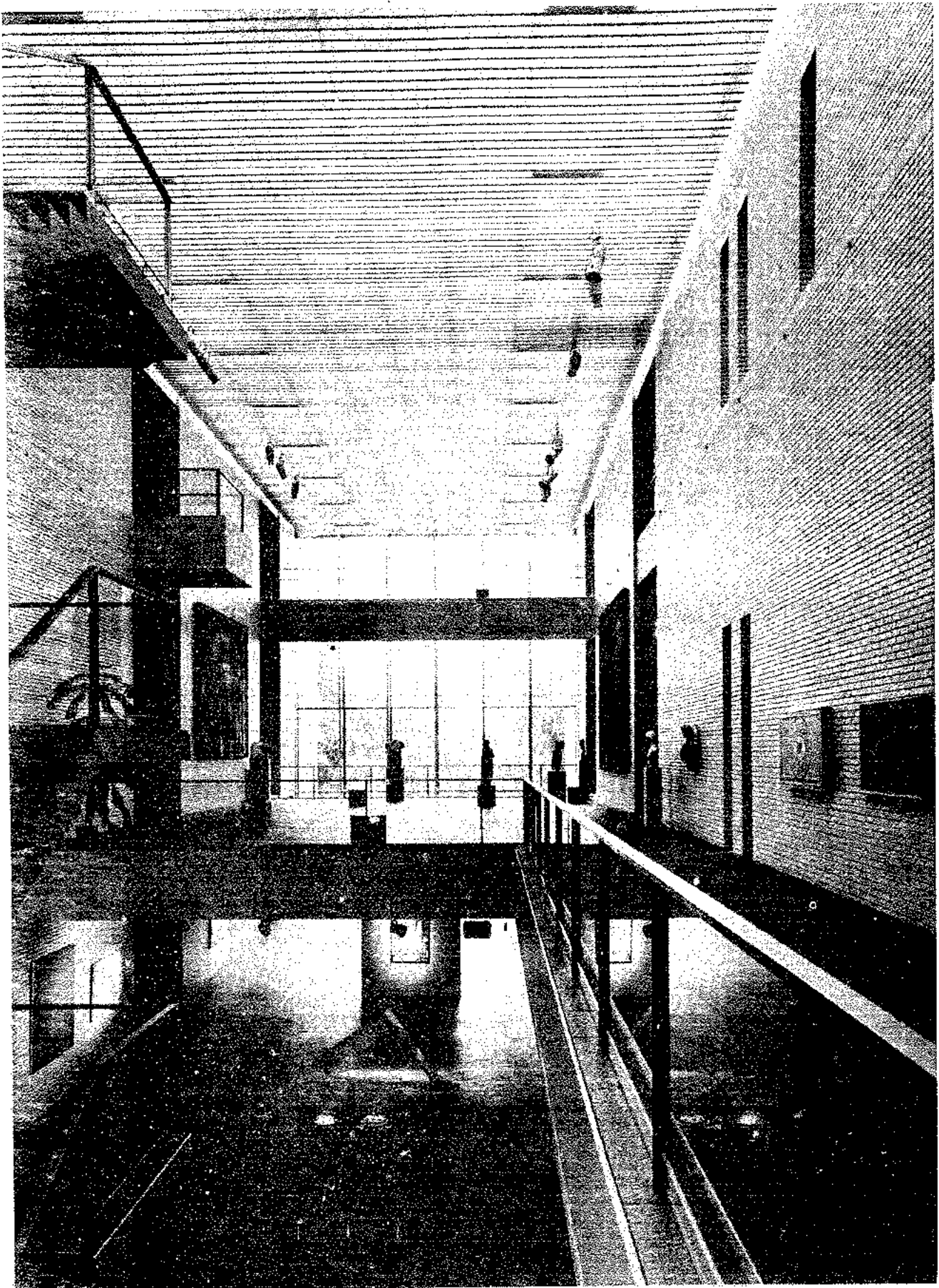
어린이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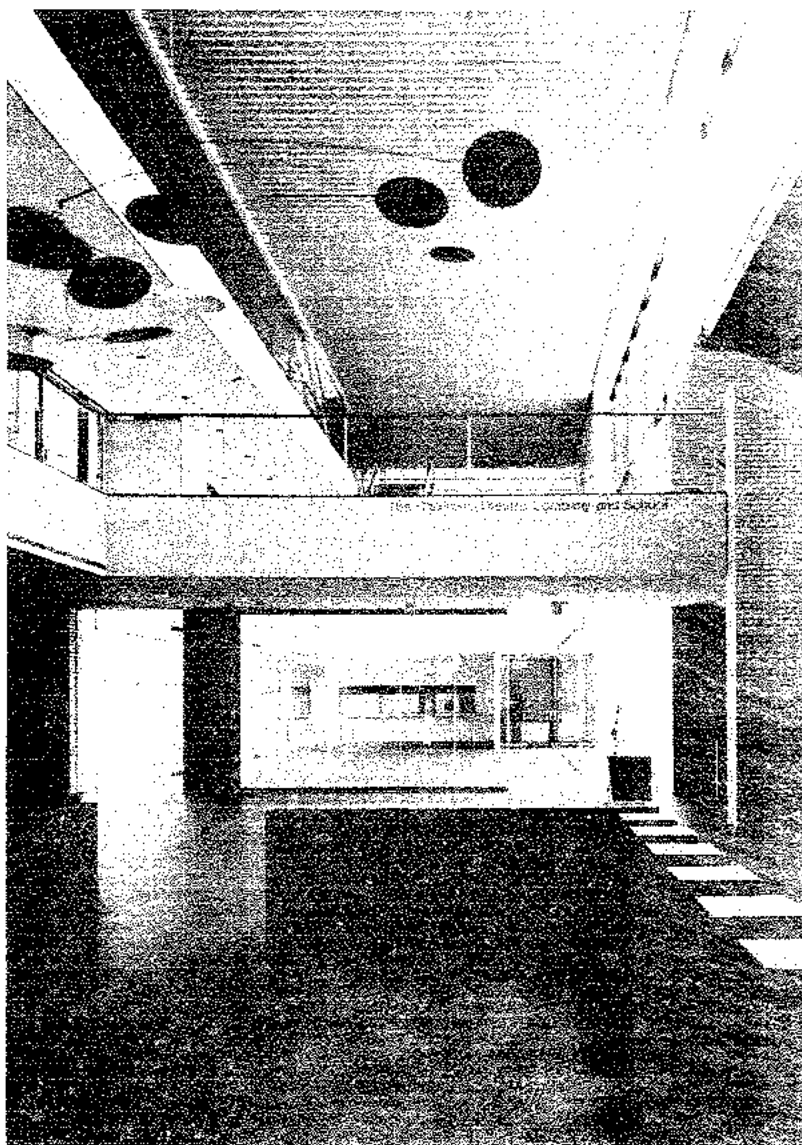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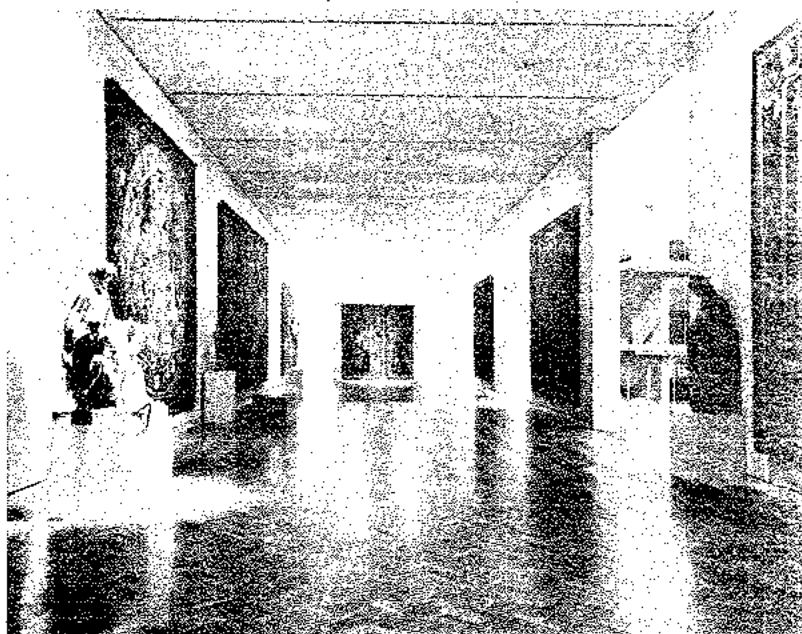
연면적 : 9,569m²

구조 : 철골조, 부분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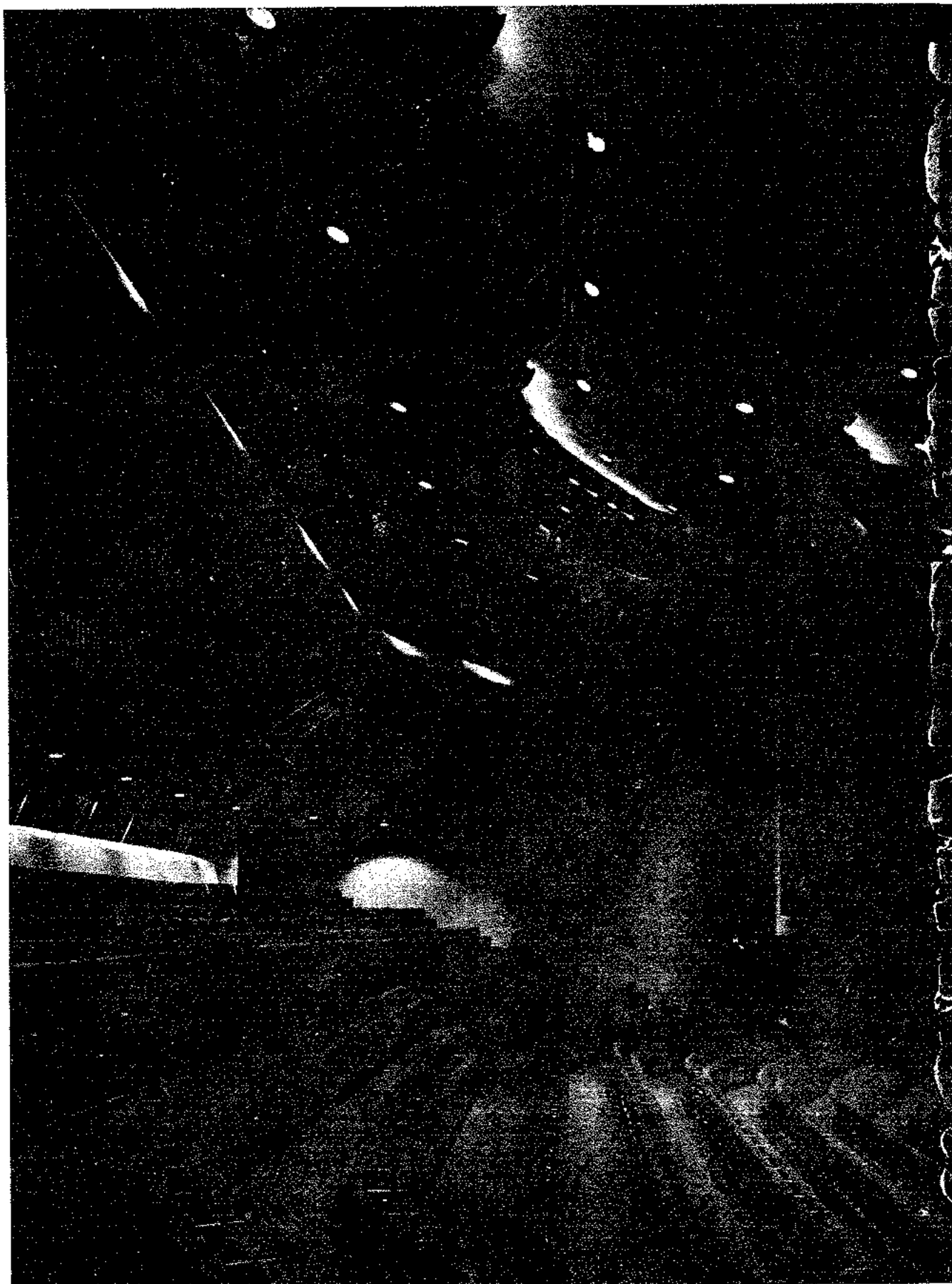
지하 1층, 지상 4층

수용능력 : 750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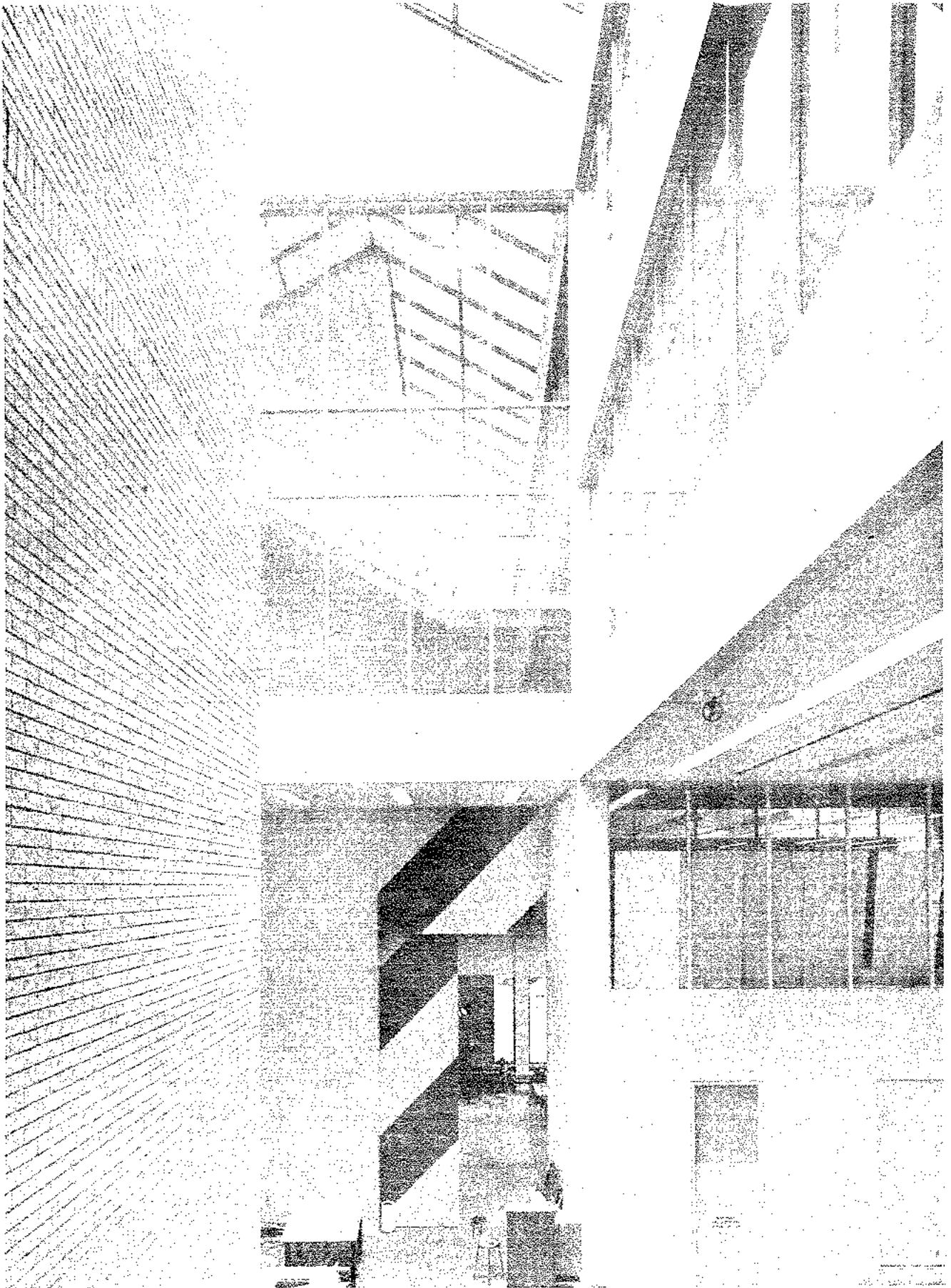


- 左) 미술박물관 메인홀과 조각품실
 右上) 박물관의 화랑 중의 하나
 오른쪽에 메인 홀이 보인다.
 右下) 미술 박물관과 극장의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어린이 극장이 주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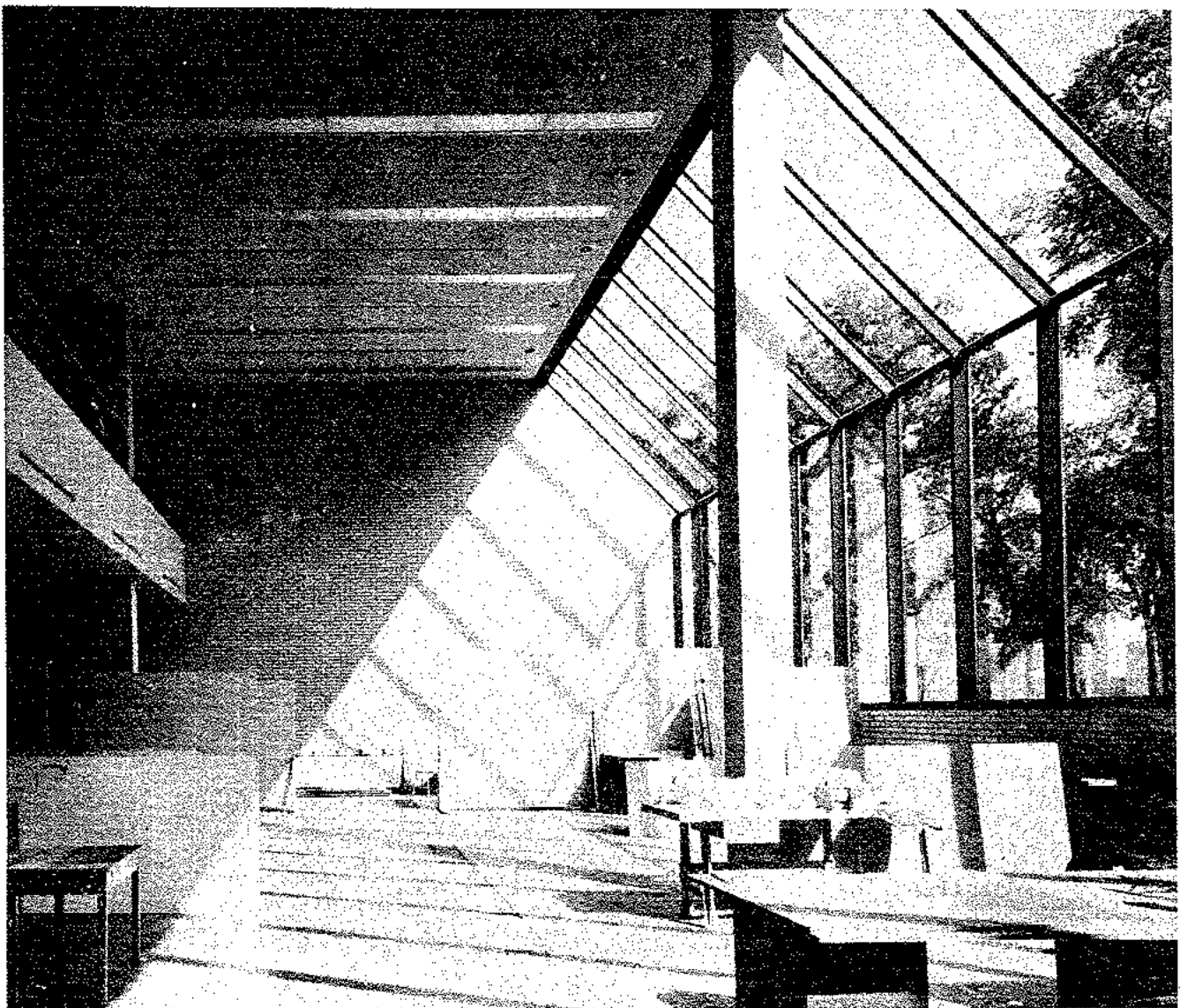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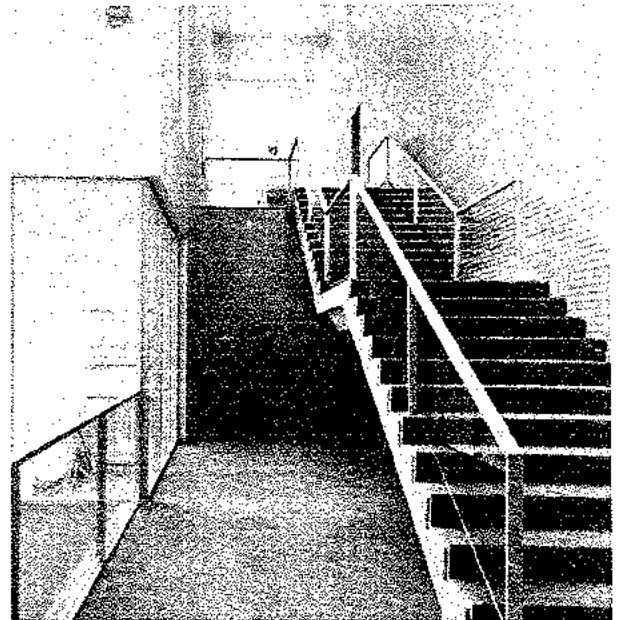
左) 어린이 극장 내부
 右上) 정원에서 바라본 미술대학
 右下) 미술대학 주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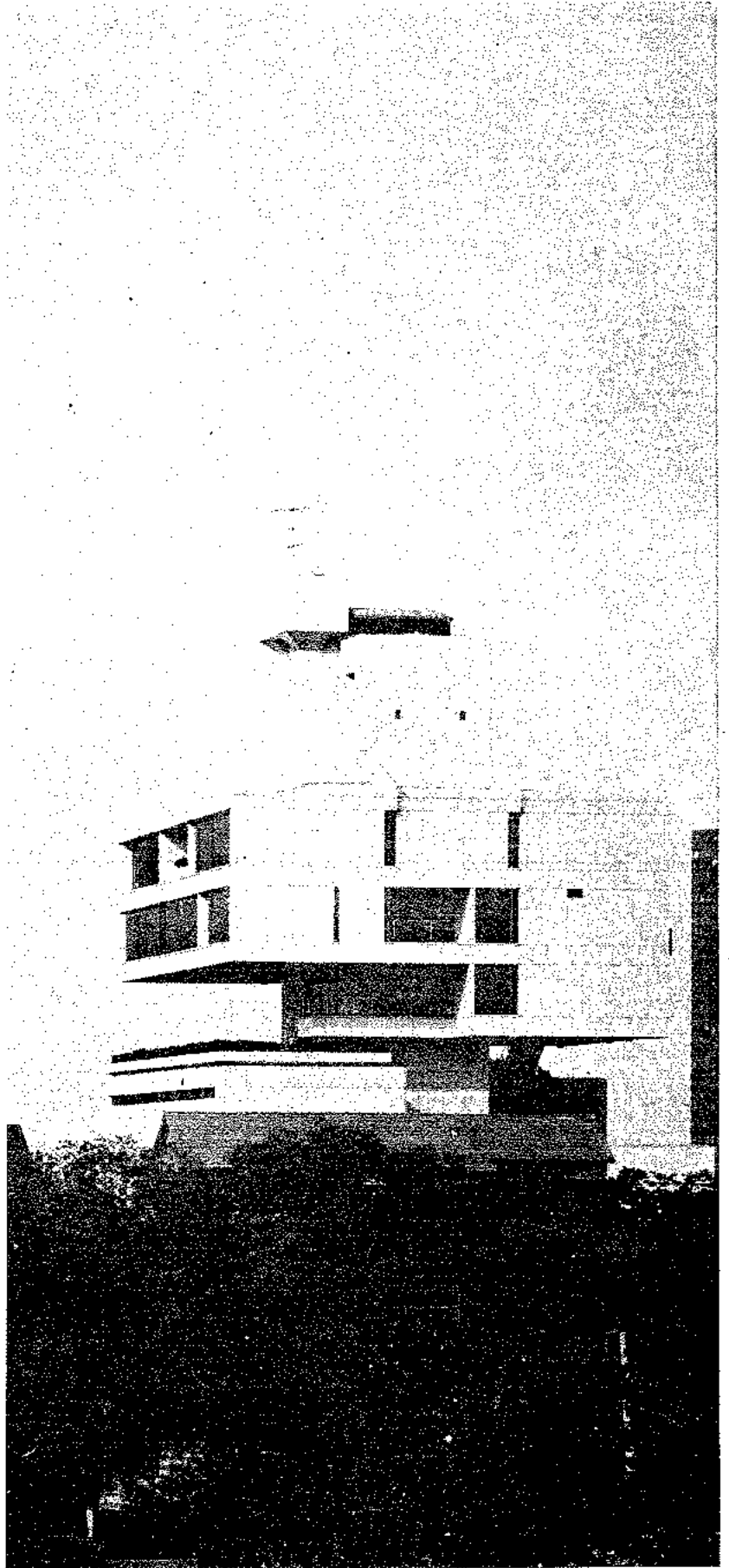
左) 조각실 스튜디오 위의 2층 교량에서
본 풍경

右上) 여러 스튜디오로 통하는 미술대학 主出入口
에서 뻗은 계단 오른쪽에 조각실이 보인다.

右下) 조각실 왼쪽에 교량이 보인다. 량



신년호에 소개될 작품
東京駐在 쿠웨이트 영사관



協會記事

大韓建築士協會 全國11個支部 總會 終了

지난 11월19日 忠南支部 總會에 이어 濟州(11月23日) 江原(11月29日) 忠北·全南(11月30日) 釜山, 全州, 慶北 慶南(12月3日) 서울(12月4日) 京畿道支部(12月6日)를 끝으로 1976年度 第11會 定期總會를 모두 마쳤다.

今年度 總會에는 本協會 李圭福 會長을 비롯하여 任員陣이 參席하여 政府 행정 지원 傳達 및 會員들의 質疑 答辯에 盡力을 다 하였는데 各種 案件處理와 任員 개선 및 오는 77年度 부터 施行되는 統合豫算에 많은 關心을 갖은 會員들의 모습은 어느때 와는 달리 眞摯 하였다.

유임 및 개선된 각 지부 일원명단

서울지부

직위	성명	사무소 명칭	비고
간사	한영수	대한합동설계공사	유임
간사	송화조	남성건축설계사무소	신임
간사	나영균	동신건축연구소	유임
간사	조구현	조구현건축설계사무소	신임
감사	이만재	아세아종합설계공사불이건축연구소	신임

부산 지부

간사	최행웅	공간건축연구소	유임
간사	허태	대동건축사무소	유임
간사	정홍정	동광건축사무소	신임
간사	변상명	덕천건축설계사	신임
감사	김진철	향토건축설계사	유임

경기지부

간사	김정수	인천중구건축사합동사무소	신임
간사	이종은	영신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조상호	삼성건설사무소	유임
감사	이병목	삼기종합설계사무소	유임
부총장	김성은	부천제2건축사합동사무소	신임

강원지부

간사	조정호	춘천연합건축	유임
간사	최병욱	춘천연합건축	유임
감사	원호창	원주합동건축	유임
감사	전인국	전인국건축설계사무소	신임

충북지부

간사	강계식	강계식건축설계사무소	유임
----	-----	------------	----

감사	김이구	한양건축설계사무소	유임
----	-----	-----------	----

충남지부

간사	류근열	류근열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정찬억	정찬억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류성희	류성희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감사	이원우	이원우건축설계사무소	유임
분소장	권순거	권순거건축설계사무소	신임
총무	이갑준	이갑준건축설계사무소	신임
부여	김윤환	김윤환건축설계사무소	유임

전북지부

간사	조병재	동아건축설계사무소	신임
감사	김사육	김사육건축연구소	신임
감사	문상식	신도건축설계사	신임
분소장	조재현	조재현건축설계사무소	신임

전남지부

간사	배윤진	삼일건축사무소	유임
간사	고재선	중앙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유연모	서도건축설계사무소	신임
감사	임재식	금성건축설계공사	신임

경북지부

간사	권태식	합동건축공사	유임
간사	이성완	신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박정규	화성건축사무소	유임
감사	임삼복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유임

경남지부

지부장	김효일	원건축설계사무소	보선
간사	조득례	개발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김상열	중앙건축설계사무소	유임
간사	배동권	신성건축설계사	유임
울산	이락희	락희건축설계사무소	유임
분소장	김명갑	동원건축설계사무소	유임
총무	홍재동	재동건축설계사	유임
장거창	류용구	신신건축설계사무소	신임
밀양	김순택	순일건축설계사	신임

제주지부

간사	김백교	제일건축설계사무소	신임
간사	고정식	고정식건축설계사무소	신임
서귀포	오재민	오재민건축설계사무소	유임
분소장			

月間協會動靜

제25회 이사회

일 시 : 1976. 12. 8 (수) 14:00시

장 소 : 협 회 회의실

출석인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성일영 · 김두섭 · 정효환

감 사 박래운 · 김종민

지 부 장 이봉로 (서울)

부의안건 : ① 충남지부, 천안, 서산, 부여분소장 취임 승인의
전

② 전설업 대표자를 겸직한 회원의 건설부의 조치
지시에 관한 건.

③ 감사처분 지시에 대한 지부에서의 이의 신청에
관한 건.

④ 정관 개정 지시에 관한 건

⑤ 76년도 일반회계 목간 유용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

⑥ 기 타 사 항

⑦ 특별회계 기채금 상환의 건 .

⑧ 77통합 예산승인 신청의 건

⑨ 77충분지부 예산 영달에 관한 건

제2회 편찬위원회 및 76년을 회고하는 좌담회

일 시 : 76. 12. 11 (토) 12:00

장 소 : 협 회 회의실

출석인원 : 회 장 이규복

위원장 김두섭

위 원 김인석 · 김진일 · 유경철

이경희 · 이문보

필자및

최창규 · 황일인

기고자

부의안건 : ① 11월호 합평 및 12월호 편집계획안 토의

② 76년도 회지를 중심으로 한 회고 간담회

③ 기 타 사 항

제26회 이사회

일 시 : 1976. 12. 18. 11:00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출석인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정효환 성일영

감 사 박래운 김종민

지 부 장 이봉호 (서울)

최춘화 (전남)

부의안건 : ① 지부임원 (지부 , 간사, 감사, 분소장) 취임 승인
의 건

② 제 6회 윤리위원 결정사항 수락의 건

③ 실적회비 산출 기 표 개정 및 설계감리 보수
요율 직선 보간요 활용 승 의 건

④ 통합예 운용지침 (세칙) 제정의 건

⑤ 76년도 제 2회 지부 추가 개정 예산 승인의 건

⑥ 서울지부 월정회비 장기채납회원 처리의 건

⑦ 서울지부 76년도 반회계 세출예산 목간 유용
승인 요청의 건

⑧ 기타사항

제 6회 윤리위원

일 시 : 1976. 12. 14 10:00시

장 소 : 본협회 회의

출석인원 : 위원장 김병현

위원원 박 규 선병택 김두섭

강진삼 한광수

부의안건 : ① 명의대여 행위의 건

② 타인 업무침해 행위의 건

③ 보수의 부당할인 행 의 4

会 員 動 静

서울특별시 지부 사무소 이전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전 권	전권건축	서울도봉구수유동191-42	(99) 9606	2-30	55	76.11.30
조 은 수	한림건축연구소	서울강남구청담동67-68	(57) 7924	2-1744	421	11.30
김 춘 웅	상지건축설계사무소	서울종로구신문로2가89	(74) 2365	1-1175	492	11.30
강 순 일	필건축설계사무소	서울종로구신문로2가89	(74) 4794	1-1178	525	11.30
김 상 준	태화건축기술공사	서울관악구신림동4동527-3	(69) 9522	1-953	435	11.30
이 정 일	범신건축	서울강남구학동998-2	(54) 6628	1-1098	470	11.30
김 구 성	영도종합건축기술공사	서울서대문구외주로1가65	(74) 8539	1-834	212	11.30
김 종 호	동대문구건축사합동일 건축설계사무소	서울종로구중화동207-23	(95) 5511	2-777	176	11.30
김 종 표	유림건축연구소	서울서대문구용암동103-2	(38) 1619	2-971	252	11.30
구 흥 서	광야종합구흥서건축연구소	서울관악구청담동산67-120	(57) 8189	2-1561	404	11.30
김 용 수	광림건설연구소	서울관악구봉천동439-4	(22) 7475	1-616	151	11.30
이 조 영	경원건축설계사무소	서울영등포구독산동111-32	(8) 5047	1-216	625	11.30
신 무 성	서한건축기술연구소	서울중구저동2가7-2	(25) 5217	1-45	609	11.30
권 태 문	국건축연구소	서울동대문구신설동103-9	(53) 5800	1-1061	425	11.30
신 종 순	신종순건축연구소	서울용산구이촌동302-75	(794) 6419	1-1061	414	11.30
이 상 철	세진건축기술연구소	서울중구저동2가7-2	(26) 3029	1-1319	655	11.30
이 종 규	삼용건축설계사무소	서울영등포구화곡동370-54	(66) 5581	2-961	237	11.30
임 현 언	영건축연구소	서울종로구무학동111	(75) 3331	1-428	652	11.30
김 형 진	우성건축설계사무소	서울종로구돈의동114-1(405)	(21) 4016	1-1118	681	11.30
오 성 근	성지건축설계사무소	서울종로구돈의동114-1(405)	(21) 4016	1-951	720	11.30
김 세 호	매지건축설계사무소	서울서대문구용암동97-1	(39) 1341	2-306	64	11.30
이 종 성	서울건축사사무소	서울강남구반포동84-13	(34) 0017	2-386	108	11.30
임 성 호	한신건축기술공사	서울동대문구상봉동137-1	(95) 5511	2-345	419	11.30
주 태 근	니마건축연구소	서울마포구신수동448-2	(33) 7344	1-1297	566	11.30
안 총 회	주식회사삼이공사	서울용산구이촌동302-68 (상풍상가 302)	(44) 6443	1-450	712	11.30
한 농 순	유신종합기술공사	서울서대문구용암동15-2	(28) 3375	1-540	621	11.30
송 진 호	신화건축합동사무소부립건축	서울동대문구신설동102-4	(94) 7857 (93) 2882	1-524	143	11.30
유 재 현	동성건축설계공사	서울종로구인사동64-1	(75) 3394	2-420	420	11.30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이전 및 명칭변경

박 회 선	도봉건축사연합사무소	서울도봉구수유동191-42	(99) 9606	2-972	389	11. 30
김 형 인	세한건축	서울도봉구수유동191-42	(99) 9606	1-1045	552	11. 30
남 창 우	남일건축	서울도봉구수유동191-42	(98) 0211	2-1349	280	11. 30
이 관 형	서인건축설계조경연구소	서울종로구창성동128	(72) 8489	1-1432	653	11. 30
양 상 규	(주) 세대전축기술연구소	서울중구충무로 1가23-17	(73) 6261	1-739	240	11. 30

서울특별시 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김 중 대	대일건축설계사무소	서울영등포구동촌동400-55	(64) 7795	1-998	679	76. 11. 30
유 덕 호	베아수국제합동건축	서울종로구무교동21-1	(777) 6637 6638	1-491	275	11. 30
장 기 화	금강종합기술연구소	서울중구저동2가78	(26) 8297	1-568	726	11. 30
김 진 곤	부건사건축설계사무소	서울서대문구응암동97-1		2-268	43	11. 30
이 병 익	성림건축사	서울서대문구응암동97-1		2-606	138	11. 30

서울특별시 지부 전출

김 영 복	삼부건축설계사무소	서울동대문구신설동103-3	(경기 양주)	1-223	601	11. 30
양 대 원	한국건축대원	서울중구초동10-8	(경기 강화)	2-510	121	11. 18

서울특별시 지부 재개업

박 면 수	삼중건축	서울중구회현동1가194				11. 30
-------	------	--------------	--	--	--	--------

부산직할시 지부 사무소이전

정 문 규	반도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352-14	(3) 9626	2-1002	129	11. 26
표 재 찬	유일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북천동361-2	(53) 2036	2-1607	245	11. 19
장 영 식	영진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북천동361-2	(53) 2036	2-661	161	11. 19

부산직할시 지부 전입회원

안 팔 경	남일건축설계사	부산시중구 남포동1가80	(경남에서)			
-------	---------	---------------	--------	--	--	--

전라남도 지부 사무소이전

김 영 식	국제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금남로16-1	(3) 1302	1-176	5	11. 20
김 호 근	문화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4가16-1	(4) 3558	1-170	1	11. 20
송 양 섭	한미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금남로4가16-1	(3) 9516	1-1257	20	11. 20
이 준 형	아세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금남로4가16-1	(3) 9516	2-592	6	11. 20
박 금 식	금호건축설계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4가16-1	(3) 1302	2-1701	29	11. 20
이 계 혁	동방건축연구소	광주시서구북동301	(3) 5436	1-485	9	11. 22
김 보 현	에이스건축연구소	광주시서구북동301	(3) 5436	1-1219	19	11. 22
유 연 모	미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서구북동301	(4) 0397	2-584	8	11. 22
이 하 규	대성건축연구소	광주시서구북동286-1	(4) 2354	2-1020	17	11. 22
김 상 준	라인건축연구소	광주시서구북동301	(4) 0397	2-1960	28	11. 22
정 병 문	반도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광산동60-1	(2) 2604	1-1287	25	11. 26
조 춘 원	대원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광산동60-1	(2) 5058	2-62	24	11. 26
조 민 형	한양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광산동60-1	(2) 2604	1-504	16	11. 26
김 용 균	삼성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광산동60-1	(2) 2604	2-1322	38	11. 26
주 광 근	아주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광산동60-1	(2) 2604	2-622	7	11. 26
임 영 재	예소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5가133번지	(4) 2597	1-1507	24	11. 26
박 화 수	국보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1가19번지	(2) 9277	1-1482	323	5

경상북도 지부 명칭변경

이 홍 길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5500	1-1156	19	11. 25
김 재 우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5500	1-1024	20	11. 25
유 우 룡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7466	1-1157	21	11. 25
유 병 득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7466	2-751	51	11. 25
강 진 구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7466	1-1169	22	11. 25
김 한 필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5500	2-517	52	11. 25
박 재 우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5500	2-749	53	11. 25
백 정 훈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690-8	(5) 5500	2-924	55	11. 25

경상남도 지부 사무소 이전

김 호 일	원 건축연구소	마산시 오동동158-1	(2) 6328	1-1260	1	12. 9
-------	---------	--------------	----------	--------	---	-------

서울특별시 지부 신입회원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丁 海 德
名 稱 삼보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113-1
電 話 57-5048
免許番号 1-1084
登録番号 1-732
年 月 日 76. 11. 8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鄭 泰 一
名 稱 삼성건축기술공사
所 在 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103-3
電 話 53-3977
免許番号 1-233
登録番号 1-734
年 月 日 76. 11. 29



미광건축설계사무소 1位

제 7 회 전국계산자기능경기대회

大韓商議주최 제 7 회 全国計算자 競技大会가 文公部, 科学技術處, 商工部후원으로 지난 15일 商議大会議室에서 개최됐다.

商議가 計算자의 技能을 보급개발하여 科学技術振興에 기여하고 77년 1월 日本商議주최로 東京에서 개최되는 全日本 計算자大会에 파견할 代表選手 候補선발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大会에는 일반부, 학생부에 53명의 선수가 참가, 学校와 所屬業体の 名譽를 위해 甥소에 曄은 技倆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

이날 大会의 团体, 個人別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 △ 一般部: 1등 미광건축설계사무소
2등 육군사관학교
3등 충남대학교

- △ 学生部: 1등 동도공업고등학교
2등 동래공업고등학교
3등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강남건축사합동 미광건축연구소

이 주 호 1급 건축사 등록제 27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7의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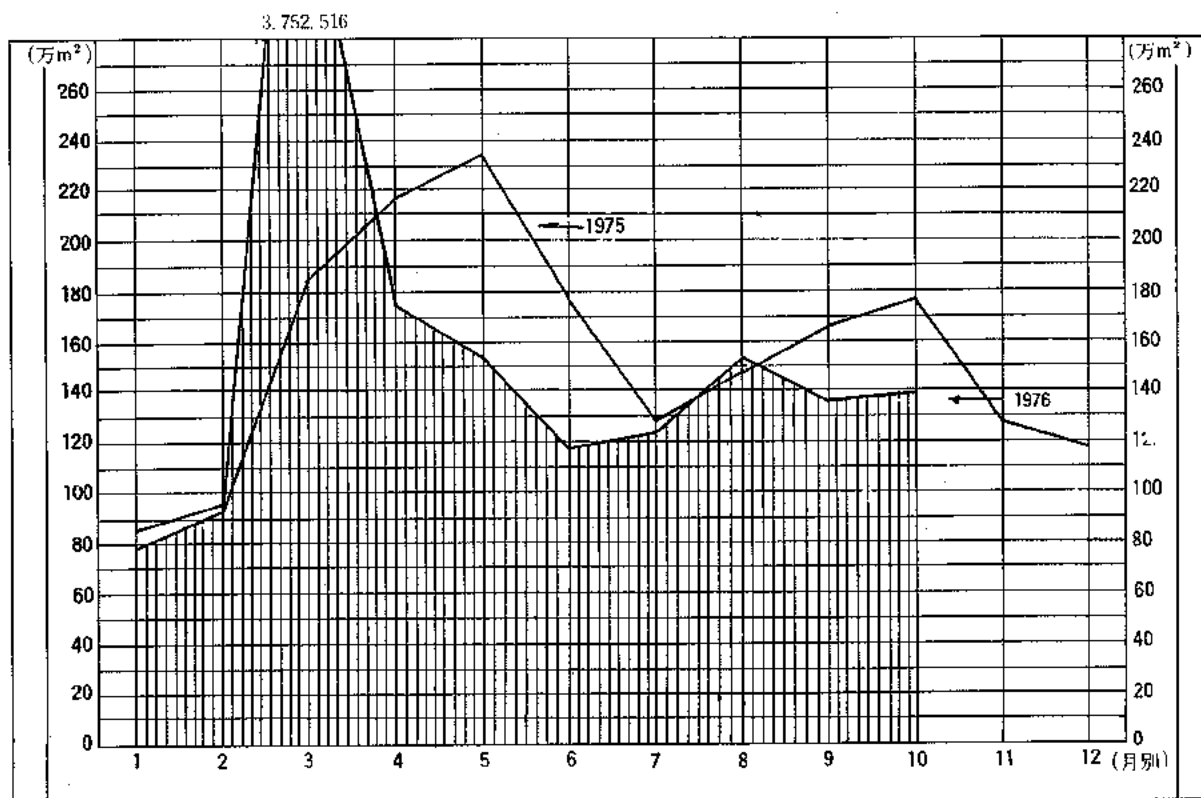
☎ 67-0748번
☎ 67-4169번

建築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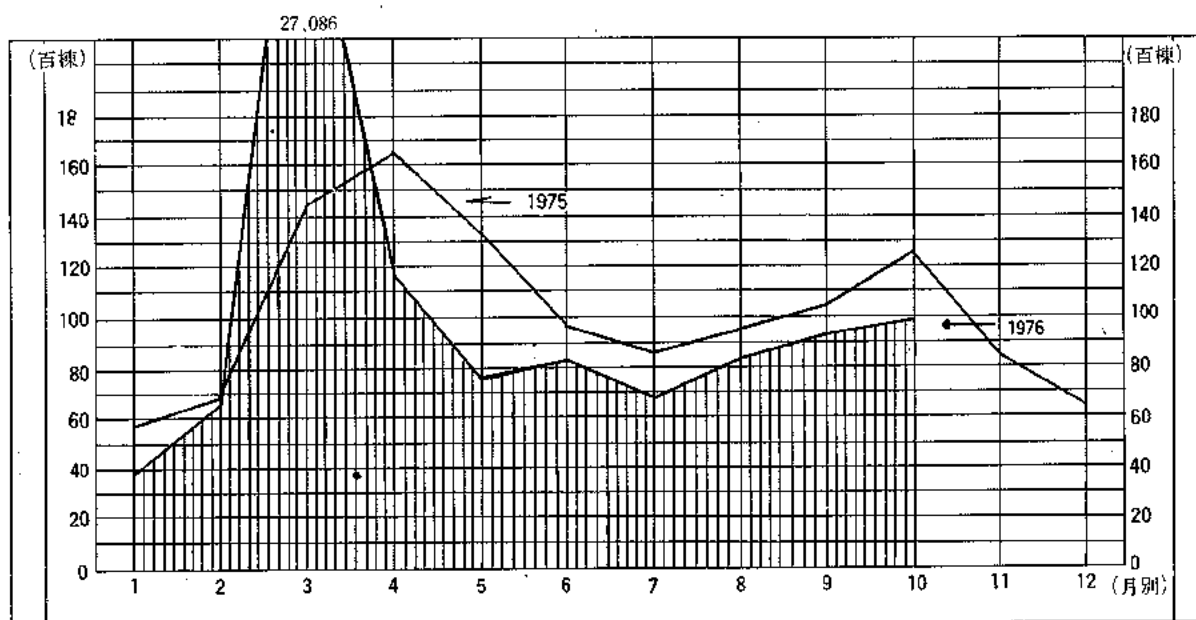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6年10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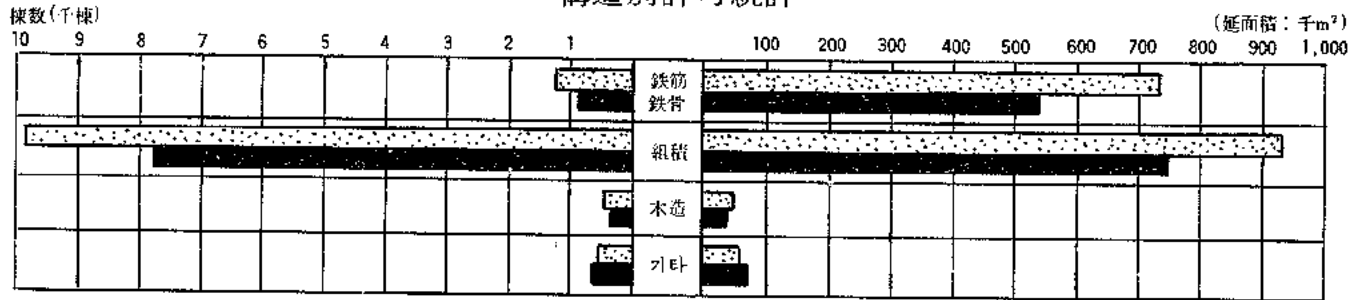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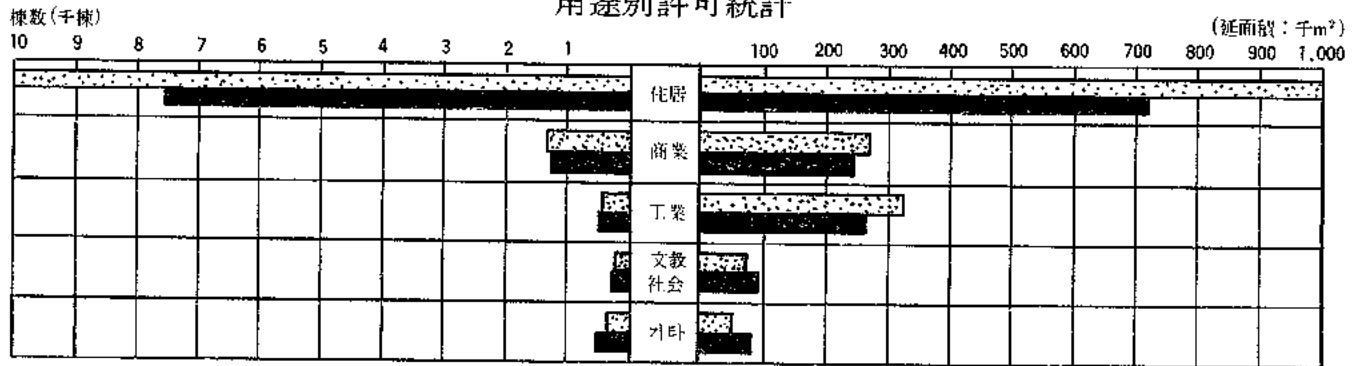
(1976年10月分)

1975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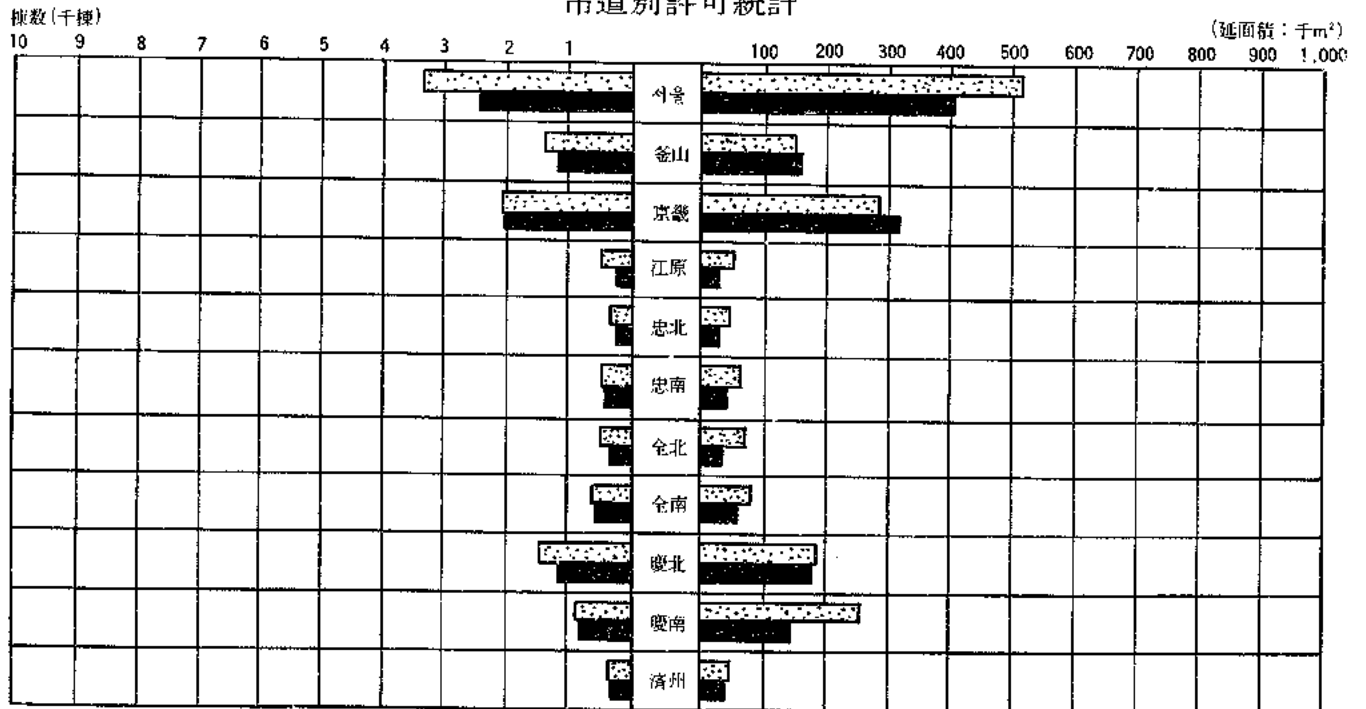
構造別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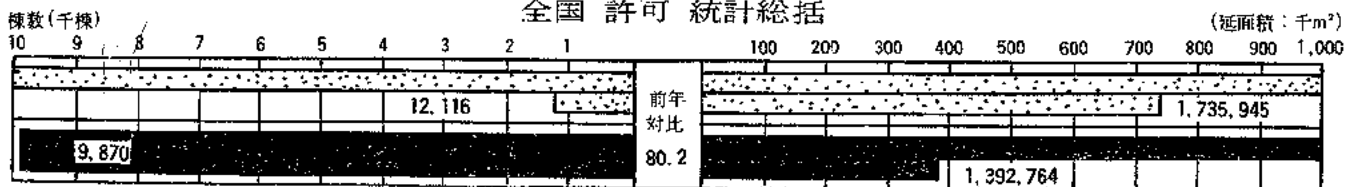
用途別許可統計



市道別許可統計



全国 許可 統計総括



高压 벽돌이란

1. 要 旨

(1) 高压 벽돌은, 모래와 生石灰의 混合物(모래와 生石灰 混合比率은 93 : 7)을, 一定한 模様の 型에 집어넣고, 加圧한 後(上下 1,000TON), 高压 熟氣로서, 5 ~ 8時間 養生하여 生産하는, 우리나라 最初의 벽돌로서, 1880年代에, 独逸에서 처음 開發되었고, 主原料인 모래와 石灰 等の 原料 獲得이, 比較的 容易하므로, 生産原価가 低廉하고, 特性이 優秀하여, 独逸을 爲始하여, 구라와 各国에서 大量 生産되고 있으며 最近에는 美国, CANADA, AUSTRALIA 等에서도 生産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도에, 처음으로 西独 DO-RSTENER 社에서, 生産施設을 導入하여, 76年 4 월에 모래 石灰 벽돌 工場을 建設하였고, 76年 6 月부터, 本格的인 生産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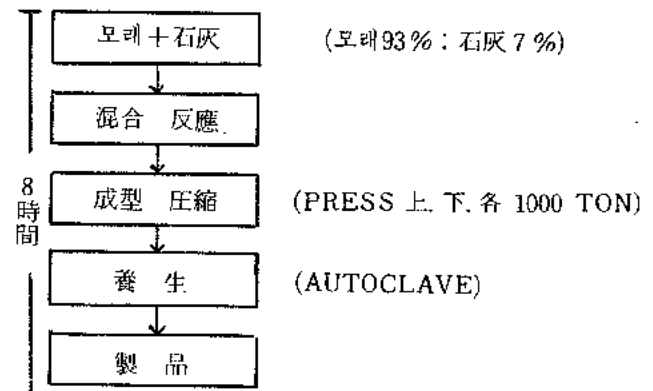
2. 工場施設概要

- (1) 工場 敷地: 22,500坪
- (2) 工場 建物: 1,770坪
- (3) 社屋 : 372坪
- (4) 總施設投資額: 3,890,000,000
 外 資: (DM: 13,000,000): 2,405,000,000
 内 資: : 1,485,000,000
- (5) 主要機械設備(主要生産施設)
 HYDRAULIK 125/05型 3 連續式 壓縮機 3 台 및 附帶 施設
 가. 配 合 施 設 1 式
 나. 圧 縮 施 設 1 式(3 組)
 다. 養 生 施 設 1 式(12基)
 라. 運 搬 施 設 1 式

3. 生 産 能 力

種 類	規 格	生産能力
(1) N F(標準型)	240×115× 71	122百萬(年間)
(2) 2 DF(1 1/2NF)	240×115×113	72百萬(年間)
(3) 3 DF(2 1/4NF)	240×175×113	51百萬(年間)
(4) 8"BLOCK	155× 8 × 8	13百萬(年間)

4. 生 産 方 式



5. 石灰 벽돌의 特性

- (1) 모래와 石灰로 製造
- (2) 優秀한 強度 및 精密度
- (3) 吸水性, 耐火性, 断熱性, 防音性의 効果
- (4) 有色製品 生産可能
- (5) 多様한 着色으로 外觀華麗
- (6) 造積組 建物에 適合

6. 在来式 벽돌과의 比較

区 分	構 成	精 密 度	強 度	備 考
(1)	압 벽돌 細 砂	± 0.5mm	75-350	
(2)	멘트벽돌 王 砂	± 3 mm	50	
(3)	赤 벽돌 粘 土	± 3 mm	100	

7. 經濟性 및 効果

- (1) 国内의 豊富한 賦存 資源 活用
- (2) 鉄筋없이도 造積組 可能으로 鉄筋 節約
- (3) 主原料 石灰 使用으로 시멘트 節約
- (4) 建築資材의 規格化
- (5) 量産 技術導入 開發로 大量 建設体制 確立

韓国高压벽돌株式会社(堤供)

39-4012-5